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安 洪 錫 教 授 指 導  
博 士 學 位 請 求 論 文

韓 國 傳 統 香 氣 療 法 에 대 한  
文 獻 的 考 察

- 芳 香 植 物 의 效 用 性 研 究 를 중 심 으 로 -

2016

誠 信 女 子 大 學 校 大 學 院  
食 品 營 養 學 科  
宋 英 雅

韓國 傳統 香氣療法에 대한

文獻的 考察

-芳香植物의 效用性 研究를 중심으로-

安 洪 錫 教授 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4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食品營養學科

宋 英 雅

# 認 准 書

宋 英 雅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6年 4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논문 개요

향기요법(香氣療法)은 영어로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라고 하며 어원을 풀이하면 ‘향기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현재의 아로마테라피는 치료의 영역 뿐 아니라, 미용, 심리, 생활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질적 삶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합성 화합물의 독성(毒性) 및 부작용(副作用) 발현 사례가 증가되면서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천연물(天然物)에 대한 선호도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개발 및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천연(天然) 방향식물(芳香植物)을 활용하는 향기요법(香氣療法)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는 서양에서 시작된 일종의 대체의학(代替醫學)으로서 다수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방향식물(芳香植物)의 기능성을 활용한 향기요법(香氣療法)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고,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치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했던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학계(學界)에서의 향기요법 관련 연구는 서양의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연구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향기 활용법에 대한 일부 연구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한의학(韓醫學), 식품영양(食品營養), 문화사(文化史), 식물학(植物學), 농업(農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기요법(香氣療法)의 개념 아래서 진행된 한국의 전통적인 방향식물 활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향기요법에 사용된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效用性)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 분야에 따라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

되어왔던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향기요법(香氣療法) 및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效用性)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한국(韓國) 전통(傳統) 향기요법(香氣療法)의 의미를 재조명(再照明)하고,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왔던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향후 향기요법의 연구자원(研究資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식물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韓國) 전통(傳統) 향기요법(香氣療法)의 역사(歷史)를 알아보기 위해, 고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시대별 구분에 따라 향기 활용에 대한 문헌자료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향기요법에 대한 최초의 기원은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찾을 수 있다. 방향식물(芳香植物)인 마늘과 쑥을 약(藥)으로 사용했으며 향기가 있는 단수(檀樹)를 신과의 교류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아 한민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사용할 줄 알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향기의 사용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이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향로(香爐)를 사용하여 향을 태우는 발향법(發香法)을 사용한 흔적이 벽화와 유물, 부조 등에 남겨져 있다. 또한 6세기 중엽인 528년 고구려의 승려 묵호자가 향의 내용과 사용법을 가르치는 등 향기요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삼국시대의 향기요법은 주로 불교의례와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특정 물품 또는 향을 드리는 공양의 목적에 개인적인 기원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인 호국(護國)의 목적이 포함되었고, 사용된 향의 종류도 대부분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된 고가(高價)의 수입품인 만큼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진 왕족 및 귀족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신라에서 경제력에 따라 비싼 향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골품제에 따라 수입향료의 사용을 제한한 것은

그만큼 향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는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향이 사용되었는데, 치료의 용도와 함께 향공양 등 종교 의식, 국가 의례, 사신 및 손님 접대, 향장(香粧) 등에 사용되었으며, 사용법도 발향, 목욕, 피부적용 등 다양해졌다. 이 시기에도 역시 향료의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품이었으므로 주된 사용은 재력이 있는 왕족 및 귀족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는 사료(史料)의 양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사용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치료 뿐 아니라 왕실의 관혼상제, 사신의 접대, 문인들의 기호, 옷이나 서책의 보관, 향신료, 미용, 해충의 구제 등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역사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한국의 향기요법은 초기에는 비싼 가격과 희귀성으로 인하여 왕족 및 귀족을 중심으로 특별한 종교의식, 제사 등 의례용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조선시대의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자원의 조사와 재배 장려 및 각종 생활실용서의 편찬 등을 통해 점차 일반 가정에서도 건강의 유지와 생활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 전통 향기 활용법을 ‘치료용’과 ‘기타활용’으로 나누어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는 향기요법의 개념 중 광의(廣義)의 ‘아로마테라피’ 개념에 근거한 분류법으로, 먼저 ‘치료용 향기요법’을 적용 방법에 있어서 향기성분의 흡수 경로에 따라 크게 흡입법과 구강복용법, 피부적용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 중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서 사용되었던 흡입법에는 향을 피워 연기를 쬐는 훈법(薰法), 향낭(香囊)에 약재를 넣어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향대법(香袋法), 베개 속에 향초를 채워 사용했던 향침법(香枕法) 등이 있었다. 구강복용법은 약재를 달이거나 우린 탕액(湯液)을 이용하는 법, 환(丸)을 이용하는 법, 가루를 이용하는 법, 줄인 형태의 즙인 고(膏)를 이용

하는 법, 약차(藥茶)나 약주(藥酒)로 이용하는 법이 있으며 피부적용법은 향재(香材)를 달여 약의 증기를 쬐거나 세척하는 훈세법(薰洗法), 향재(香材)를 기름 또는 꿀과 섞어 피부에 직접 바르는 향지법(香脂法), 방향식물을 찢어 바로 붙이는 향도부법(香搗付法), 방향식물을 끓인 물로 씻어 내거나 목욕을 하는 방법인 향목욕법(香沐浴法), 향재(香材)를 끓인 물로 양치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기타 활용’은 치료는 아니지만 방향식물(芳香植物) 속 향기성분의 기능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사나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의식 용도가 있었으며, 식품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고 음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 향신료(香辛料) 및 음식에 향을 첨가하여 맛과 기능을 더하는 가향재(加香材)로서의 용도, 책이나 의류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보존 용도, 해충으로부터의 구제를 위한 방충(防蟲)의 용도, 개인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사용했던 미용 및 향장의 용도 등이 있었다.

셋째,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주로 사용되었던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을 고문헌의 기록을 바탕으로 ‘치료용’, ‘의식용’, ‘음식 활용’, ‘생활에 활용’, ‘미용 및 향장에 활용’의 총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는 한편, 한국 전통향기요법에 사용되었던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성분 및 효용성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일부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하여는 효용성 검증을 위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 있는 반면, 일부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하여는 아직도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기존 연구결과의 수가 미미한 24종을 추출하여 고문헌 자료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도를 검색하여 한국 향기요법의 연구자원 식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출한 24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

며, 특히 서양의 향기요법에서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정유를 추출하여 사용하는 등 한국의 전통적인 방향식물 활용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기요법 소재로서의 방향식물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추출법에 따른 성분, 효능의 차이 및 효율적인 향기성분 추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기요법은 약리적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치료의 영역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한국의 전통적 방향식물 사용법에 대한 관점을 단순히 향을 즐기는 문화의 차원이 아니라 방향식물(芳香植物) 속 향기성분의 기능에 근거하는 광의(廣義)의 향기요법(香氣療法)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국의 향기요법 역사와 전통적 활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한국(韓國) 전통(傳統) 향기요법(香氣療法)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그 효용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24종의 식물자원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국내 향기요법 관련 연구의 자원식물 탐색과 21세기 미용 및 건강 융·복합 산업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향기 콘텐츠 및 관련 연구소재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5
1) 전통(傳統)	5
2) 향기요법(香氣療法)	5
3) 방향식물(芳香植物)	8
4) 향기성분(香氣成分)	8
5) 효용성(效用性)	9
II. 이론적 배경	10
1. 향기요법(香氣療法)	10
2. 정유(精油)의 성분	11
1) 테르펜류(Terpenoids)	12
2) 페닐 프로판류(Phenyl propanoids)	16
3. 정유(精油)의 인체 작용	19
1) 정유(精油)의 인체유입 경로	19
2) 정유(精油)의 작용	20
III. 연구방법 및 범위	25
1. 연구방법 및 범위	25

2. 선행 연구 .....	26
1) 한국 전통 향(香)에 대한 시대별 선행연구 .....	27
2) 한국 전통 향(香)에 대한 주제별 선행연구 .....	28
3. 고문헌(古文獻) 자료 .....	31
<b>IV. 연구 결과 및 고찰 .....</b>	<b>34</b>
1. 한국 전통 향기요법(香氣療法)의 시대별 고찰 .....	34
1) 한국 고대의 향기(香氣) 활용 .....	34
2)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향기(香氣) 활용 .....	38
(1) 향(香) 사용법의 진래 .....	38
(2) 행향(行香) .....	40
(3) 향약(香藥)의 거래 .....	41
(4) 고급 수입 향재(香材) 사용의 규제 .....	42
(5) 향도(香徒) .....	46
(6) 향(香) 관련 유물 .....	46
3) 고려시대의 향기(香氣) 활용 .....	52
(1) 행향(行香) .....	52
(2) 향의(香儀) .....	54
(3) 장례에 사용된 향(香) .....	56
(4) 그 밖의 생활 속의 향(香) .....	57
(5) 향약(香藥)의 거래 .....	60
(6) 향도(香徒) .....	62
(7) 향(香) 관련 유물 .....	62
4) 조선시대의 향기(香氣) 활용 .....	67
(1) 행향(行香) .....	67

(2) 왕실(王室)에서의 향(香)의 사용 .....	70
(3) 향(香)과 관련된 관청과 직책 .....	73
(4) 향약(香藥)의 국산화(國產化) .....	76
(5) 국가에서 향약(香藥)을 이용한 전염병 치료를 함 .....	78
(6) 조선 시대 각종 생활서 및 백과사전 편찬 .....	79
(7) 향(香) 관련 유물 .....	81
2. 한국 전통 향기요법(香氣要法)에 대한 용도별 고찰 .....	85
1) 치료용 .....	86
(1) 구강복용법 .....	88
(2) 향기흡입법 .....	88
(3) 피부적용법 .....	93
2) 기타활용 .....	102
(1) 의식용(儀式用) .....	102
(2) 음식(飮食)에 활용 .....	103
(3) 생활(生活)에 활용 .....	112
(4) 미용(美容), 향장(香粧)용 .....	116
3.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效用性) .....	119
1) 고문헌(古文獻)에 기록된 용도별 효용성 .....	121
2)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 관련 연구 검색 .....	126
3) 24종 방향식물의 효용성 고찰 .....	130
(1) 자단향(紫檀香) .....	130
(2) 백단향(白檀香) .....	133
(3) 안식향(安息香) .....	135
(4) 영릉향(零陵香) .....	138
(5) 곽향(藿香) .....	140

(6) 회향(茴香) .....	142
(7) 백교향(白膠香) .....	144
(8) 청목향(靑木香) .....	146
(9) 모향(茅香) .....	148
(10) 냉이 .....	150
(11) 백급(白芨) .....	152
(12) 백렴(白薺) .....	154
(13) 부평(浮萍) .....	156
(14) 사상자(蛇床子) .....	158
(15) 신이화(辛夷花) .....	160
(16) 애납향(艾納香) .....	163
(17) 제비꽃 .....	164
(18) 창출(蒼朮) .....	166
(19) 청호(靑蒿) .....	168
(20) 향유(香薷) .....	170
(21) 고수 .....	172
(22) 도화(桃花) .....	175
(23) 소회향(小茴香) .....	178
(24) 진달래꽃 .....	180

V. 결론 .....	186
-------------	-----

## 참 고 문 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향기요법의 정의에 대한 견해 .....	7
표 2. Mevalonic acid pathway의 생성물 .....	12
표 3. 정유(精油)에서 발견되는 주요 Terpenoids .....	14
표 4. 정유(精油)에서 발견되는 주요 Phenyl propanoids .....	18
표 5. 연구대상 고문헌(古文獻) 목록 .....	32
표 6. 신라시대 골품제에 따른 수레, 말, 가옥에 장식에 대한 규제 .....	45
표 7. 조선왕조실록의 향(香) 관련 관청 및 직책명 .....	75
표 8. 한의학에서 사용된 향기요법의 종류 .....	87
표 9. 향기흡입법의 실례 .....	90
표 10. 훈세법(熏洗法)의 실례 .....	94
표 11. 향지법(香脂法)의 실례 .....	97
표 12. 향도부법(香搗付法)의 실례 .....	99
표 13. 향목욕법(香沐浴法)의 실례 .....	101
표 14. 《식료찬요》에 기록된 방향식물(芳香植物)과 사용 질환 .....	104
표 15. 음식 보존을 위한 방향식물(芳香植物) 사용례 .....	105

표 16. 향신료(香辛料)의 제조를 위한 방향식물(芳香植物) 사용례 .....	106
표 17. 방향식물(芳香植物)을 가향재(加香材)로 활용한 음료 .....	108
표 18. 방향식물(芳香植物)을 가향재(加香材)로 활용한 주류 .....	110
표 19. 방향식물(芳香植物)을 가향재(加香材)로 활용한 기타 음식류 .....	111
표 20.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사용한 의류 및 제품 보존법 .....	113
표 21.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사용한 방충(防蟲) 및 해충(害蟲) 구제법 ..	114
표 22. 미용(美容) 및 향장(香裝) 관련 향기요법 .....	117
표 23.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고문헌(古文獻)상 용도별 효용성 ....	124
표 24.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에 대한 국내 연구의 수 .....	128
표 25. 자단향(紫檀香)의 효용성 .....	132
표 26. 백단향(白檀香)의 효용성 .....	134
표 27. 안식향(安息香)의 효용성 .....	137
표 28. 영릉향(零陵香)의 효용성 .....	139
표 29. 곽향(藿香)의 효용성 .....	141
표 30. 회향(茴香)의 효용성 .....	143
표 31. 백교향(白膠香)의 효용성 .....	145
표 32. 청목향(靑木香)의 효용성 .....	147

표 33. 모향(茅香)의 효용성 .....	149
표 34. 냉이의 효용성 .....	151
표 35. 백급(白芨)의 효용성 .....	153
표 36. 백렴(白薺)의 효용성 .....	155
표 37. 부평(浮萍)의 효용성 .....	157
표 38. 사상자(蛇床子)의 효용성 .....	159
표 39. 신이화(辛夷花)의 효용성 .....	162
표 40. 애남향(艾納香)의 효용성 .....	163
표 41. 제비꽃의 효용성 .....	165
표 42. 창출(蒼朮)의 효용성 .....	167
표 43. 청호(靑蒿)의 효용성 .....	169
표 44. 향유(香薷)의 효용성 .....	171
표 45. 고수의 효용성 .....	174
표 46. 도화(桃花)의 효용성 .....	176
표 47. 소회향(小茴香)의 효용성 .....	179
표 48. 진달래꽃의 효용성 .....	181
표 49. 24종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현대적 효용성 .....	183

## 그림 목 차

그림 1. Mevalonic acid(MVA)pathway와 Methylerythritol phosphate(MEP) Pathway .....	13
그림 2. Shikimic acid pathway .....	17
그림 3. 정유(精油)의 인체 유입경로 .....	19
그림 4. 후각을 통해 5-HT 경로에 대해 미치는 에센셜 오일의 효과 .....	23
그림 5. 연구방법 및 범위 .....	25
그림 6. 안악3호분 벽화 중 오른쪽 시녀(左) 및 향로(右) .....	47
그림 7. 쌍영총 공양행렬도(左) 및 향로를 이고 있는 시종(右) .....	48
그림 8. 백제금동대향로 .....	49
그림 9.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 .....	49
그림 10. 성덕대왕신중(左)과 중 표면의 향공양상(香供養像)(右) .....	50
그림 11. 합천 청량사 석등(左) 향공양상(香供養像)(右) .....	51
그림 12.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北面) 향을 올리는 신라사람 .....	51
그림 13. 청동 연지형 병향로(靑銅 蓮枝型 柄香爐) .....	63
그림 14. 청자 사자형뚜껍 향로 .....	64

그림 15. 봉업사명 청동향로(奉業寺銘靑銅香爐) .....	64
그림 16.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 (表忠寺 靑銅 銀入絲 香垸) .....	65
그림 17. 고려시대 청자향유병(左)과 여러 가지 향유병(右) .....	66
그림 18. 의궤(儀軌) 반차도(班次圖) 중 향통배와 향을 든 시녀 .....	72
그림 19. 조선시대 황동제 제례용 향로와 향합 .....	81
그림 20. 조선시대 백자청화사괘문향로(白磁靑畫四卦文硯滴) .....	81
그림 21. 조선시대 향노리개 .....	82
그림 22. 조선시대 자수향낭 .....	83
그림 23. 운봉수 향낭 .....	84

# I.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향기요법(香氣療法)은 영어로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라고 한다. 어원을 풀이하면 ‘향기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현재의 아로마테라피는 치료의 영역 뿐 아니라, 미용, 심리, 생활,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질적 삶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박은진 등, 2011)

아로마테라피는 천연물(天然物)에서 추출되는 휘발성 오일인 정유(精油)만을 재료로 사용한다. 정유(精油)는 단일 화학성분이 아닌 휘발성이 강한 저분자 유기화합물의 혼합물 상태로 되어 있으며, 독특한 향기와 향미가 있어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향수, 향신료 등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옥현충, 2004) 과학적 근거와 임상에 근거한 현대적 의미의 아로마테라피는 20세기 초반 프랑스의 화학자 가테포세(Gattefosse)가 방향식물이 가지고 있는 정유 성분의 치료적 효능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정유(精油)의 효능과 임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어 왔다.(Schnaubelt, 1999) 이러한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프랑스에서는 아로마테라피가 의료의 일부분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대체의학 또는 보완의학이라고 불리며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박은진 등, 2011)

그러나 국내의 향기요법은 의료 분야보다 간호 중재 분야, 미용 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이선경 등, 2011) 이러한 성과는 향기요법에 사용되는 정유(精油)의 기능적 효과가 치료의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손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최근

소비자들의 천연물(天然物)과 미용,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천연 향기 관련 산업의 성장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한서연, 2008)

최근 천연물(天然物)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이를 활용한 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조희재, 2012) 향기요법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향기요법의 재료인 방향식물의 천연 향기성분에 있다. 식물이 만들어낸 천연 향기성분은 다양한 유기화합물의 복합 형태로 존재하므로 합성품이 발현할 수 없는 독특한 효능과 더불어 합성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정시련 등, 2001)

한편 방향식물(芳香植物) 속 휘발성 향기성분의 활용가치, 즉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임상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대적 아로마테라피의 시행 이전에도 향기요법은 존재하고 있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치료 및 기타 용도에 방향식물(芳香植物)이 사용되어 왔던 기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향기요법에 관한 연구는 서양식 아로마테라피의 체계와 방향식물(芳香植物)을 그대로 국내 환경에 적용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그간 한국의 전통적인 향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전통 향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보존과학, 고고미술학 분야 등에서 꾸준히 정리, 발표되어 왔다.(안점우 등, 2000; 신민자 등, 1998; 李春寧, 1986; 김소영 등, 2014; 이경희, 2011; 한지희, 2011; 정용재 등, 2001; 池江伊, 1999; 구민정, 2003) 그러나 한국의 향(香)에 대한 선행 연구 중 향기성분의 효능을 이용하는 향기요법의 시각에서 다양한 향(香) 사용법의 역사와 활용법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 한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시련 등, 2001; 윤경은 등, 2002; 김선민, 2006; 최미희 등,

2007) 그러나 한국의 향(香) 자원식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으며(전서영 등, 2014) 이는 향후 국내 향기요법과 한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용, 건강 생활분야에서의 향기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향기요법 관련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이 대부분 서양 방향식물인 허브(herb)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향기요법 관련 연구에 있어서 한국 역사 속의 향기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한국 고문헌(古文獻)에 기록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자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관심 분야별로 제각기 진행되어 왔던 한국의 향(香) 사용 및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에 대한 통합적 고찰을 통해 한국 전통 향기요법을 재조명함으로써, 서양에서 먼저 정립된 현대적 아로마테라피의 소재인 서양 허브 위주의 방향식물들과 비견할 수 있는 국내산 방향식물 자원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미용건강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향기 요법 관련 한국 전통 콘텐츠 개발 및 연구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향기요법(香氣療法)의 개념 및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성분인 정유(精油)의 작용근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고문헌(古文獻) 속에 나타나는 향기요법에 관한 자료를 종합함으로써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대한 역사와 활용도를 고증하고, 한국 전통 향기요법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국내산 방향식물의 효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현대 향기요법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원의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한국 전통 향기요법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 전통 향기요법의 용도를 ‘치료용’과 ‘기타활용’으로 나누어 특징을 파악한다.

셋째,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방향식물 중 국내 선행 연구가 미흡한 한국산 방향식물 자원을 추출하고, 고문헌 자료와 국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효용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산 방향식물의 미용, 건강 관련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 내용 중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통(傳統)

국립국어원 포탈 사이트(<http://www.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전통(傳統)의 뜻을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전통의 유의어에는 관례(慣例), 인습(因習), 관습(慣習)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전통은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던 방식’으로 정의한다.

#### 2) 향기요법(香氣療法)

향기요법(香氣療法)이라 함은 ‘향기(香氣)’와 ‘요법(療法)’이라는 용어가 합성된 단어이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는 합성어이다.

향기(香氣)의 정의를 국립국어원 포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으면 향기(香氣)는 명사로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라고 정의되어 있다. (<http://www.korean.go.kr>) 또한 요법(療法)은 명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http://www.korean.go.kr>) 결국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향기요법은 ‘좋은 향기를 통해 병을 고치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적 정의만으로 향기요법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기요법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지식백과 검색 기능을 통해 향기요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조사하였다.

검색 결과, 향기요법의 기본적인 정의는 대부분 ‘식물, 허브 등에서 추출한 방향성(芳香性) 오일인 정유(精油)를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치료법’이라는 공통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기요법의 재료에 대하여는 대부분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두산백과의 정의에서는 ‘향기 나는 식물(허브)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정유를 이용하거나 허브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고 하여 재료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또한 테라피의 범위를 질병치료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공기 청향제, 향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통지식포털(www.koreantk.com)의 정의에서도 향기요법의 목적을 질병의 치료에만 두지 않고 ‘질병 예방 및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치료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생물과학협회가 표준화한 생명과학 및 인접 과학 분야의 용어에 대해 정리한 《생명과학대사전》에서는 ‘단순히 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미용 등을 목적으로 정유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향기성분의 기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정리된 향기요법(香氣療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향기요법(香氣療法)을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성분(香氣性分)을 이용하여 치료 및 건강한 생활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표 1. 향기요법의 정의에 대한 견해

출처	향기요법의 정의
<p>두산백과 (www.doopedia.co.kr)</p>	<p>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 향기나는 식물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향기요법'</p> <p>아로마(aroma:향기)와 테라피(therapy:치료·요법)를 합성한 용어로 향기치료·향기요법을 가리키는 말이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미용 등을 목적으로 향기나는 식물(허브)에서 추출한 100% 순수한 정유(精油:에센셜 오일)를 이용하는 자연치료법이다. 원래 100% 정유(精油)로 질병치료, 피부미용, 심리적 불안정 회복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순수 아로마테라피 외에도 공기 청향제, 향수, 방향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 정유는 특별한 치료 효과를 지닌 식물의 꽃, 줄기, 잎, 열매, 수액 등에서 추출한 순도 100% 에센스로 휘발성이 높은 방향물질이다. 허브를 이용한 것은 아로마테라피 중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 허브 향기를 맡거나 허브 즙을 내어 습포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p>
<p>한국전통지식포탈 (www.koreantk.com)</p>	<p>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인 정유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자연의학의 한 형태이다.</p>
<p>생명과학대사전 (강영희, 2008)</p>	<p>단순히 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미용 등을 목적으로 허브에서 추출한 100% 순수 정유를 이용하는 자연치료법. 아로마(aroma)는 방향, 테라피(therapy)는 요법을 표현하는 합성어이다.</p>

### 3) 방향식물(芳香植物)

방향(芳香)의 사전적 의미는 ‘꽃다운 향기(香氣)’이다. 방향식물(芳香植物)의 뜻에 대하여 농촌진흥청(www.nongsaro.go.kr)에서 제공하는 농업용어사전에는 영어로 ‘incense plant’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며, 말 그대로 ‘향기가 있는 식물’을 의미한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향기성분은 식물의 꽃, 꽃봉오리 열매, 잎, 어린 가지, 줄기, 뿌리, 수지(樹脂; Resin) 등에서 얻어지며 향기가 있는 방향식물의 종류는 1500종 이상이 된다.(지형준, 1997)

### 4) 향기성분(香氣成分)

향기성분[aroma constituent]에 대하여 《영양학 사전》에서는 ‘식품 중의 휘발성 성분 중에서 냄새를 갖는 성분. 후각신경으로의 종합적인 자극이 그 식품 특유의 향으로. 비점(沸點)이 실온 이하이거나, 또는 수증기 증류에 의하여 유출되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유기화합물이 주성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채범석 등, 1998) 또한 《차생활문화대전》에서는 ‘차를 비롯한 식품에 함유된 성분 중 후각 신경을 자극하는 향을 가진 휘발성 성분’이라고 정의한다.(정동효 등, 2012) 양쪽 모두 향기성분(香氣成分)에 대하여 식품 또는 차가 갖는 ‘휘발성 성분’이며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유기화합물’이라는 공통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향기성분(香氣成分)의 정의는 ‘향기요법(香氣療法)에 사용되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성분을 의미’하며 식물의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인 정유(精油) 성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정유(精油)란 방향유(芳香油)와 같은 말로 식물의 잎, 줄기, 열매, 꽃, 뿌리 따위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휘발성의 기름을 의미한다.(http://www.korean.go.kr)

##### 5) 효용성(效用性)

효용(效用)의 뜻에 대하여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 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보람이나 쓸모. 2.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효능이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效用을 영어로 번역하면 ‘use’, ‘usefulness’, ‘utility’로 사용된다.(홍성민 등, 2006)

본 연구에서의 효용성(效用性)은 ‘이용 또는 활용 가치가 있는 정도 및 특성’이라는 의미로 정의한다.

## Ⅱ. 이론적 배경

현재 국내 향기요법에 대한 연구는 서양에서 정립된 아로마테라피의 전형(典型)에 의거하고 있다. 현대 아로마테라피는 프랑스의 화학자인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René-Maurice Gattefossé)가 과학과 임상실험에 기초하여 정유(精油)의 효능을 입증한 데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는 정유도 약의 일종으로 여겨졌으며 주로 질병의 치료에만 사용되었다.(Lawless, 1995) 그러나 현재 향기요법의 기능과 역할은 의학적 범주 내에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의 생활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한서연 등, 2011)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향기요법의 재료인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성분, 즉 정유의 기능성에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향기요법(香氣療法)의 개념과 정유(精油)의 성분 및 인체 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1. 향기요법(香氣療法)

향기요법은 영어로 ‘Aromatherapy’라고 한다. 아로마테라피는 아로마(Aroma)+테라피(Therapy)의 합성어로 ‘향기로 치유한다’는 뜻을 가진 합성어이다.(한서연 등, 2011) ‘아로마테라피’라는 용어의 사용은 1937년 프랑스의 르네모리스 가테포세가 발표한 ‘Aromatherapie’라는 저서에서 처음 유래되었지만, 인류가 식물의 향기성분을 치유나 생활에 이용했던 기록은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chnaubelt, 1999) 식물의 향기성분은 치료, 피부건강, 향수, 의례, 살균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고대로부터 교역을 통해 다양한 향료 및 방향식물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도 하였다.(박권우, 2007)

방향식물에서 추출되는 정유는 단일 화학성분이 아닌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의 혼합물 상태로, 독특한 향기와 향미가 있어 서양에서는 주로 향수 및 향신료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옥현충, 2004) 그러나 식물의 향기 성분은 단순히 제품에 좋은 향기의 배합 및 향미의 첨가를 통하여 기호도를 높이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향기 성분 자체는 식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유기화합물의 조합으로 각각 특유한 생리활성 작용을 한다. (한서연 외, 2011)

## 2. 정유(精油)의 성분

정유(精油; Essential Oil)란 방향유(芳香油)와 같은 말로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잎, 줄기, 열매, 꽃, 뿌리 따위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휘발성의 기름을 의미한다.(<http://www.korean.go.kr>)

식물들은 물과 이산화탄소, 태양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합성한다. 이 에너지를 구성하는 주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로서 식물은 광합성에 의하여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만들어낸다. 방향식물(芳香植物)이 만들어내는 향기성분인 정유(精油)는 이러한 유기화합물 중 일부로, 생합성 경로에 따라 크게 테르펜류(terpenoids)와 페닐 프로판류(phenyl propanoids)가 기본 골격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유기 작용기들이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Bowles, 2003) 식물의 정유 성분은 거의 대부분 다음의 생합성 경로에 의해 생성되는데, 하나는 Mevalonic acid(MVA) pathway와 Methylerythritol phosphate(MEP) Pathway이고, 이 경로에 의해 테르펜류(terpenoids)가 만들어지게 된다. 또 다른 경로는 Shikimic acid pathway로 페닐 프로판류(phenyl propanoids)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된다.(Bowles, 2003)

1) 테르펜류(Terpenoids)

식물의 정유 성분 중 Mevalonic acid(MVA) pathway와 Methylerythritol phosphate(MEP) Pathway에 의해 만들어지는 테르펜류(terpenoids)는 하부구조를 이루는 이소프렌 단위(isoprene unit)의 숫자에 따라 모노테르펜(mono-terpenes), 세스퀴테르펜(sesqui-terpenes), 디테르펜(di-terpenes), 트리테르펜(tri-terpenes), 테트라테르펜(tetra-terpenes), 폴리테르펜(poly-terpenes)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2; 그림 1)

그러나 수증기증류법에 의해 추출되는 대부분의 정유성분에는 비교적 입자가 가벼운 mono-terpenes, sesqui-terpenes, di-terpenes까지만 발견된다.(Schnaubelt, 1999)

표 2. Mevalonic acid pathway의 생성물

성분 분류	isoprene unit	생성물
Mono-terpenes	2	essential oil component, irinoid
Sesqui-terpenes	3	essential oil component
Di-terpenes	4	essential oil component, resin component, Vit.A, phytol, gibberellin
Tri-terpenes	6	squalene, steroid, digitoxigenin
Tetra-terpenes	8	carotenoid, xanthophyll
Poly-terpenes	다수	natural rubber, guttapercha

출처: Schnaubelt,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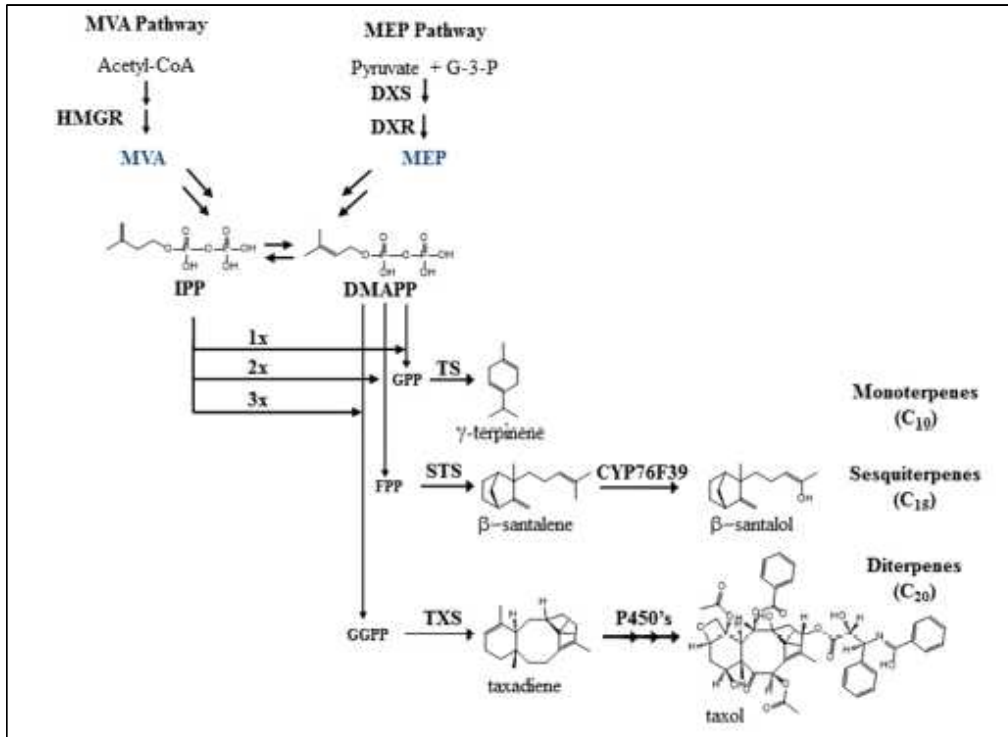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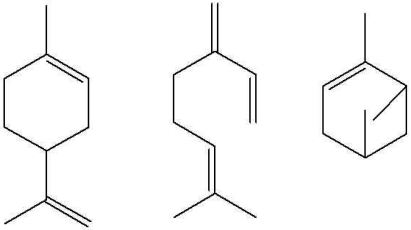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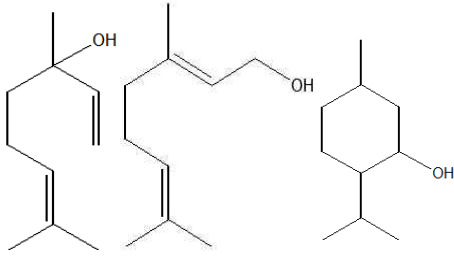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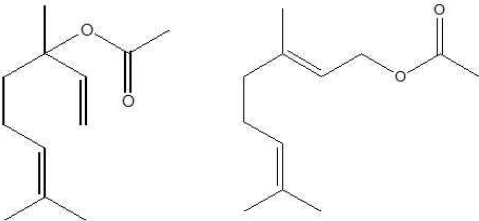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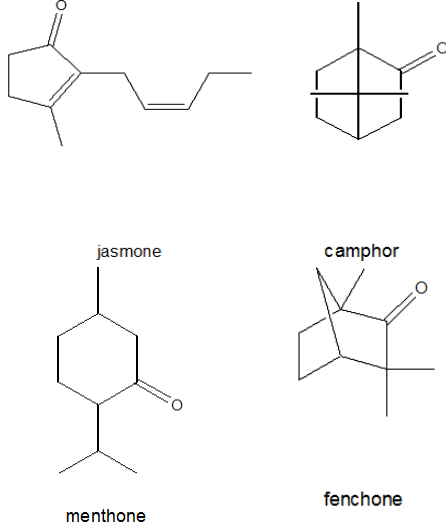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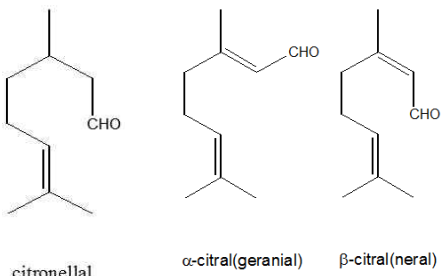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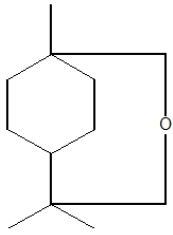
그림 1. Mevalonic acid(MVA) pathway와 Methylerythritol phosphate(MEP) Path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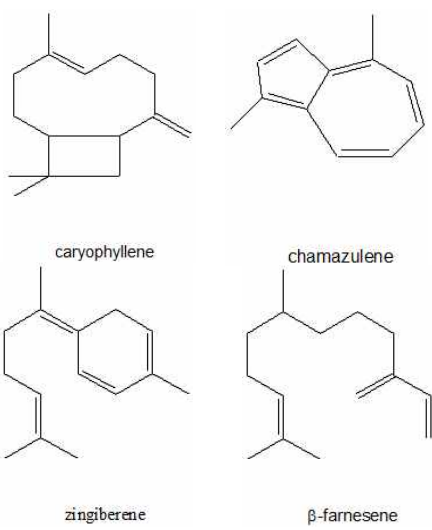
출처: Ikram et al(2015)

다음은 정유에서 발견되는 주요 Terpenoids의 구조이다.(표 3)

표 3. 정유(精油)에서 발견되는 주요 Terpenoids

구분	구조	주요 성분 및 방향식물
Mono-terpene hydrocarbons	 <p>limonene      myrcene      <math>\alpha</math>-pinene</p>	<p>Limonene (시트러스 계)</p> <p><math>\alpha</math>-pinene (사이프러스, 주니퍼, 파인, 프랑킨세스)</p> <p>Myrcene (미르)</p>
Mono-terpene alcohols	 <p>linalool      geraniol      menthol</p>	<p>Linalool (라벤더, 버가못, 마조람)</p> <p>Geraniol (네롤리, 로즈, 제라늄)</p> <p>Menthol (페퍼민트)</p>
Esters	 <p>linalyl acetate      geranyl acetate</p>	<p>Linalyl acetate (네롤리, 라벤더, 버가못)</p> <p>Geranyl acetate (제라늄)</p>

구분	구조	주요 성분 및 방향식물
Ketones	 <p> <chem>CC1=C(C)C(=O)C=C1C/C=C/C</chem>  <chem>CC1(C)C(=O)CCCC1</chem>  <chem>CC12C(C)C1C(=O)C2</chem>  <chem>CC1(C)C(=O)C2C(C)CC1C2</chem> </p> <p> jasmone  menthone  camphor  fenchone </p>	<p>Jasmone (자스민)</p> <p>Menthone (페퍼민트)</p> <p>Camphor (로즈마리 ct. 캠퍼, 세이지, 타임)</p> <p>Fenchone (펜넬)</p>
Aldehydes	 <p> <chem>CC1=CC(C)CC(C)C1C=O</chem>  <chem>CC(C)=CC=CC=CC=O</chem>  <chem>CC(C)=CC=CC=CC=O</chem> </p> <p> citronellal      α-citral(geranial)      β-citral(neral) </p>	<p>Citronellal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p> <p>α-citral (레몬그라스, 멜리사)</p> <p>β-citral (레몬그라스, 멜리사, 네롤리)</p>
Oxides	 <p>1,8-cineol</p>	<p>1,8-cineol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카जू풋)</p>

구분	구조	주요 성분 및 방향식물
Sesqui-terpene hydrocarbons	 <p>The image shows four chemical structures of sesquiterpene hydrocarbons. Top left: Chamazulene, a bicyclic structure with a fused five- and seven-membered ring system. Top right: Caryophyllene, a bicyclic structure with a fused five- and seven-membered ring system and a side chain. Bottom left: Zingiberene, a monocyclic structure with a six-membered ring and a side chain. Bottom right: beta-farnesene, a monocyclic structure with a six-membered ring and a side chain.</p>	<p>Chamazulene (캐모마일 저면, 야로우)</p> <p>Caryophyllene (로즈, 캐릿씨드, 클로브)</p> <p>Zingerberine (진저)</p> <p>Farnescene (로즈)</p>

(2) 페닐 프로판류(Phenyl propanoids)

정유의 또 하나의 생합성 경로는 시킴산 경로(shikimic acid pathway)로 미생물, 식물 등의 독립영양 생물에서 방향족 아미노산, 그 밖의 방향족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로로 방향환 합성경로라고도 한다.(그림 2)

시킴산 경로는 포스포에놀피르브산(phosphoenol pyruvate)과 D-에리트로스4-인산(D-erythrose-4-phosphate)이 축합하여 3-데옥시-D-arabino-헵투론산-7-인산(3-deoxy-D-arabinoheptulosonate-7-phosphate, DAHP)을 생성하는 반응부터 시작한다. DAHP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시킴산(shikimate)이 된다. 시킴산은 시킴산인산화효소(shikimate kinase)에 의해 시킴산 3-인산(shikimate 3-phosphate)이 되고, 이어서 5-Enolpyruvylshikimate-3-phosphate 생성 효소(EPSP synthase)에 의해 포스포에놀비루브산(phosphoenol pyruvate)과 축합하여 5-에놀피르보일시킴산

3-인산(5-enolpyruvonyl shikimate 3-phosphate)이 된다. 또한 코리스미산 생성효소(chorismate synthase)에 의해 코리스미산(chorismate)이 된다. 코리스미산에서 2개로 구분하여 한쪽은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티로신(tyrosine) 합성으로, 다른 한쪽은 트립토판(tryptophane)의 합성으로 유도한다.(강영희, 2008) 이 페닐알라닌으로부터 유래된 성분들이 페닐프로판류(phenyl propanoid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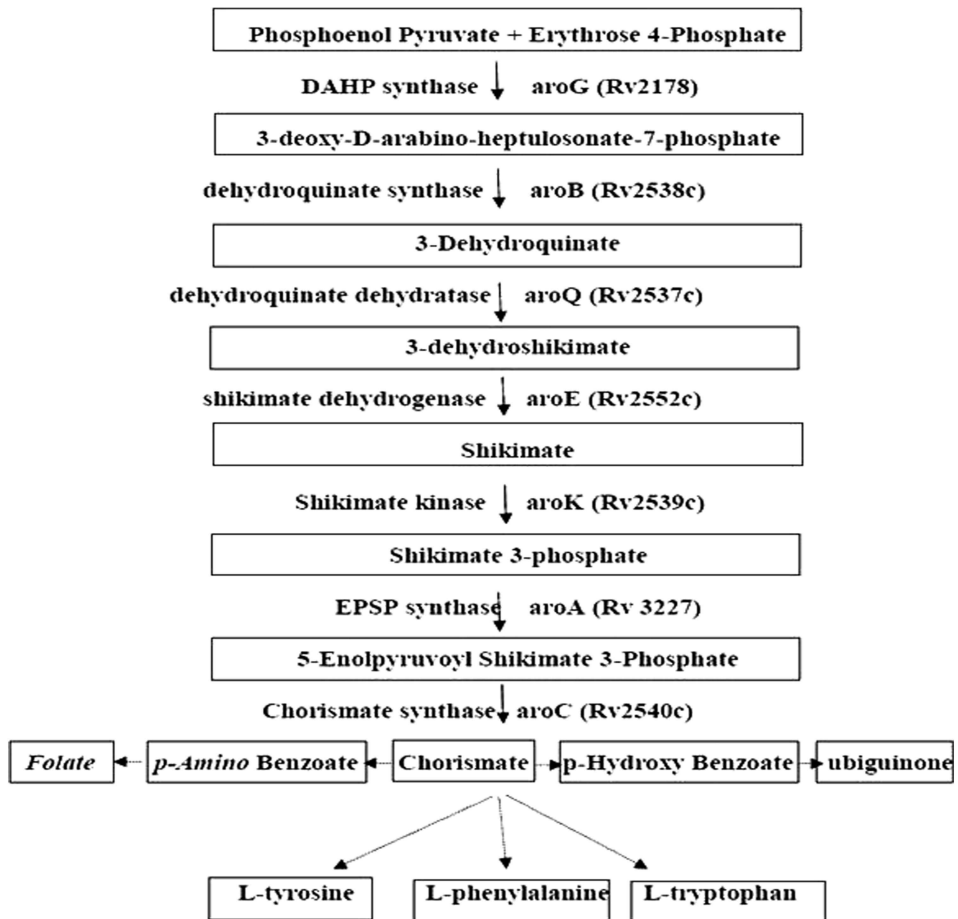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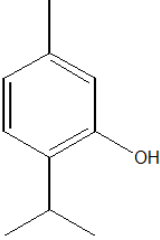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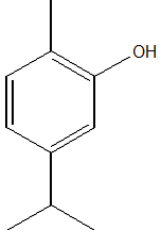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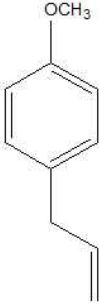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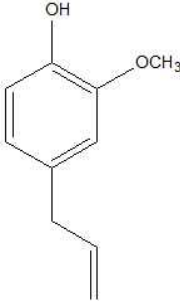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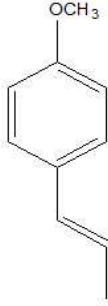


그림 2. Shikimic acid pathway

출처: Mir et al, 2015

다음은 정유(精油)에서 발견되는 주요 Phenyl propanoids이다.(표 4)

표 4. 정유(精油)에서 발견되는 주요 Phenyl propano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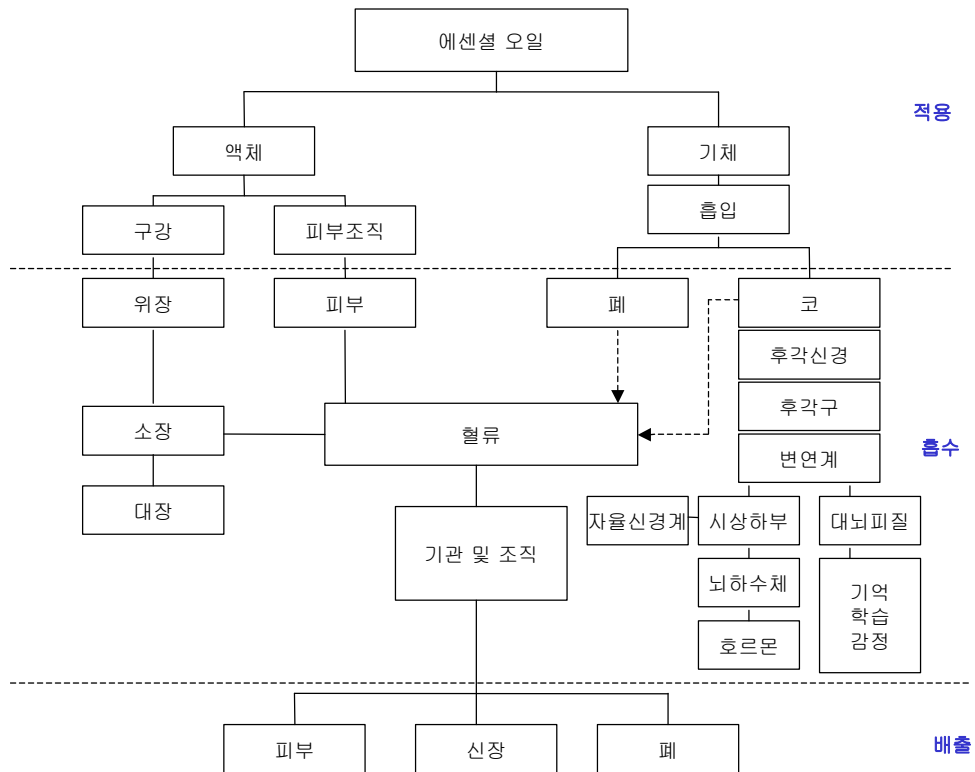
구분	구조	방향식물
Phenols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thymol</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carvacrol</p> </div> </div>	<p>Thymol (타임)</p> <p>Carvacrol (오레가노, 타임)</p>
Phenyl ethers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methyl chavicol</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eugenol</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anethol</p> </div> </div>	<p>Methyl chavicol (바질, 펜넬)</p> <p>Eugenol (바질, 베이)</p> <p>Anethole (펜넬)</p>

### 3. 정유(精油)의 인체작용

식물의 향기성분인 정유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의 혼합물이다. 향기요법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물질들이 첫째, 인체 내로 유입될 수 있고, 둘째, 인체 내에서 특정한 작용을 한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 서다.

#### 1) 정유(精油)의 인체유입 경로

정유가 인체로 유입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이 크게 구강복용, 후각, 피부, 폐를 통하는 4가지이다.(그림 3)



\* 점선은 흡수되는 에센셜 오일의 양이 미미함을 의미함

그림 3. 정유(精油)의 인체 유입경로

출처: Battaglia(2004)

구강복용, 경피흡수, 흡입 후 폐를 통과하는 경로는 일반적인 약물의 흡수 경로와 동일하나, 후각을 통하는 경로는 일반적인 약물과는 다른 점이 있다.

향기성분이 주가 되는 정유는 후각 수용체와 결합하여 시상하부 및 변연계를 통과하면서 자율신경계, 시상하부, 해마 등에 영향을 준다.(Battaglia, 2004) 리처드 액셀(Richard Axel)은 인체에 각기 다른 후각 수용체 1000여 종이 존재하며, 냄새분자가 이 수용체와의 결합을 통해 후각 뉴런의 전기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유전학적으로 밝혔다.(Axel, 2005) 그의 연구에 따르면 후각 관련 유전자는 전체 유전자의 3%에 이르고 이 중 약 1000개의 유전자와 후각 수용체의 숫자가 일치하며, 후구의 숫자는 후각 수용체 수의 두 배이다. 후구는 승모세포(Mitral-cell)를 통해 전기 신호들을 변연계의 시상이나 측두엽의 후각중추로 보내 그곳에서 향을 해석하고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경로를 통해 냄새가 인지되면, 뇌는 한번 인지된 향을 기억하게 된다.(Axel, 2005)

## 2) 정유(精油)의 작용

정유가 가지는 기능적 작용에 대한 연구는 화학, 생명공학, 의학, 약학, 식품영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정유는 휘발성이 있는 유기화합물로 인체 표면이나 체내 흡수 된 후 다양한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정유가 가지는 작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1) 약리적 작용

정유는 기본적으로 탄소, 산소, 수소가 기본인 수십 종에서 수백 종에 이르는 유기화합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Bowles, 2003) 이 유기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약리 작용 중 이미 입증된 특성에는 진통, 항염, 항균, 수렴, 구풍, 거담, 발적, 진정, 피부재생 및 상처치료 등이 있다.(Battaglia, 2004)

정유 성분 중 Monoterpene hydrocarbon류가 풍부한 에센셜 오일은 진통 효과를 보이며 특히 Para-cymene과 Myrcene을 함유한 오일이 그렇다는 연구가 있었다. Lorenzetti은 레몬그래스(Lemongrass) 오일의 성분인 Myrcene은 진통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Lorenzetti et al, 1991) 이 밖에 Phenol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Eugenol은 클로브(Clove)의 주요 성분인데, Eugenol이 통증 수용과 관련된 감각 수용체와의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진통 효과를 가지며, 이는 Eugenol이 cyclooxygenase와 lipoxygenase의 경로를 방해함으로써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Battaglia, 2004)

성분 중 Sesquiterpene 계열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정유는 항염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Silveira et al, 2015) 선천성 면역체계의 수용체인 톨유사수용체는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주요 분자이며 자가면역질환과 관계가 있는데,(Li et al, 2009) 국화과 식물인 카모마일(Chamomile)에 포함되어 있는 Sesquiterpene 계열의 화합물인 Chamaazulen과 Bisabolene이 rat model에서 항염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Tomić et al, 2013)

또한 다양한 방향식물(芳香植物) 속 화학성분이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티트리(Tea tree) 오일 속의 Terpene-4-ol은 항균성을 띠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Carson, 1995) 대부분의 Terpenoid 성분은 에너지 대사의 효소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세균의 세포막에서의 호흡과 ATP 합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nobloch, 1989)

점막이나 조직을 견고하게 하는 수렴작용을 통해 출혈을 억제하거나 정맥흐름 및 림프 순환을 촉진시키고,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 다수의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실험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Battaglia, 2004)

구풍(驅風)은 장내 가스, 통증, 팽만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의미한다. 구풍작용은 소화물의 장벽을 통한 재흡수와 가스통과를 조율하는 반사작용 조절, 위벽이나 위액에 대한 국소 자극, 진경작용, 담즙 촉진 작용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계피(桂皮), 곽향(藿香), 페가눔(Peganum) 등 다양한 방향식물(芳香植物)이 가진 구풍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강욱 등, 1999; 이정수 등, 2005; Mina et al, 2015)

## (2) 생리적 작용

향기 분자의 정보가 후각신경을 통해 변연계에 전해지고, 간뇌의 시상하부에 도달하면 시상하부는 아래에 위치한 뇌하수체에 신호를 전달한다.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신호에 따라 자율신경계에 자극을 주거나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기능을 조율하는 등 생리적 조절 작용을 한다.(Battaglia, 2004)

이러한 생리적 작용의 예로 라벤더(Lavender) 향의 흡입은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는 세로토닌(serotonin)이란 생리활성물질을 분비시킨다.(Takahashi et al, 2014)

그림 4는 에센셜 오일의 흡입에 의해 5-HT(5-hydroxytryptamine), 즉 세로토닌이 합성되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 흡입된 에센셜 오일의 분자는 후각을 통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하여 5-HT(5-hydroxytryptamine)를 생성한다. 5-HT 유도 경로는 감정 조절(우울, 불안 등)에서 중요하다. 5-HT는 트립토판 수산화 효소에 의해 트립토판으로부터 합성되며 시냅스 전 뉴런의 소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신경 자극을 받으면 시냅스 간극으로 방출된다. 5-HT는 G 단백질 결합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용체에서 활성화되고, 고리 AMP 반응 요소 결합 단백질(CREB)인 전사인자를 인산화함으로써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데, 이는 감정조절 장애에서 관찰되는 신경 전

달 물질의 변화, 신경 흥분, 신경생성 및 신경 가소성, 세포 사멸 및 위축에 관여한다. 에센셜 오일에 의한 자극은 세로토닌 수용체를 통한 세로토닌 재 흡수 및 시냅스 전 신경에서 5-HT<sub>1B</sub> 자가 수용체에 의해 방출된 피드백 조절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P11 단백질은 이러한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5-HT<sub>1B</sub> 수용체와 상호 작용한다.(Lv et a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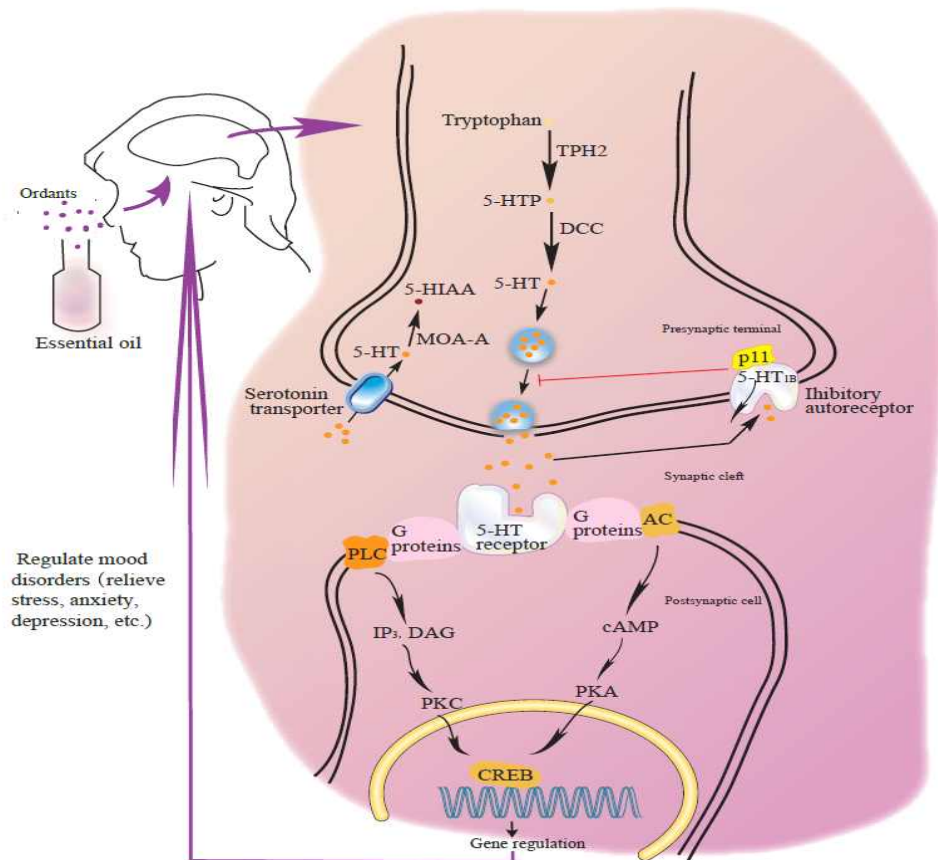


그림 4. 후각을 통해 5-HT 경로에 대해 미치는 에센셜 오일의 효과

출처: Lv et al, 2013

### (3) 심리적 작용

향기는 개개인의 발육단계에서의 경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경험은 후각을 자극해서 인간의 감정과 기억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raubelt, 1999) Li 등은 장미향에 대한 학습 연구로 같은 향기에 대한 입력도 사전 학습과 경험에 따라 다른 냄새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Li et al, 2006)

향기는 사회행동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간 및 동물이 소위 페로몬(pheromone)에서 나온 냄새를 탐지함으로써 같은 종족의 다른 성원들에 의해 방출되는 생화학적 방향물질로 행동이나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hacter et al, 2008) 이는 각 개인의 삶의 방식(Life style)과 환경, 심리적 상황에 따라 향의 선호도가 달라지며, 또한 같은 향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Ⅲ. 연구방법 및 범위

#### 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터넷, 관련서적, 학술지,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한국 전통 향기문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전통 향기요법과 관련된 주제어를 추출하여 한국 전통 향기요법 고찰과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 고찰의 연구범위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주제어를 포함한 선행 연구와 고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향기요법을 시기별, 용도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고문헌에 사용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현재 선행연구가 미흡한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선정, 고문헌의 사용례를 바탕으로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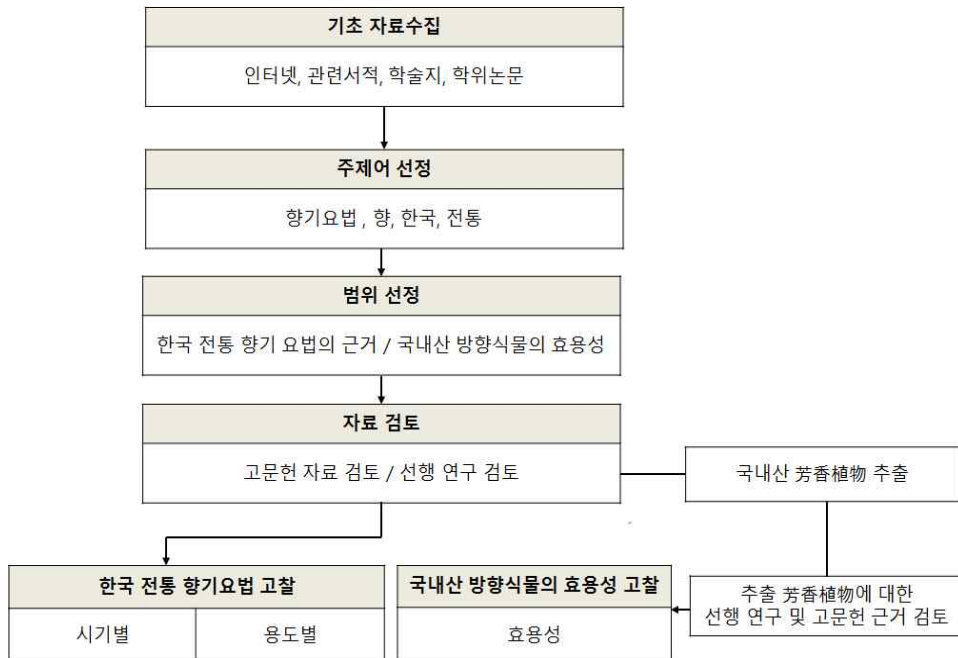


그림 5. 연구방법 및 범위

## 2. 선행 연구

본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대한 선행연구의 추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향기요법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RISS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제목 또는 주제어에 ‘향기요법’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자료를 검색한 결과, 2016년 4월 기준으로 총 203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그 중 학위논문 55편, 학술지논문 92편, 단행본 56편이었다. 이 중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147편을 대상으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의학(韓醫學) 분야에서의 한국 전통향(傳統香)을 이용한 향기치료 임상연구(손동우, 2000; 황치혁, 2013; ; 송태원, 2002), 한의학적 향의 개념(엄지태, 2011)과 향기치료법(안점우 등, 2000), 방향성(芳香性) 본초(本草) 분류(엄지태 등, 2011), 향보(香譜)에 소개되어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과 한의학에서 사용되었던 향 만드는 방법(정용석 등, 1999)에 대한 고찰 연구, 한의학은 아니지만 국산 방향식물의 정유를 이용한 임상연구(김수영, 2002; 박재익 등, 2004; 박재익, 2005; 이효은 등, 2011; 권현교 등, 2011; 성현수 등, 2014; 최상란, 2014) 등 10여 편 정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향기요법 연구는 서양 허브 위주의 아로마테라피 관련 연구였고, 한국 전통의 향기요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었다.

이는 한국의 전통 향기요법에 관한 선행연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키워드를 변경하여 ‘향(香)’, ‘한국(韓國)’, ‘전통(傳統)’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재분석하였다. 검색 결과 총 2,202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으며 자료의 형태는 학위논문(552), 국내학술지논문(442), 단행본(1,166), 공개강의(1), 연구보고서(41) 등이었다. 이 자료 중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994편을 대상으로 ‘동음이의어’, ‘비유어’ 및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필터링하여 한국 전통 향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는 학위논문 13편, 학술지논문 32편의 총 45편이 검색되었으며, 검색 논문을 ‘연구대상의 시대’와 ‘연구대상의 주제’ 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1) 한국 전통 향(香)에 대한 시대별 선행연구

선행 연구 대상의 시대별 구분에 있어서, 한국사의 다양한 시대사적 구분법 중국가사를 기본으로 시대구분 하였다.(이기동, 1997) 그러나 자료가 많지 않은 상고시대 국가와 고구려, 백제,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를 통합하여 ‘고대 및 통일신라시대’로 구분하여 총 3개의 시대인 ‘고대 및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향에 관한 시대별 연구는 사학계(史學界)를 중심으로 향료와 관련된 무역 및 불교 의례, 불교의식에서 비롯된 호국단체인 향도(香徒)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박남수, 2009; 김지은, 2010; 김지은, 2013; 영정미가, 2003; 이용진, 2010; 채웅석, 2016), 특정 시대의 향문화(香文化)에 대하여 고찰한 생활과학, 의류학 또는 미용학 쪽의 연구도 일부 있었다.(박미선, 2005; 이경희, 2011; 이애련 등, 2012)

먼저 고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향에 관한 연구는 박남수(2009), 영정미가(2003, 2005)의 연구처럼 주로 신라와 일본과의 외교무역 품목으로서의 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불교와 연관하여 국내 전파된 향약(香藥)에 대한 연구(김지은, 2013)가 있으며 삼국시대 석조물과 향료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박미선, 2005; 이용진, 2010) 또한 불교의 향공양(香供養)에 쓰일 침향(沈香)을 만들기 위해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향(埋香) 의식과 관련된 향도들의 행위와 호국의식에 대한 연구도 있었으며,(채웅석, 2016) 대부분이 향과 연관된 고대사회의 종교 및 정치, 교역 등에 대한 연구였다.

고려시대 향에 대한 연구는 고려 전기부터 무신집권기까지 향의 생산과 수입, 국가 및 민간의 사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다룬 권순형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를 통해 고려시대에 향을 사용하고 영위하였던 계층이 개방된 무역을 바탕으로 한 귀족층이 주가 되었음을 밝혔다.(권순형, 2013) 또한 신라시대부터 존재했던 불교의식과 연관된 매향(埋香)의식과 의식에 참여한 향도(香徒)의 정치사회적 성격 및 매향비(埋香碑) 금석문(金石文)에 대한 연구가 앞 시대와 연결되어 고려시대 향이 가지는 또 다른 성격을 엿볼 수 있다.(채웅석, 2002; 이준곤, 2003) 한편 향 도구로서 고려시대의 향완(香垸)과 향로(香爐)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도 있었다.(구민정, 2003; 서정호, 2006)

이후 조선시대 향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도자향로에 대한 연구(김미정, 1977) 및 조선시대의 향문화(香文化)와 의생활(衣生活)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이경희, 2011), 조선 전기에 간행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언급된 우리나라 전통 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이애련 등, 2012)

## 2) 한국 전통 향(香)에 대한 주제별 선행연구

한국의 전통 향에 대한 주제별 선행연구는 크게 향의 활용에 대한 연구와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자원가치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향의 활용은 다시 활용 분야에 따라 약용으로 사용되는 향에 관한 연구, 향신료 및 식품에 향과 기능을 첨가하기 위해 활용한 향에 관한 연구, 보존 및 방충 효과에 관한 연구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먼저 향기의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는 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의학 쪽에서 이루어졌으며(안병수, 2003; 송철민 등, 2006; 정주배 등, 1997; 박수진, 2012; 안빈, 2002) 음식 및 향신료로 사용된 향에 대한 연구는 식품영양, 차, 문화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현경희, 2005; 나원주 등,

2011; 조기정 등, 2011; 김종오, 2010; 한지희, 2011; 한익, 1996; 신민자 등, 1998; 신민자 등, 2001; 김미경 등, 2008; 최성희, 2009) 또한 의류와 책의 보존을 위한 향의 용도에 대하여 의류학과 보존과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이경희, 2011; 이경희 등, 2013; 정용재 등, 2001; 이경희 등, 2006; 조은혜, 2010)

한편 한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자원가치와 자원식물 조사에 관한 연구가 농업, 약학, 한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형준(1997)은 우리나라에 분포된 식물자원 중 향신료로 쓰일 수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을 100여종으로 선별하였고, 변재면 등(1999)은 향자원 식물의 선별 기준으로 첫째, 방향성분을 식물체의 전체 혹은 일부분에 함유하고 있는 것, 둘째 향신채소로 이용 가능한 것, 셋째, 약료식물이나 기호료 식물로 주로 이용되는 식물 중 방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총 69科 1,039種의 식물을 선정하였다. 그 중 약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을 동의보감(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자료를 바탕으로 총 297 종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변재면, 2000)

전서영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정유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식물의 향기가 화장품, 약용향료, 식품향료, 농업용 살충제, 공업용 향료 등 산업용으로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향 관련 산업계는 향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전서영 등, 2014)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인 향에 관한 연구는 분야별로 역사학, 한의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보존과학, 고고미술학 분야 등에서 꾸준히 정리, 발표되어 왔으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자원적 가치 및 효용성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요법이라는 개념 하에서 한

국의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왔던 한국의 전통적 향기의 활용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조망은 없었다. 특히 전서영 등(2014)의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에서 국내의 향 자원식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왔으며 (정시련 등, 2001; 윤경은 등, 2002; 김선민, 2006; 최미희 등, 2007), 이는 향후 국내 향기요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국내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사용에 관한 역사적 자료와 개별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향기요법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이 대부분 서양 방향식물인 허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향기요법의 전통적 사용법에 대한 고찰과 함께 한국산 방향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효용성 검증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3. 고문헌(古文獻)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고문헌 자료는 편찬목적에 따라 크게 사서(史書), 의학서(醫學書), 농서(農書), 조리서(調理書), 생활서(生活書), 풍속서(風俗書)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전통 향기요법의 시대별 자료는 사서(史書)인 고려도경(高麗圖經),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제왕운기(帝王韻紀),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7종을 참고하였으며, 향기요법의 용도별 자료는 의학서인 식료찬요(食療纂要), 동의보감(東醫寶鑑), 춘감록(春鑑錄), 수진경험신방(袖珍經驗神方)의 4종, 조리서인 역주방문(歷酒方文) 1종, 조리서 및 생활서인 규합총서(閩閩叢書) 1종과 백과사전적 성격의 생활서인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산림경제(山林經濟),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4종, 농서인 해동농서(海東農書), 농정회요(農政會要) 2종, 풍속서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1종 등 총 20종의 고문헌을 참고하였다.

다음 표 5는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대한 연구대상 고문헌 자료 목록이다.

표 5. 연구대상 고문헌(古文獻) 목록

제목	저자	편찬 연대	출판사 (번역연대)	번역자 (원본소장처)	구분
고려도경 (高麗圖經)	서공	1123년	황소자리 (2005)	조동원 외 (이화여자대학교 영인본)	사서 (건문록)
삼국사기 (三國史記)	김부식	1145년	한국인문고전 연구소 (2012)	박장렬 외 (성암고서박물관)	사서
삼국유사 (三國遺事)	일연	1281년 경	한국인문고전 연구소 (2012)	신태영 (고려대학교중앙 도서관:석남본)	사서
제왕운기 (帝王韻紀)	이승휴	1287년	역락 (1999)	김경수 (삼성출판박물관)	사서 (역사시)
고려사 (高麗史)	김종서 , 정인지	1449년 ~ 1451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008)	국사편찬위원회 (동아대학교 박물관)	사서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	김종서 등	1452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008)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사서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1413년 ~1865 년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2008)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사서
식료찬요 (食療纂要)	전순의	1460년	농촌진흥청 (2004)	농촌진흥청	의학서
동의보감 (東醫寶鑑)	허준	1613년	한의학고전 DB(2015)	윤석희 외 (국립중앙도서관)	의학서
산림경제 (山林經濟)	홍만선	1643년 ~ 1715년	한국학술정보 편집부(2008)	한국학술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농서, 생활서

제목	저자	편찬 연대	출판사 (번역연대)	번역자 (원본소장처)	구분
증보 산림경제 (增補 山林經濟)	유중립	1766년	농촌진흥청 (2004)	농촌진흥청 (규장각)	농서, 생활서
역주방문 (歷酒方文)	미상	1800년 대 중엽	한국생활과학 연구소 (1983)	이성우,조준하 (윤용진:개인소장 )	조리서
해동농서 (海東農書)	서호수	18세기 후반	농촌진흥청 (2008)	농촌진흥청 (성균관대학교)	농서
규합총서 (閩閩叢書)	빙허각 이씨	1809년	보진재 (2008)	정양완 (정양완:개인소장 )	조리서, 생활서
임원십육지 (林園十六志)	서유구	1830년 대	한국전통지식 포탈(2007)	한국전통지식포 탈 (규장각)	생활서
농정회요 (農政會要)	최한기	1830년 대	농촌진흥청 (2007)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농서
오주연문 장전산고 (五洲衍文 長箋散稿)	이규경	1800년 대 중반	한국전통지식 포탈(2007)	민족문화추진회 (규장각)	생활서
동국세시기 (東國歲時記)	홍석모	1849년	풀빛(2009)	정승모 (연세대학교)	풍속서
춘감록 (春鑑錄)	이영춘	1927년	한의학고전 DB(2015)	안상우 외 (한독의약박물관)	의학서
수진경험신방 (袖珍經驗神方)	이인재	1913년	한의학고전 DB(2015)	안상우 외 (국립중앙도서관)	의학서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한국 전통 향기요법(香氣療法)의 시대별 고찰

세계의 향기요법 역사에 대한 자료가 매우 방대한데 비하여 한국의 향기요법에 대한 정보는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이는 한국인들이 향기에 대하여 무지했다거나 향기요법에 대하여 몰랐기 때문은 아니다.

한국 사료에서 향기와 관련된 기록은 주로 고려시대 이후에 보여지는데, 이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사료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실존하는 사료의 내용을 근거로 유추해볼 때, 이미 고대시대부터 한민족 자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방향식물(芳香植物)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 한국 고대의 향기(香氣) 활용

방향식물(芳香植物)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한민족의 건국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1206~1289)이 쓴 《三國遺事》에 한민족의 건국신화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雄率徒三千，降於太伯山頂(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謂之神市，是謂桓雄天王也。(三國遺事/ 紀異第一/ 古朝鮮 王儉朝鮮)

雄(웅)이 무리 三千(삼천)을 이끌고 太白山(태백산) 꼭대기 【太白(태백)은 지금 妙香山(묘향산)】 神壇樹(신단수) 밑에 내려와 여기를 神市(신시)라 이르니 이가 桓雄天王(환웅천왕)이란 이다. …

《三國遺事》에 神壇樹(신단수)라 기록되어 있으나, 비슷한 시기인 1287년(충렬왕 13)에 이승휴(李承休)가 쓴 역사시(歷史詩)인 《帝王韻紀》에는 같은 내용이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 …令孫女飲藥成人身，與檀樹神婚(帝王韻紀/ 卷下/ 前朝鮮紀)

(환인(桓因)의) 손녀(孫女)에게 약을 먹게 하여 인간의 몸이 되도록 하여 단수신(檀樹神)과 혼인시켰다…

일반적으로 《帝王韻紀》에 기록된 단목(檀木)의 단은 기존 연구에서 박달나무로 해석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三國遺事》에서 보이는 신단수(神壇樹)의 단(壇)은 신과 소통하는 제단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왕운기에서 보이듯이 단(檀)으로 보아 박달나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김열규, 1989) 또한 전완길은 한민족의 첫 거주지가 단목(檀木; 박달나무) 근처라는 것은 향나무인 박달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등 향료가 고조선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전완길, 1999)

그러나 박달나무는 향나무가 아닌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으로 단단한 성격의 재질로 주로 세공품이나 도구를 만드는 목재로 사용되거나 약용으로 새순을 사용하는 등 향료로서의 사용용도와는 거리가 있어 박달나무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단(檀)은 박달나무라는 뜻 외에 향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 단향목(檀香木)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박달나무가 아닌 ‘향을 품은 나무’ 또는 향나무의 범칭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단(檀)은 인도가 원산지인 샌달우드(Sandalwood; *Santalum album*)을 의미하기도 하며(정수일, 2013) 샌달우드는 인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신과 소통하기 위한 제사, 의례에 사용되었던 방향식물(芳香植物)이었다.(한서연 등, 2011) 따라서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기록 중 하늘의 신인 환웅이 인간세계에 내려와 교류하기 위한 장소나 나무로서 단수(檀樹)의 역할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과 신과의 교류, 제사 등에 향이 사용된 것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등 각 문명의 발상지에서 모두 신과의 소통을 위한 제사에서 향을 사용하였으며 제사의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한상길, 2004)

또한 《삼국유사》의 아래 문장을 통해 또 다른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 是有一熊一虎，同穴而居，常祈于神熊，願化爲人。時神遺(遣)靈艾一炷，蒜二十枚曰，爾輩食之，不見一光百日，更得人形，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熊得女身，虎不能忌 而不得人身 …(三國遺事/ 紀異第一/ 古朝鮮 王儉朝鮮)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거하였는데, 늘 신웅(神熊)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때마침 신웅(神熊)이 신령한 쑥 한 심지와 마늘 이십 알을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되 백일 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호랑이와 곰은 받아서 그것을 먹었는데, 삼칠일 동안 조심하여서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삼가지 못하여 사람 몸을 얻지 못했다…

여기서 마늘과 쑥은 각각 독특한 향기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 특별히 신령하다[靈艾]고 지칭하고 있음은 일반적인 먹거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서의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帝王韻紀》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帝王韻紀》에서는 “令孫女飲藥成人身，與檀樹神婚”이라 하여 쑥과 마늘 대신 약(藥)으로 대체되어 있다. 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약이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있는 성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마늘과 쑥의 성분을 약용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김두진, 2002)

삼국시대 이전의 한국 고대사에 자료가 극히 부족하므로 향기요법에 대한 자료 역시 극히 한정된 문구만을 이용하여 유추할 수 밖에 없으나, 위의

두 사료를 통해 고조선 시대에 이미 방향 식물이 가진 효능을 통해 하늘과 소통하기 위한 의식 및, 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인간에게 유용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향기(香氣) 활용

삼국시대에 이르러 불교문화가 융성하면서 불교가 전래된 중국을 통해서나 많은 향료의 원산지인 인도로부터 직접 향료를 수입하는 등 향의 사용에 관한 자료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향 사용에 대한 자료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향을 사용했던 당시 상황과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향(香) 사용법의 전래

삼국시대에 관한 기록인 《三國史記》 신라본기(新羅本紀) 법흥왕조(法興王條)와 《三國遺事》 법흥제3(興法第三) 아도기라(阿道基羅)에 고구려이 승려 묵호자가 신라에 향을 전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다. 다음은 《三國史記》에 기록된 내용이다.

■ …訥祗王時，沙門墨胡子自高句麗至一善郡，郡人毛禮，於家中作窟室安置，於時，梁遣使賜衣着香物，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遣人賣香徧問，墨胡子見之，稱其名目曰，此焚之則香氣芬馥，所以達誠於神聖，所謂神聖未有過於三寶，一曰佛陀，二曰達摩，三曰僧伽，苦燒此發願，則必有靈應，時，王女病革，王使胡子焚香表誓，王女之病尋愈，王甚喜，餽贈尤厚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앞서 눌지왕(訥祗王) 때에 묵호자(墨胡子)란 중이 고구려에서 일선군(一善郡)에 이르니, 군민 모례(毛禮)란 자가 자기 집에 토굴방을 짓고 그를 모셔 두었다. 그때 양(梁)나라에서 사신을 신라에 보내 의복(衣服)과 향(香)을 주었다. 군신(羣臣)이 그 향명(香名)과 그것의 소용을 알지 못하여 사람을 시켜 향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물었다. 묵호자(墨胡子)가 이를 보고 그 이름을 일러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사르면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통할 수 있으며, 이른바 신성(神聖)은 삼보(三寶)에서 더 지나갈 것이 없으니, 첫째 불타(佛陀)요, 둘째 달마(達摩)요, 셋째 승가(僧伽)다. 만일 이를 살라서 축원(祝願)을 드리면 반드시 영험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이 때 왕녀(王女)가 갑자기 병으로 위독하니 왕이 묵호자로 하여금 향(香)을 사르고 축원을 드리게 하였더니 왕녀의 병이 곧 낫는지라, 왕이 매우 기뻐하여 예물(禮物)을 후히 주었다....

《三國史記》의 위 기록은 향의 용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신라에 향을 피워 신성(神聖)에게 정성을 통하는 용도라 전하며 아울러 불교에 대해 전하는 내용으로, 당시 고구려 승려인 묵호자가 신라에 있다가, 중국사신이 신라왕실에 보내온 향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신라 눌지왕(재위 417년~458년) 때 불교와 함께 인도에서 건너온 많은 향료가 중국을 통해 신라에 전해졌으며, 향을 태우는 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지은, 2013) 이렇게 신과 소통하기 위해 향을 사용하던 기록은 인도, 이집트, 로마, 티벳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Lawless, 1995) 그러나 이러한 제사 또는 의식에 향을 사용하는 데는 향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고대 인도, 이집트, 로마 등에서 사용되었던 프랑킨센스(Frankincence)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진정 효과를 주며, 신경성 긴장,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Lawless, 1995) 공주의 위중한 병을 낫게 하였다는 기록 외에 어떤 병이었는지, 어느 장소에서 향을 피웠는지, 어떤 종류의 방향식물(芳香植物)로 만들어진 향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종의 향의 흡입에 의한 향기치료의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 (2) 행향(行香)

‘행향(行香)’은 부처님에게 올리는 예로서, 향로를 받쳐 들고 불전 안을 돌면서 행하는 의식을 말하는데,(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01) 《三國史記》에 행향(行香)의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634년 백제 무왕(武王) 때이다. 아래 기록을 보면 무왕 35년 왕흥사(王興寺)라는 절을 준공하고 왕이 여러 번 절에 가 행향하였다는 내용이다. 왕흥사(王興寺)는 사찰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왕권의 고양을 의미하고 왕이 절에 행차하여 향(香)을 태운 행위도 왕흥사가 호국사찰이었음을 반영한다(길기태, 2006).

■ 三十五年，春二月，王興寺成。其寺臨水，彩飾壯麗。王每乘舟，入寺行香(三國史記/ 百濟本紀 第五/ 武王)

35년 봄 2월에 왕흥사가 준공되었다. 그 절은 강가에 있었으며 채색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왕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

또한 《三國遺事》에는 신라 경애왕(景哀王)의 즉위일인 924년 황룡사에서 왕이 친히 행향(行香)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第五十五景哀王即位同光二年甲辰，二月十九日，皇龍寺說百座說經。兼飯禪僧三百，大王親行香致供。此百座通說禪教之始(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第二/ 景哀王)

제55대 경애왕이 즉위한 동광(同光) 2년 갑신(甲申) 2월 19일에 황룡사(皇龍寺)에서 백좌(百座, 百高座會)를 열어 불경을 풀이하였다. 겸하여 선승(禪僧) 3백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대왕이 친히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렸다. 이것이 백좌에서 함께 설한 선교(禪敎)의 시초이다.

신라사회에서 백좌(百座)와 같은 호국불교의식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이것은 불교의 근본정신인 자비와 보시(布施),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정법치국사상(正法治國思想)이 신라에 확립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공감과 신뢰를 받은 결과라고 하였다(장지훈, 1998).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불교 및 불교의식인 향공양의 전파 및 확산을 통해 향의 사용이 확산되었으며 국가의 안위 등 중대사(重大事)의 기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향약(香藥)의 거래

신라에서 향약(香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로 많이 인용되는 매신라물해(買新羅物解)는 8세기 중엽 신라사신이 일본에 가져간 교역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일본 사학자 東野治之가 1974년 《買新羅物解》 26건의 문건을 정리하여 그 전래와 내용, 성격 등을 살핀 바 있으며, 그 후 皆川完一이 1994년 새로이 4건의 《買新羅物解》를 수습함으로써 모두 30건의 문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박남수, 2009)

東野治之는 《買新羅物解》 속에 보이는 향료로서 사향(麝香), 훈육향(薰陸香), 청목향(靑木香), 정향(丁香;丁字), 침향(沉香;枕香), 곱향(藿香), 영릉향(零陵香), 감송향(甘松香), 용뇌향(龍腦香), 안□향(安□香), 의향(衣香), 훈의향(薰衣香), 훈향(薰香), 탁의향(橐衣香), 잡향(雜香)을 들었으며, 皆川完一은 여기에 화향(和香), 향유(香油), 백단(白檀(香)), 계설향(鷄舌香), 울금향(鬱金香)을 추가하고, 안□향(安□香)을 안식향(安息香)으로 보았다.(박남수, 2009)

그러나 기재된 모든 향료의 이름 중 일부는 재료인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이름을 따른 것, 용도를 따른 것, 방법을 따른 것들이 섞여있으며, 한 식물에서도 다양한 향료가 생산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향료의 재료가 되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종류는 좀 더 축약되어 사향(麝香), 훈육향(薰陸

향), 청목향(靑木香), 정향(丁香;丁字), 침향(沉香;枕香), 괘향(藿香), 영릉향(零陵香), 감송향(甘松香), 용뇌향(龍腦香), 안식향(安息香), 백단향(白檀香), 계설향(鷄舌香), 울금향(鬱金香)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박남수, 2009) 이 중 침향(沉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훈육향(薰陸香) 등은 아라비아, 소말리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이 원산지인 수입향이다. 신라에 불교가 전파되고 국교로 공인된 이후,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향약(香藥)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통일신라시대의 활발한 대외교역의 결과, 남해무역을 통해 수입된 많은 향(香)이 향로(香爐) 등 불교행사용구와 함께 다시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다.(김지은, 2013) 즉 삼국시대에 불교의 전파와 함께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값비싼 수입향료가 왕실과 귀족, 불교 사찰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 (4) 고급 수입 향재(香材) 사용의 규제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고급자재의 사용 규제를 정하고 있는데 자단(紫檀), 침향(沉香) 등 수입산 고급 향재(香材)의 사용은 진골(眞骨)부터 평민(平民)까지 모두 금하였다. 이는 귀족들 사이에 당시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단(紫檀), 침향(沉香)과 같은 값비싼 수입 향재의 수요를 줄이고 낭비를 막기 위한 의도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 자단과 침향 등은 나무에 특유의 방향성분이 배어 있으므로 은은하게 향이 날 뿐 아니라 벌레가 먹지 않는 등 수레와 말안장, 집에서 쓰는 침상 등에 고급목재로 사용되었다.(표 6)

다음은 《三國史記》에 보이는 수입 향재의 규제에 관한 기록이다.

■ 眞骨. 車林不用紫檀·沉香(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 車騎)

...진골(眞骨). 수레의 자재(車材)로 자단(紫檀)·침향(沉香)을 쓰지 못한

다...

- 六頭品.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柘及金·銀·綴玉(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 車騎)  
6두품 (남자). 안장들은 자단·침향·회양목(黃楊)·왜나무(槐)·산뽕나무(柘) 및 금·은과 옥을 다는 것을 금한다
- 六頭品女. 鞍橋**禁紫檀·沉香**及纁金·綴玉(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 車騎)  
6두품 여자. 안장들은 자단·침향 및 금으로 두르거나(纁金) 옥을 다는 것을 금한다.
- 五頭品.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柘, 亦不得用金·銀·綴玉(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 車騎)  
5두품 (남자). 안장들에 자단·침향·회양목·왜나무·산뽕나무 사용을 금하며, 또한 금·은을 사용하거나 옥(玉, 玉)을 달지 못한다.
- 五頭品女. 鞍橋**禁紫檀·沉香**, 又禁飾以金·銀·玉(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 車騎)  
5두품 여자. 안장들은 자단과 침향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써 꾸미는 것을 금한다.
- 四頭品至百姓.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柘(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 車騎)  
4두품에서 백성까지. 안장들은 자단·침향·회양목·왜나무·산뽕나무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써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 四頭品女至百姓女.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 又禁飾金·銀·玉(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誌 第二/ 車騎)  
4두품 여자에서 백성 여자까지. 안장들은 자단·침향·회양목·왜나무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안장 밑갈개와 안장 자리갈개는 계수금라(麗繡錦羅)·세라(總羅)·능(綾)·호피(虎皮) 사용을 금한다.
- 眞骨...床**不飾**玳瑁·**沉香**...(三國史記/ 卷第三十三 / 雜誌 第二/ 屋舍)  
진골의 床(상)은 玳瑁(대모)나 沉香(침향)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 六頭品...床不得飾玳瑁紫檀沉香黃楊又禁錦薦...(三國史記/ 卷第三十三 / 雜志 第二/ 屋舍)

육두품의 床(상)은 玳瑁(대모)나 紫檀(자단)·沈香(침향)·黃楊木(황양목)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또 비단자리를 금한다.

표 6. 신라시대 골품제에 따른 수레, 말, 가옥에 장식에 대한 규제

	수레와 말의 장식	거주하는 가옥
진골 남자	수레의 자재(車材)로 자단(紫檀)·침향(沉香)을 쓰지 못한다.	상(床)을 대모(玳瑁)나 침향(沈香)으로 꾸미지 못한다.
진골 여자	안장틀은 보석장식(寶鈿, 칠보와 자개로 만든 것)을 금한다	
육두품 남자	안장틀은 자단·침향·회양목(黃楊)·혜나무(槐)·산뽕나무(栲) 및 금·은과 옥을 다는 것을 금한다	상(床)을 대모(玳瑁), 자단(紫檀), 침향(沈香), 황양(黃楊)으로 꾸미지 못하고, 또 비단보료[錦薦]를 금한다.
육두품 여자	안장틀은 자단·침향 및 금으로 두르거나(裊金) 옥을 다는 것을 금한다.	
오두품 남자	안장틀에 자단·침향·회양목·혜나무·산뽕나무 사용을 금하며, 또한 금·은을 사용하거나 옥(玉, 玉)을 달지 못한다.	-
오두품 여자	안장틀은 자단과 침향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써 꾸미는 것을 금한다.	-
4두품 이하 백성 남자	안장틀은 자단·침향·회양목·혜나무·산뽕나무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써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
4두품 이하 백성 여자	안장틀은 자단·침향·회양목·혜나무 사용을 금하고, 또한 금·은·옥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안장 밑갈개와 안장 자리갈개는 계수금라(鬪繡錦羅)·세라(總羅)·능(綾)·호피(虎皮) 사용을 금한다.	-

## (5) 향도(香徒)

향도는 불교 수용 이후 포교와 신앙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였다. 사료상으로 보면, 고려 말부터 불교신앙에서 벗어나 향촌공동체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유형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개 불사(佛事) 참여·지원 및 수행 위주의 활동을 하였다(채상식, 2012) 향도가 처음 등장한 사료는 삼국사기로 7세기 초인 609년 김유신이 화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매우 잘 따랐으며 그들을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 公年十五歲，爲花郎，時人洽然服從，號龍華香徒。(三國史記/ 卷第四十一/ 列傳 第一/ 金庾信 上)

공의 나이 15세에 화랑(花郎)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아주 잘 따랐으며 용화향도(龍華香徒)라고 불렀다.

향도(香徒)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나 용화(龍華)란 먼 후일에 나타난다는 미륵불을 의미하며 향도는 이를 신앙하는 신자 집단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김유신의 화랑도가 미륵신앙을 갖고 수행하여 그런 명칭이 붙었을 것이라는 최근 견해가 있다.(채웅석, 2016) 삼국시대에 시작된 향도(香徒)는 호국 불교적 성격을 갖는 신앙공동체로서 시작하여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공향(供香)에 쓰일 향을 묻는 매향(埋香)의식과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적인 역할을 맡으며 계속 존속하게 된다.(채상식, 2012)

## (6) 향(香) 관련 유물

삼국시대 향의 사용에 대한 자료는 문헌사료 외에 삼국시대 고분 벽화와 향로, 범종의 문양 및 암각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을 사용하기 위한 향로가 그려진 고분벽화로는 고구려 안악3호분 벽화와 쌍영총 고분벽화가 있다. 그 중 안악3호분 벽화는 황해도 안악군 용

순면 유순리에 위치한 고구려시대의 벽화고분으로 357년(고국원왕 27)경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孔錫龜, 2007) 안악3호분의 서쪽 결방 남벽(南壁)에 그려진 묘주(墓主)부인과 3명의 시녀 그림 6 중 오른쪽의 시녀는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향로를 쟁반 위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4세기 경에 이미 고구려 귀족층의 일상생활에 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안악3호분 벽화 중 오른쪽 시녀(左) 및 향로(右)

출처: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안악3호분 외에 향의 사용을 볼 수 있는 고분인 쌍영총(雙楹塚)은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에 위치한 고구려 벽화고분이며, 시대는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한다.(그림 7) 안악3호분과 함께 당시의 의복, 생활, 풍속 등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쌍영총 벽화 중 묘주의 부인으로 보이는 귀부인과 승려, 향을 머리에 인 시종 등의 모습이 보이는 행렬도에 대하여 절에 공양을 드리러 가는 공양행렬도라는 설이 일반적이지만,(전호태, 2013; 이용진, 2010) 부인이 승려 및 세 아들과 함께 등(燈)을 앞세우고 사

망한 남편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위한 불사(佛事), 즉 천도의식(薦度儀式)을 행하는 장면이라는 설도 있다.(김정희, 2013) 당시 향의 사용이 불교의 공양 또는 천도의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림 7. 쌍영총 공양행렬도(左) 및 향로를 이고 있는 시중(右)

출처: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1915

벽화 외에 남아있는 삼국시대 향 관련 유물로는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백제금동대향로(그림 8) 및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그림 9)가 있다.(김지은, 2013) 백제금동대향로는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에서 유행하던 박산향로(博山香爐)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함께 출토된 유물 등으로 추정하여 7세기 경의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이내옥, 2010) 이 시기는 백제 무왕(600~641)과 의자왕(641~660)의 시기로 백제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중국 남조 및 일본 등과 외교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시기로 중국을 통해 향로에 사용하는 향의 재료 또한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진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중국 남조의 宋(송)·齊(제)·梁(양)에서는 박산향로에 백화향(百和香)·울금향(鬱金香)·소합향(蘇合香)·도량향(都梁香) 등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중국

남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백제에서도 이와 같은 향을 백제금동대향로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용진, 2010)



그림 8. 백제금동대향로

출처: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이와 함께 출토지의 다른 유물과 양식적 특징을 참고할 때, 통일신라 시대인 대략 8세기에서 9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사지 금동향로 역시 고려시대 이전 불교의 공양과 함께 향의 사용이 융성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이용진, 2010)



그림 9.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이 밖에 향로는 아니지만 향로가 표현되어있는 유물로는 신라 성덕대왕신종(그림 10)과 합천 청량사(淸涼寺) 석등(石燈)(그림 11), 경주 단석산(斷石山) 마애상(磨崖像)(그림 12)이 있다.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은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으로 8세기 후반인 771년(혜공왕 7년)에 완성되었다. 범종의 표면에 청동향로를 들고 있는 향공양상(香供養像)이 부조되어 있다.(박미선, 2005) 또한 통일신라시대인 8~9세기 경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합천 청량사 석등(보물 제253호)의 하대 하단석에 향로가 양각되어 있어 향로와 불교 문화의 중요 부분임을 짐작할 수 있다.(박경식, 2013) 이밖에 경주 단석산 마애상 역시 신라인들의 향기 사용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김지은, 2013)



그림 10. 성덕대왕신종(左)과 종 표면의 향공양상(香供養像)(右)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그림 11. 합천 청량사 석등(左) 향공양상(香供養像)(右)

출처: 박경식, 2013



그림 12.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北面) 향을 올리는 신라사람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 3) 고려시대의 향기(香氣) 활용

고려시대 향에 관한 자료는 조선초기인 1449년(세종 31년)~1451년(문종 원년)에 편찬된 고려시대 역사서인 《高麗史》와 1452년(문종 2년)에 편찬된 《高麗史節要》 및 그보다 이른 고려 중기인 1123년(인종 1년) 송나라 사절의 한 사람으로 고려에 왔던 서공(徐兢)이 개경에 머무는 동안의 견문을 적은 견문록인 《高麗圖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신라시대와 마찬가지로 불교의식으로서의 분향과 제사에 사용되었고, 사신을 맞이하거나 중국 황제로부터 조서를 받는 등 예의를 갖추기 위해 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왕비나 왕태자, 왕자와 왕녀의 책봉의식 등 의례용으로 다양하게 향을 사용하였다.(권순형, 2013)

#### (1) 행향(行香)

고려시대의 행향(行香)은 주로 불교식 향공양(香供養)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양(供養)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향·꽃·등불·음식·재물 등을 바치는 것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주로 불교를 중심으로 행하여져 왔다.(이경희 등, 2005)

고려시대에 향을 불교의식인 분향에 사용했음은 다음의 《고려사》 기록에서 볼 수 있는데, 국가 건립 초기인 태조(太祖) 26년(943년)에 이미 후세에게 전하는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내리면서 ‘나라의 기강이 불교에 있으므로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住持)를 파견하여 분향(焚香)하고 수도(修道)하는 것이 맡은 바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爰述訓要，以傳諸後，庶幾朝披夕覽，永爲龜鑑。“其一曰，我國家大業，必資諸佛護衛之力，故創禪教寺院，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高麗史 卷二 / 世家 卷

第二 /太祖 26년)

...이에 「훈요(訓要)」를 지어 후세에 전하노니, 바라건대 밤낮으로 펼쳐보아 길이 귀감(龜鑑)으로 삼으라. 첫째, 우리나라의 대업(大業)은 반드시 모든 부처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에 의지하고 있으므로,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사원(寺院)을 창건하고 주지(住持)를 파견하여 분향(焚香)하고 수도(修道)하게 함으로써 각각 자신의 직책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불교가 기본적으로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왕실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분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史》에는 성종(成宗) 즉위년인 981년에 처음으로 행향(行香)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 幸法王寺行香, 還御毬庭, 受群臣朝賀.(高麗史 卷三/ 世家 卷第三/ 成宗 卽位年)  
왕이 법왕사(法王寺)에 가서 분향(焚香)하고 구정(毬庭)으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들의 조정 하례를 받았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번성하여 임금의 행향(行香)하는 경우가 많았다. 《高麗史》에는 왕이 절에 가서 행향한 기록이 68회, 《高麗史節要》에는 16회 있으며, 행향(行香)한 목적은 국가 안위, 선친의 기일(忌日)에 천복(薦福)하기 위함 등 국가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이 섞여 있었다. 특히 광종 2년에 창건된 고려 개경의 봉은사는 사찰임과 동시에 고려의 국조인 태조를 모시는 태조의 원당(願堂)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왕실의 종묘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韓基汶, 2008)

왕이 직접 행향(行香)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임금의 명을 받들고 향을 가지고 가서 분향하던 사신인 행향사(行香使)를 보낸 경우도 있었는데, 행향사(行香使)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충렬왕(忠烈王) 때인 1285년에 처

음 보인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행향사의 임명이 빈번해지며 불교 의식 뿐 아니라 종묘나 능소(陵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경우가 더 많아졌다.

■ 丁丑 王及公主，幸妙蓮寺，設慶讚會，賜行香使洪子藩紅鞵(高麗史 卷三十/ 世家 卷第三十/ 忠烈王 11年)

丁丑일 왕과 공주가 묘련사(妙蓮寺)에 행차하여 경찬회(慶讚會)를 열고, 행향사(行香使) 홍자번(洪子藩)에게 홍정(紅鞵)을 하사하였다.

## (2) 향의(香儀)

사신 등 귀한 손님을 맞을 때에도 향(香)을 이용한 예식은 필수였는데, 《高麗史》 65권에 명나라 조사를 맞이하는 의식에 대한 기록을 보면, 궁전의 윗자리인 전상의 한복판에 향안(香案)을 설치하고 궁정의 전면에 사향관(司香) 두 사람의 자리를 향안의 좌우편에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신을 맞이하는 의식에 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又於國城內街巷結綵於王宮內設闕庭於殿上正中設香案於闕庭之前設司香二人位於香案之左右設詔使立位於香案之東設開讀案於殿陛之東北設王拜位於殿庭中北向設衆官拜位於王拜位之南異位重行北向...(高麗史/ 卷六十五/ 志 卷第十九 / 禮七)

...성내 거리에도 채봉을 매고 궁성 내에는 궁정(闕庭)을 정하고 전상의 한복판에 향안을 설치하고 궁정의 전면에 사향관(司香官) 두 사람의 자리를 향안의 좌우 편에 정하고 조사(詔使)가 설 자리를 향안의 동편에 준비하고 조서를 낭독하는 책상을 전의 섬돌의 동북 편에 두고 왕이 절하는 자리를 전정의 북판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설치하고 백관들이 절하는 자리를 왕이 절하는 자리의 남쪽에 관등 별로 2열을 지어 북쪽으로 향하여 서게 정한다...

또한 지방관이 왕의 조서를 받을 때도 향로를 올려놓는 향탁자(香卓) 앞에

가서 향을 피워 예를 표했다.

■ 外官迎本國詔書儀[迎香儀同].

其日外官備樓子出城外亭子就拜席虛揖再拜進香卓前跪上香退復位再拜揖. (高麗史/ 卷六十八/ 志 卷第二十二/ 禮 十/ 嘉禮 四)

지방관이 국왕의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향을 맞는 의식과 같다]

조서를 맞이하는 날 지방관은 누자(樓子)를 갖추어 성문 밖 정자(亭子)로 나가 절하는 자리에 가서 허읍(虛揖)하고 재배한 후 향탁자(香卓) 앞으로 가서 꿇어앉아 향을 피우고 본 자리로 물러서서 재배하고 읊한다.

또한 《高麗圖經》에도 사신을 맞이하는 가마에 향로가 실려 있었던 점이나 황제의 조서를 받는 의례에도 향을 피워 맞이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중요한 사신을 맞는 공식 의례에도 향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采輿三. 一以奉詔, 又其一以奉御書. 前一輿貯大金香毬...(高麗圖經/ 卷第十五/ 車馬)

...채색 가마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조서를 받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서(御書)를 받드는 것이다. 앞의 또 하나의 수레에는 큰 금으로 만든 향로[大金香毬]를 담아둔다...

■ 拜詔...國王導詔, 入會慶殿, 廷下設香案...(高麗圖經/ 卷第二十五/ 受詔)

조서 받을 때의 의례...국왕이 조서를 인도하여 회경전으로 들어가니 궁정 아래 향안(香案)이 마련되어 있었다...

■ 弔慰...先於廷中, 設香案, 西望天闕...(高麗圖經/ 卷第二十五/ 受詔)

조서를 받는 절차...먼저 궁정 안에다 향안(香案)을 마련하고 서쪽으로 천자의 궁궐[天闕]을 바라보았다...

(3) 장례에 사용된 향(香)

장례에도 향을 사용하였는데, 《高麗史》 제64권에 흉례(凶禮) 중 신하들의 상(喪)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성종(成宗), 목종(穆宗) 대에 신하의 부고를 접하고 내린 부의 물품에 유향(乳香), 전향(栴) 등 향이 포함되어 있다.

■ 成宗六年 三月 內史令崔知夢卒王聞訃震悼賻布千匹米三百石麥二百石茶二百角香二百斤官庀葬事贈太子太傅諡敏休

八年 五月 守侍中崔承老卒王慟悼下教 褒其勳德贈太師賻布千匹麩三百石粳米五百石乳香百斤腦原茶二百角大茶十斤 十四年 四月 平章事崔亮卒王慟悼贈太子太師賻米三百石麥二百石腦原茶千角以禮葬之諡匡彬.

穆宗元年 七月 內史令徐熙卒賻布千匹麩麥三百石米五百石腦原茶二百角大茶十斤栴香三百兩諡章威以禮葬之(高麗史/ 卷六十四 > 志 卷第十八 > 禮六 > 凶禮 > 諸臣喪 )

성종(成宗) 6년 3월에 내사령 최지몽(內史令崔知夢)이 죽으니 왕이 그의 부고를 접하고 몹시 애도하여 베 1000필, 쌀 300석, 보리 200석, 차 200각(角-1각은 녅 되), 향 200근을 부의하고 관비로 장례를 돕게 하고 태자 태부(太子太傅)의 관작을 추증하고 시호(諡)를 민휴(敏休)라고 하였다.

8년 5월에 수시중 최승로(守侍中崔承老)가 죽으니 왕이 매우 애통히 여겨 교서를 내려 그의 공덕을 표창하는 동시에 태사(太師)의 벼슬을 추증하고 베 1000필, 보리 300석, 쌀 500석, 유향(乳香) 100근, 뇌원다(腦原茶-차의 일종) 200각과 대다(大茶) 10근을 부의하였다.

14년 4월에 평장사 최량(平章事崔亮)이 죽으니 왕이 매우 애통히 여겨 그에게 태자 태사(太子太師)의 벼슬을 추증하고 쌀 300석, 보리 200석과 뇌원다 1000각을 부의하고 예로써 장례를 하였으며 시호를 광빈(匡彬)이라고 하였다.

목종(穆宗) 원년 7월에 내사령 서희(徐熙)가 죽으니 베 1000필과 보리 300석, 쌀 500석, 뇌원다 200각, 대다(大茶) 10근과 전향(栴香) 300냥을 부의하고 시호를 장위(章威)라 하고 장례를 하였다.

(4) 그 밖의 생활 속의 향(香)

송나라 사신인 서궁(徐兢)이 집필한 《高麗圖經》에서는 고려시대 귀족과 일반인들의 생활과 풍속에 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사신으로서 고려의 모습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시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당시 고려의 관리들이 중국에서 온 사신과 만나 교류하는 장면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하고 있다. 사신들이 머무는 거처에서 사신들과 고려의 관리들이 모임을 갖고 이 자리를 빌어 송나라에서 가져온 선물을 자랑하고 주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귀한 향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려 사람들이 경탄했다고 하였다.

■ 館會...四筵， 列寶玩古器法書名畫異香奇茗， 瑰瑋萬狀， 精采奪目， 麗人莫不驚歎...(高麗圖經/ 卷第二十六/ 燕禮)

객관의 모임...사방의 좌석에는 귀한 노리개[寶玩]·고기(古器)·글씨첩[法書]·명화(名畫)·보기 드문 향료[異香]·진기한 차[奇茗]를 늘어 놓는데, 뛰어나게 귀한 것들이만 가지로 보이고 정교하고 이채로운 것이 눈길을 끄는데 고려 사람들이 모두 경탄해 마지않았다...

한편 사신들이 묵었던 관사에 구비되어 있는 여러 도구 중 화장그릇 또는 향그릇을 의미하는 향렴(香奩)이 있었다는 것은 향이 몸치장의 목적인 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 ...室中器皿如香奩·酒榼·唾盂·食匱， 悉以白金。 貯水之具， 皆用銅， 物物悉備...(高麗圖經/ 卷第二十七/ 館舍)

...향렴[香奩]·술통[酒榼]·타구[唾盂]·식기[食匱] 같은 방 안 용기들은 모두 은[白金]으로 만든다. 물을 담는 용기는 전부 구리로 만들며,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다...

高麗圖經에는 고려의 귀부인에 대한 묘사도 보이는데, 비단으로 만든 향낭(香囊)을 차고 다니며 향낭의 수가 부귀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만큼 고려시대 귀족들 사이에 향의 소지와 활용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貴婦...佩錦香囊, 以多爲貴富家...(高麗圖經/ 卷第二十/ 婦人)

귀부인...비단으로 만든 향주머니를 차는데 (향주머니가) 많을수록 부귀한 집안으로 여긴다...

또한 고려인들이 생활 속에서 향을 사용한 예로는 향침(香枕)에 대한 소개가 있으며, 고려에서 사용하는 생활용기의 소개 중에 향로(香爐)에 관하여 짐승 모양의 향로인 수로(獸爐), 연꽃을 닮은 박산(博山) 모양의 박산로(博山爐), 청자로 만들어진 도로(陶爐) 등 다양한 향로를 소개하고 있음은 고려시대에 있어 향의 사용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繡枕...繡枕之形, 白紵爲囊, 中實以香草, 兩頭蹙金盤綫, 花文極巧. 復以絳羅裝飾, 如蓮荷之狀. 三節供給, 其制一等. (高麗圖經/ 卷第二十九/ 供張二)

수놓은 베개[繡枕]...수놓은 베개는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에 향초(香草)를 채우고, 양쪽 끝은 금실로 수놓은 무늬[蹙金]를 실로 빙 둘렀는데, 꽃무늬가 매우 정교하다. 또 진홍색 비단[絳羅]으로 장식한 것은 연꽃 모양과 같았다. 삼절(三節)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모양이 같다.

■ 獸爐...子母獸爐, 以銀爲之, 刻鏤制度精巧. 大獸蹲踞, 小獸作搏攫之形, 返視張口, 用以出香. 惟會慶乾德公會, 則置于兩楹之間. 迎詔焚麝香, 公會, 則蒸篤耨龍腦旃檀沈水之屬, 皆御府所賜香也. 每隻, 用銀三十斤, 獸形連坐, 高四尺, 闊二尺二寸.(高麗圖經/ 卷第三十 器皿一)

짐승 모양의 향로[獸爐]...어미와 자식이 함께 있는 짐승 모양의 향로[子母獸爐]는 은(銀)으로 만드는데 새기는 법식[刻鏤制度]은 정교하다. 큰 짐승은 웅크리고 앉아있고 작은 짐승은 매달려 있는[搏攫] 모양인데, 뒤를 돌아보면서 입

을 벌린 채로 향(香)을 뿜어낸다. 오직 회경전(會慶殿)과 건덕전(乾德殿)에서 공식 회합이 있을 때면 양 기둥 사이에 놓아둔다. 조서를 맞이할 때는 사향(麝香)을 피우고, 〈그 밖에 다른〉 공식 회합일 때는 독누(篤耨)·용뇌(龍腦)·전단(旃檀)·침수(沈水) 등을 피우는데, 이것은 모두 송나라 조정[御府]에서 하사한 향물이다. 〈향로〉 한 척(隻)마다 은(銀) 30근(斤)을 사용해 〈만들었는데〉, 짐승 모양의 향로[獸形]는 받침과 연결되어 있고, 높이가 4자[尺]이고 너비[闊]는 2자 2치[寸]이다.

- **博山爐**...博山爐本漢器也。海中有山，名博山，形如蓮花，故香爐取象。下有一盆，作山海波濤魚龍出沒之狀，以備貯湯薰衣之用。蓋欲其濕氣相箸煙不散耳。今麗人所作，其上頂雖象形，而下爲三足，殊失元制，但工巧可取。(高麗圖經/ 卷第三十 器皿一)

박산로(博山爐)...박산로는 원래 〈중국〉 한(漢)의 물품이다. 바다 한 가운데 박산(博山)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는데, 모양이 연꽃과 같아 모습을 따서 향로를 만들었다. 아래쪽에는 산과 바다에 파도가 넘실대고[山海波濤] 물고기와 용이 출몰하는[魚龍出沒] 모습을 만들어 장식한 동이[盆]를 두어, 뜨거운 물을 담아 옷에 향기를 쫓 때 사용할 것[貯湯薰衣之用]을 대비한다. 대체로 습기(濕氣)를 한데 모아[相箸] 연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현재 고려인들이 만든 박산로는 윗부분의 꼭대기는 〈산 모양의〉 형태를 본받았지만, 아랫부분은 다리 세 개[三足]가 달려있어,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지만 정교한 제작기법은 본받을 만하다.

- **陶爐**...狻猊出香，亦翡色也。上爲蹲獸，下有仰蓮以承之。諸器，惟此物最精絕。其餘，則越州古秘色，汝州新窯器，大槩相類。(高麗圖經/ 卷第三十二 器皿三)

도기 향로[陶爐]...산예출향(狻猊出香)도 비색(翡色)이다.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 무늬[仰蓮]가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그 나머지는 월주요[越州]의

옛날 비색[古秘色]이나 여주요[汝州]에서 요즘 생산되는 도자기[新窯器]와 대체로 유사하다.

한편 고려 말인 충숙왕 때, 왕의 목욕습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성격이 깔끔하여 목욕물에 넣는 향료(香料)의 양이 한 달에 10여 동이나 되었다고 하여 향을 넣은 목욕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己卯)後八年 春三月 癸未 王薨于寢，在位前後二十五年，壽四十六。性嚴毅沈重聰明，善屢文，工隸書。又性好潔，一月湯浴之費，**諸香十餘盆**，苧布不下六十餘匹，名曰手巾。多爲內豎所竊，王不之知...(高麗史/ 卷35/ 世家 卷第35/ 忠肅王(後) 8年/ 3月)

〈기묘〉 후 8년(1339) 봄 3월 계미 왕이 침전에서 홍서하였다. 재위 기간은 전·후(前後) 〈합하여〉 25년이고 나이는 46세였다. 성품은 엄숙하고 위의를 있으면서도 침착하고 총명하였으며, 글을 잘 짓고 예서(隸書)에 능했다. 또 성격이 깔끔한 것을 좋아해서 한 달 목욕 비용은 향(香) 10여 동, 저포(苧布) 60여 필이나 되었는데, 이름 하여 수건(手巾)이라고 하였다. 내수(內豎)들이 많이 훔쳐갔지만 왕은 몰랐다...

#### (5) 향약(香藥)의 거래

향약(香藥)은 향기가 나는 약재란 뜻으로 대부분의 향료가 약용으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이다. 고려시대에도 불교의 융성과 함께 불교의식 뿐 아니라 실내의 발향과 향장, 미용 등의 목적을 위해 왕실 및 귀족들 사이에 다량의 향이 요구되었으며, 일부는 조공무역의 형식으로 일부는 송나라의 무역상인 송상의 활약으로 일부는 중국이 아닌 아랍 쪽의 직접 무역을 통해 다양하게 수입되었다.

《高麗史節要》 현종(顯宗) 10년인 1019년 7월에 ‘송나라 복주의 우선(虞

瑄) 등 100여 인이 향약(香藥)을 바치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 宋福州虞瑄等百餘人來，獻香藥。(高麗史節要 卷3/ 顯宗元文大王/ 顯宗 十年 )  
송(宋) 복주(福州) 사람인 우선(虞瑄) 등 100여 인이 와서 향기나는 약재를 헌상하였다.

고려와 송나라와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 외에도 송의 상인들이 고려에 내항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교역을 담당하였으며, 개경에는 송상(宋商)을 위한 숙소로 현종(顯宗)대 영빈(迎賓), 회선관(會仙館), 문종(文宗)대 오빈관(娛賓館), 청하관(清河館), 숙종(肅宗)대 동서관(東西館), 인종(仁宗)대 청주(淸州), 충주(忠州), 사점(四店), 이빈관(利賓館) 등이 있을 만큼 송과의 교역이 활발하였다.(김영제, 2009)

송나라 상인 뿐 아니라 아라비아의 상인도 직접 고려를 방문해 향료를 포함한 무역을 하였다. 《高麗史》에는 ‘정종(靖宗) 6년(1040년) 음력 11월 병인(丙寅)일에 대식국(大食國)의 객상(客商) 보나합(保那盍) 등이 와서 수은(水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 등의 물품을 바쳤다. 유사(有司)에게 명하기를 객관(客館)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였고, 돌아갈 때에는 황금과 명주[金帛]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十一月 丙寅 大食國客商保那盍等來，獻水銀·龍齒·占城香·沒藥·大蘇木等物。命有司，館待優厚，及還，厚賜金帛(高麗史/ 世家 卷第六/靖宗 6年)  
11월 병인 대식국(大食國)의 객상(客商) 보나합(保那盍) 등이 와서 수은(水銀), 용치(龍齒), 점성향(占城香), 몰약(沒藥), 대소목(大蘇木) 등의 물품을 바쳤다. 유사(有司)에게 명하기를 객관(客館)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였고, 돌아갈 때에는 황금과 명주[金帛]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6) 향도(香徒)

7세기 경 처음 명칭을 보였던 향도(香徒)는 고려시대에서 더욱 많이 등장한다. 《삼국유사》에 고려 초인 982년(고려 성종 1년) 기록을 통해 당시 향도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여기서의 향도는 화랑도의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사(佛事)를 돕고 향공양에 쓸 향나무를 채취하기 위해 모인 무리를 말한다.

■ ...時玄風信士二十餘人歲結社，拾香木納寺．每入山採香劈析淘洗攤置箔上，其木至夜放光如燭．由是郡人項施其香徒以得光之歲爲賀...(三國遺事/ 卷 第五/ 避隱第八/ 包山二聖)

...이 때 그윽한 기질의 신의있는 남자 2십여 명이 해마다 결사(結社)하고, 향나무를 주워 절에 바쳤다. 매년 산에 들어가 향을 채취하여 쪼개고 씻어 발 위에 펼쳐 놓으니, 그 나무가 밤에 이르면 빛을 내어 촛불과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고을 사람들이 향도(香徒)에게 크게 시주하고, ‘빛을 얻은 해’라고 경축하니...

고려 초기의 향도(香徒)들은 위와 같이 불교신앙에 입각한 공동체였으나沉香(沉香)을 만들기 위한 의식인 매향활동(埋香活動)을 주축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방 향촌사회의 공동체로서의 모임의 성격을 갖게 되며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蔡雄錫, 2002)

(7) 향(香) 관련 유물

고려시대 향과 관련된 유물은 향로(香爐), 향완(香碗), 향유병(香油瓶) 등이 있다. 향로는 형태는 손잡이가 있는 병향로(柄香爐)의 모습과 그릇모양의 향완(香碗)이 있으며, 재질에 따라 토제(土製), 청동제(靑銅製), 도제(陶製) 등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청동 병향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

강(太康) 3년명(年銘) 청동연지형병향로(靑銅蓮枝形柄香爐)이다.(그림 13) 이 향로는 받침과 노신(爐身)은 남아있고, 손잡이는 대부분 결실되었다. 손잡이를 이루는 연꽃 줄기에서 세 갈래의 가지가 나와 그 중 가장 위쪽 가지는 연화형의 노신이 되고, 아래가지는 연잎 모양의 받침이 되었고, 중간 가지는 무엇인가를 연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청동연지형병향로의 받침에는 음각으로 ‘대강삼년(大康三年)’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1077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www.museum.go.kr)



그림 13, 청동 연지형 병향로(靑銅 蓮枝型 柄香爐)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

또한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경에 만들어진 청자향로인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는 높이 21.2cm, 지름 16.3cm으로 향을 피우는 부분인 몸체와 사자 모양의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4)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뛰어나 대한민국 국보 제60호로 지정되어 있다.(www.museum.go.kr)



그림 14.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고려시대의 향로 중에서 크기가 크고 형태가 특이한 것 중의 한 예에 속하는 봉업사명청동향로(奉業寺銘靑銅香爐)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봉업사지(奉業寺址)에서 출토되었으며, 높이 87cm로 보물 제1414호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15) 이 청동향로의 형태는 노신(爐身)·노대(爐臺)·뚜껑의 세 부분을 각기 별도로 제작하여 조립하였다.(encykorea.aks.ac.kr)



그림 15. 봉업사명청동향로(奉業寺銘靑銅香爐)

출처: 문화재청([www.cha.go.kr](http://www.cha.go.kr))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表忠寺)에 있는 고려시대의 향로인 표충사(表忠寺) 청동은입사향완(靑銅銀入絲香垸)은 높이 27.5cm. 입지름 26.1cm이며 국보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16) 넓은 전이 달린 완형(碗形)의 몸체와 나팔형의 받침을 갖춘 고배형(高杯形) 청동 향로로 향로의 기면에 문양을 새기고 문향의 흠 속에 은사(銀絲)를 매워 넣어 장식하는 은입사향완은 고려시대에 상당히 많이 제작되었으며, 넓은 전의 뒷면에는 57자의 은입사 명문이 있는데, 명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1177년(명종 7)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 유존하는 향완으로서는 최고(最古)의 예로서 편년자료의 구실을 하는 향완이다.(encykorea.aks.ac.kr)



그림 16.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 (表忠寺 靑銅 銀入絲 香垸)

출처: 문화재청(www.cha.go.kr)

이 밖에도 화장용 담는 작은 기름병들이 존재했으며, 일반 기름병보다 더 작아 귀족층에서 향유를 보관하는 용도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작은 청자유병도 다수 있다.(전완길, 1999) 다음은 고려시대 청자향유병(靑磁香油瓶)과 여러 가지 향유병이다.(그림 17)



그림 17. 고려시대 청자향유병(左)과 여러 가지 향유병(右)

출처: 전완길, 1999

#### 4) 조선시대의 향기(香氣) 활용

조선시대는 이전의 시대에 비해 사료(史料)의 양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방향식물(芳香植物)의 분야별 사용에 관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경희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향문화(香文化)를 왕실의례, 불교문화, 선비문화, 의료문화의 용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이와는 별도로 복식에 좋은 향이 나게 하기 위한 의류용 방향문화로 훈의(薰衣)와 향(香) 패식(佩飾)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다.(이경희, 2011) 조선시대 향기 활용은 이전 시대부터 계속 행하여진 것도 있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도 보이는데, 그 내용을 사료(史料)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행향(行香)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 이어 불교의식 및 제례 등에 향을 이용하였으며, 왕이 직접 행향(行香)을 하는 경우도 보인다. 그러나 불교국가였던 고려시대의 행향(行香)이 대부분 불교식 향공양(香供養) 의식이었던 데 반하여 조선시대에는 불교의식 외에도, 선조의 기제, 별에게 제사를 드리는 醮祭, 기우제, 기타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각처에 기도하는 경우에도 행향(行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왕이 직접 행향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선시대에는 왕을 대신하여 행향을 하였던 행향사(行香使)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행향에 대한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에 총 69건이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태조(太祖)대에 2건, 태종대(太宗)에 13건, 세종(世宗)대에 19건, 세조(世祖)대에 2건, 예종(睿宗)대에 4건, 성종(成宗)대에 26건, 연산군(燕山君)대에 3건이 보인다.

아래의 기록은 태조(太祖)가 사찰에 가서 천체(天體)의 변고로 인한 재

양을 막고자 불교식 도량을 열고 향공양(香供養)을 드렸다는 내용이다..

- 辛丑/以星變屢見，集僧徒於時坐所，設消災道場，上與中宮，禮佛行香(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太祖 2年 10月 29日)

별의 변괴(變怪)가 자주 나타난 이유로 중들을 시좌소(時坐所)에 모아서 재앙을 소멸시키는 도량(道場)을 베풀게 하고는, 임금의 중궁(中宮)과 더불어 예불행향(禮佛行香)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는 불교식 향공향 외에도 각종 목적을 가진 행향(行香)의 기록이 보인다.

세종 11년인 1429년 비가 오지 않자 기우제(祈雨祭)를 위한 행향(行香)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기록이 있다.

- 賜祈雨行香使李藁馬一匹，祈雨兒童及別監米有差，以得雨也(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45券/ 世宗 11年 7月 6日)

기우제(祈雨祭)의 행향사(行香使) 이진(李藁)에게 말 1필을 하사하고, 비를 빈 아이들과 별감(別監)에게는 차등(差等)이 있게 쌀을 하사하였으니,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

기우제는 사찰이나 관리 뿐 아니라 무녀가 주관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록이 성종 5년인 1474년에 보인다.

- 賜巫女祈雨行香別監咸繼童鹿皮一張(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44券，成宗 5年 閏6月 30日)

무녀기우(巫女祈雨)의 행향 별감(行香別監) 함계동(咸繼童)에게 녹피(鹿皮) 1장을 내려 주었다

또한 조상의 묘에 참배할 때에도 행향사(行香使)를 파견해 행향(行香)을 하였는데, 세종(世宗) 30년인 1448년 먼저 승하한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능(陵)인 영릉(英陵)과 태종(太宗)의 능인 헌릉(獻陵)에 참배하고 행향(行香)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傳旨議政府: "昭憲王后大祥後, 東宮祭英陵, 當祭獻陵。 前此英陵行香使不拜獻陵, 大君諸君往英陵, 則拜獻陵乎否?" 政府啓: "臣等過陵必拜, 行香使過而不拜, 甚不可也。" 遂命禮曹, 令獻、英二陵行香使執事, 互相拜陵 (朝鮮王朝實錄 / 世宗實錄 119券 / 世宗 30年 3月 17日)

의정부에서 전지하기를, "소헌 왕후(昭憲王后)의 대상(大祥) 후에는 동궁(東宮)이 영릉(英陵)에 제사할 적에 마땅히 헌릉(獻陵)에도 제사해야 할 터인데, 이 앞서 영릉의 행향사(行香使)가 헌릉에 절하지 아니하였으니, 대군(大君)과 여러 군(君)이 영릉에 갈 적에 헌릉에 참배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니, 정부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능(陵)을 지날 적에는 반드시 절했는데, 행향사(行香使)가 지나가면서 절하지 않는 것은 심히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므로, 드디어 예조에 명하여 헌릉과 영릉 두 능의 행향사(行香使)와 집사(執事)로 하여금 서로 능(陵)에 절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전국의 이름난 산과 내, 신사와 사찰에 기도하면서 행향(行香)을 하여 그 범위가 모든 종교와 무속 등 토속신앙까지 포함하는 등 넓었음을 알 수 있다.

■ ...分遣諸臣, 遍禱于諸道名山大川神祠佛宇. 兼判通禮門事鄭而漢爲紺岳行香使, 還啓: "國家只祭岳神, 而不祀堂下雜神, 固爲不可, 請并祠之。" 從之..(朝鮮王朝實錄 / 世宗實錄 126券 / 世宗 31年 11月 5日)

...여러 신하를 나누어 보내 두루 제도(諸道)의 명산·대천과 신사·불우에 기도하게 하였다. 겸판통례문사(兼判通禮門事) 정이한(鄭而漢)이 감악(紺嶽)의 향사(行香使)가 되었다가 돌아와 아뢰기를, "국가에서 악신(嶽神)에게만 제사하고 당하(堂下)의 잡신(雜神)에게 제사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불가하오니, 아울러 제사하기를 청하옵니다."하매, 그대로 따랐다...

## (2) 왕실(王室)에서의 향(香)의 사용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통과례인 혼례의식, 책봉의식, 관례의식 등을 행할 때, 왕이 어좌(御座)에 오르면 향로의 향이 피어오르도록 하여 왕의 등장에 대한 신성성을 연출하기도 하였다.(이경희, 2011) 고대 서양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향을 사용했던 흔적이 관찰되며, 이집트에서도 파라오가 등장할 때 향료를 태워 장엄함과 권위를 부각시켰던 것과 흡사하다.(한상길, 2004)

세종실록에는 왕실의 흉례(凶禮)인 상례(喪禮)가 진행되는 과정 중 왕족의 시신을 목욕시킬 때 내의원에서 준비한 향탕(香湯)으로 몸을 씻기는 법에 대한 기록이 있다. 향탕(香湯)은 단향(檀香)으로 끓인다고 되어 있으며, 부패하기 쉬운 시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막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內侍盥水，遷大行于牀，南首，覆以衾，【衾用複，若內喪，則女官爲之。】施屏。將沐浴，工曹供新盆槃鐺等哭。尙衣院供明衣【白綃單衣，若內喪則具衣裳。】及巾櫛。【方巾一，用白綃方一尺八寸。沐巾一浴巾二，皆用白綃。櫛用竹木。梳各一。】內侍以梁米潘及湯，【潘淅米汁，湯煮檀香水。】各盛于盆，竝槃鐺。將入，【若內喪，則女官爲之。】內侍扶引王世子出帷外，在東北向。大君以下從出，北向西上，俱異位重行立哭。沐者【內侍爲之，若內喪，則女官爲之。】以潘，既沐而櫛拭以巾，束髮...(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 134券/ 五禮/ 凶禮儀式/ 沐浴)

...내시가 물에 세수하고, 대행왕(大行王)을 평상(平牀) 위에 옮겨서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이불로써 이를 덮는다. 【이불은 겹이불을 사용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여관(女官)이 이 일을 한다.】 병풍을 치고 목욕을 시키는데, 공조(工曹)에서 새로 만든 분(盆)·반(槃)·선(鑊) 등의 기물(器物)을 바치고, 상의원(尙衣院)에서는 명의(明衣)와 【흰 생초(生綃)의 홉옷이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의(衣)와 상(裳)을 갖춘다.】 수건[巾]·빗[櫛]을 바친다. ·목소(木梳)를 각각 1개씩 사용한다.】 내시가 기장 뜨물[梁潘]·쌀 뜨물[米潘]·탕(湯)을 【뜨물[潘]은 쌀을 씻은 즙(汁)이요, 탕은 단향(檀香)을 달인 물이다.】 각각 분(盆)과 반(槃)·선(鑊)에 담는다. 장차 드리려 할 때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여관(女官)이 이 일을 한다.】 내시가 왕세자를 부축 인도하여 휘장 밖으로 나와서 동쪽에서 북향하게 한다. 대군(大君) 이하의 왕자들은 따라 나와서 북향하되 서쪽을 상(上)으로 하고, 모두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서 곡을 한다. <윗몸을> 목욕시키는 사람은 【내시가 이 일을 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라면 여관(女官)이 이 일을 한다.】 뜨물로써 머리를 씻기고 빗질해서 수건으로 모발(毛髮)을 싸뭍는다...

또한 선조(先祖)의 신주(神主)를 봉안하거나 제례에 사용할 때에도 향탕(香湯)을 사용해서 씻음으로써, 향이 베게 하였다.(이경희, 2011)

국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도 향을 사용했던 기록이 보이며, 조선시대 국왕 및 왕세자의 혼례의식 절차를 적은 책인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와 궁중의 각종 행사 장면을 그린 의궤도(儀軌圖) 중 행차의 반열을 묘사한 반차도(班次圖)를 보면 향을 담당하였던 관리와 시녀의 모습이 표시되어 있다.(그림 18) 현존하는 조선 후기 가례도감의궤와 반차도 중 향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효종 2년(1627)에 있었던 현종명성왕후가례도감의궤(顯宗明聖王后嘉禮都監儀軌)이며, 여기에 향이 담긴 통을 짚어진 향통배(香桶陪)와 함께, 왕자빈의 가마 앞에 향을 든 시녀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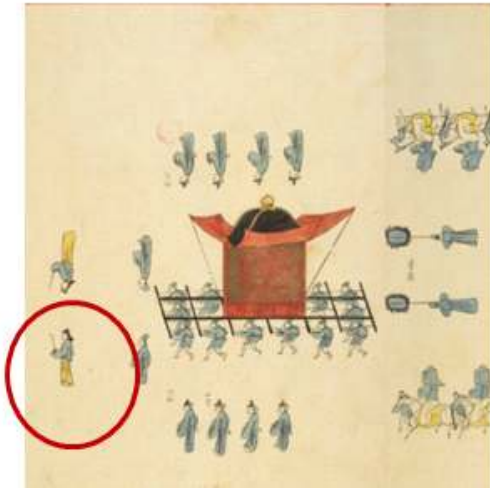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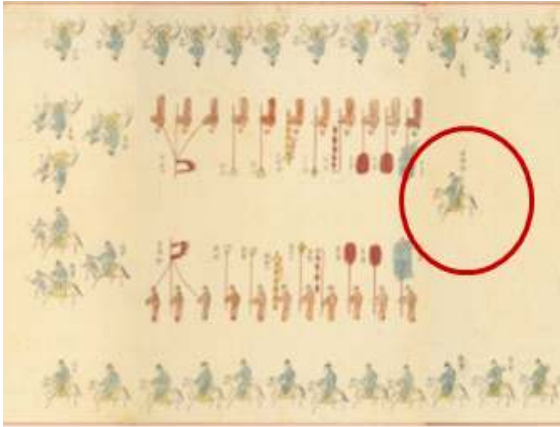


그림 18. 의궤(儀軌) 반차도(班次圖) 중 향통배와 향을 든 시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 (3) 향(香)과 관련된 관청과 직책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인 의례에 자주 향(香)을 사용하다보니, 향을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관청과 직책이 있었다.

먼저 국가적 의례와 제사 등에 사용되는 향재(香材)를 관리하고 보관하며 향(香)을 만드는 일을 맡았던 관청으로 교서관(校書館) 소속의 향실(香室)이 있었다. 각 궁마다 향실이 있었으며, 창덕궁의 경우에는 인정전 서쪽에 있었다. 내시별감(內侍別監) 1인과 교서관(校書館) 참외관(參外官) 1인이 향축(香祝)을 담당하였다. 내시의 경우는 문리(文理)에 밝은 사람 6인을 향실별감(香室別監)으로 삼아서 교체, 임명하도록 하였고, 교서관 참외관은 돌아가면서 숙직하도록 하였다.(encykorea.aks.ac.kr)

또한 왕을 대신하여 행향(行香)하기 위해 파견하던 행향사(行香使)와 중국에 황제의 등극 또는 국상 등이 났을 때 제문(祭文)과 제폐(祭幣)를 가지고 가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였던 진향사(進香使)가 있었으며, 직접적인 관직명으로는 각종 제사와 의례에 향을 피우는 직책을 맡은 행향별감(行香別監)과 각 지방에 중앙에서 내린 향(香)을 전하는 전향별감(傳香別監)이 있었다.

진향사(進香使)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태조 7년인 1398년 명나라 황제의 등극을 하례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사형(金士衡)과 하운(河崙)을 중국에 보내는 기록에 처음 등장한 이후 총 203번의 기록이 나온다.

■ 上坐報平廳，餞賀登極使右政丞金士衡、陳慰進香使政堂河崙，夜半乃罷。引士衡入寢殿賜酒，又賜毛衣毛冠。(朝鮮王朝實錄/ 太祖實錄 15卷，太祖 7年 12月 28日)

임금이 보평청(報平廳)에 앉아서 황제의 등극(登極)을 하례(賀禮)하는 사신인 우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진위 **진향사**인 정당 문학(政堂文學) 하운(河崙)을

전송(錢送)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끝났다. 김사형을 불러 침전(寢殿)에 들어오게 하고서 술을 내리고, 또 모의(毛衣)와 모관(毛冠)을 내리었다.

《朝鮮王朝實錄》 성종 18년 기록에 ‘지방으로 보낼 전향별감(傳香別監)과 행향별감(行香別監)을 공신들의 자손으로 구성된 군대조직인 충찬위(忠贊衛)와 충의위(忠義衛)의 일원 중에서 의례적으로 뽑아왔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으니 공정하게 추천제에 의해 최소 3인을 추천하여 그 중 간택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다.

■ 傳于兵曹曰: "諸道傳香、行香別監, 等例以忠贊衛, 忠義衛差遣。 或本系卑賤, 或不識事理者, 各以所欲, 因緣求請, 殊失使命體貌。 且貽弊於所經諸邑, 而觀察使皆尊待之, 不得檢覈, 大體未便。 今後揀擇擬望。(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210券, 成宗 18年 12月 13日)

여러 도(道)의 전향 별감(傳香別監)·행향 별감(行香別監) 등은 으레 충찬위(忠贊衛)와 충의위(忠義衛)로써 하는데, 충찬위·추의위를 보내게 되면 간혹 본계(本系)가 비천(卑賤)하거나 사리(事理)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각기 하고자 하는 바를 연줄로 청구하므로 사명(使命)의 체모(體貌)를 전혀 잃게 되고, 또한 지나가는 여러 고을에 폐를 끼치게 된다. 그런데도 관찰사(觀察使)가 모두 높여서 대우하고 조사하지 않으니, 대체(大體)에 옳지 못하다. 금후로는 간택(揀擇)하여 의망(擬望)하도록 하라." 하였다.

다음 표 7은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향 관련 관청 및 관직의 이름과 임무 및 실록에 언급된 횟수를 기재한 것이다.

표 7. 조선왕조실록의 향(香) 관련 관청 및 직책명

관청 또는 직책명	내용	문헌(기록횟수)
향실 (香室)	국가적 의례와 제사 등에 사용되는 향재를 관리하고 보관하며 향을 만드는 일을 맡음	태종실록(2), 세종실록(7), 단종실록(2), 세조실록(2), 성종실록(4), 연산군일기(4), 중종실록(20), 명종실록(2), 선조실록(5), 광해군중초본(9), 광해군정초본(7), 인조실록(6), 효종실록(1), 현종실록(3), 숙종실록(8), 영조실록(12), 정조실록(14), 순조실록(4), 철종실록(3), 고종실록(8)
행향사 (行香使)	고려 및 조선 시대에 임금의 명을 받들고 종묘나 능소(陵所) 또는 각종 제례에 향을 가지고 가서 분향하던 사신	태조실록(1), 태종실록(9), 세종실록(19), 세조실록(2), 예종실록(4), 성종실록(23), 연산군일기(2)
진향사 (進香使)	중국에 황제의 등극 또는 국상 등이 났을 때 제문(祭文)과 제폐(祭幣)를 가지고 가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임시로 파견하였던 비정규 사절 또는 그 사신	태조실록(1), 정종실록(3), 태종실록(2), 세종실록(14), 예종실록(2), 성종실록(4), 중종실록(34), 명종실록(2), 선조실록(4), 광해군중초본(19), 광해군정초본(15), 인조실록(12), 효종실록(3), 현종실록(4), 숙종실록(8), 경종실록(3), 영조실록(4), 정조실록(3), 순조실록(3), 현종실록(2), 철종실록(8), 고종실록(4)
행향별감 (行香別監)	행향사의 실질적인 관직명이며 향을 받아 의식을 진행하는 직책을 맡음	성종실록(2)
전향별감 (傳香別監)	국가에서 각 지방으로 제례나 각종 의식에 사용할 향을 전하는 직책을 맡음	세종실록(1), 단종실록(1), 성종실록(4), 연산군일기(1), 중종실록(1)

#### (4) 향약(香藥)의 국산화(國產化)

조선시대 향(香)사용 기반에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은 조선 초기 약재(藥材)의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인 세종(世宗)대에 각종 약재를 정리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중 하나는 전국 각 지방의 상황을 기록하고 토산품을 기록하였던 지리지(地理志)의 편찬이었고 다른 하나는 토산 약재인 향약(鄉藥)에 대한 이해와 보급을 위해 《鄉藥採取月令》과 《鄉藥集成方》의 향약본초(鄉藥本草)를 차례로 편찬한 것이다.(이경록, 2010) 국가는 지리지의 편찬을 통해 전국의 약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약재의 생산지역을 확장하면서 수입 약재의 토산화(土產化)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련 등의 연구에서는 향약(香藥) 중 고려시대까지는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이 시기에 국내에서 재배되거나 토산화된 것으로 보이는 약재에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零陵香), 곽향(藿香), 회향(茴香), 백교향(白膠香), 청목향(靑木香), 모향(茅香)이 있다고 하였다.(이에련 등, 2012)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되었다고 하는 향약(香藥)들이 모두 수입된 향약(香藥)과 같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의미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는 외국에서 가져온 종자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지만,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등을 아열대 기후인 원산지에서 자라는 식물 종이 아닌 비슷한 효능이 있는 다른 식물을 사용하여 수입향약을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련 등의 연구에서는 자단향(紫檀香)과 백단향(白檀香)의 경우 세종실록 지리지에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 주로 중,남부 지역의 토산약재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원래 동남아 지역에서 자라는 단향목(檀香木)이 자라기에 우리나라의 기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에 이미 토산화가 되었으리라고 유추하고 있다. 그러나 자단향(紫檀香) 및 백단향(白檀香)을 생산하는 단향목(檀香木)은 단향과에 속하는 샌달우드(*Santalum*

album)이며, 높이가 9m 정도의 상록교목으로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아열대성 지역이 원산지이다.(Battaglia, 2004) 이 수종(樹種)은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겨울을 지낼 수 없는 종류이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은 우리나라에 자라는 토산 목본(木本)류 중 향(香)이 있는 측백나무과 상록교목인 향나무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제왕운기의 건국신화에서 나왔던 단수(檀樹) 역시 우리나라의 생태 및 기후를 고려할 때 향나무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향나무의 목부를 향목(香木), 백단(白檀), 백전(白梅)이라고 하고 심재를 자단향(紫檀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장준근, 2009)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안식향(安息香) 역시 원래는 동남아시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원산지인 매죽나무과인 안식향나무(*Styrax benzoin*)의 수지(樹脂)에서 생산된다. 이 수종(樹種)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재배 또는 자생이 어려운 수종이다. 《海東農書》에는 ‘붉나무는 즉 염부자(鹽膚子)이다. 잎 위에 벌레가 뭉쳐있는데 오배자(五倍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 나무는 세간에서 천금목(千金木)이라고 불린다. 그 수지(樹脂)로 안식향(安息香)을 만들고, 그 액즙으로 황칠(黃漆)을 만드는데 황칠을 한 물건은 황금처럼 보인다. 탐라(耽羅: 제주)에서 생산되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든지 생산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호수, 2008) 또한 《增補山林經濟》에 붉나무에 대하여 ‘공터에 많이 심어서 지팡이를 만든다. 소갈증(消渴症: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 외양간을 안고 심으면 역병을 예방한다. 그 과실은 약에 많이 들어가고, 그 즙은 황칠(黃漆)을 만들며, 그 기름으로 안식향(安息香)을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유중립, 2004) 여기서 붉나무의 향기성분인 정유로는 안식향(安息香)을, 즙으로는 황칠(黃漆)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 황칠(黃漆)의 뜻은 황금색 옷칠이란 뜻으로 목재 등의 도료로 쓰였던 것 같다. 그런데 황칠나무라고 부르는 나무가 따로 있어 안식향을 만드는 재료가 황칠나무라고 오인되는 경우

도 있다.(한중수, 2010) 그러나 붉나무는 윗나무과의 *Rhus javanica* L.이고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의 *Dendropanax trifidus* 또는 *Dendropanax morbilifera*이므로 엄연히 다르다. 고문헌에 사용 용도가 비슷하거나 이름이 비슷하여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식향이 수입되었던 안식향과는 다른 종류의 수목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대체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에 이르러 치료용 약재로 사용되었던 비싼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토산화(土産化)시킴으로써 조선전기 의료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후 다양한 계층에서 치료와 생활 속에 방향식물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국가에서 향약(香藥)을 이용한 전염병 치료를 함

조선 전기 비싼 수입 약재의 국산화 노력이 있었지만 일반서민에게는 여전히 재배하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토착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지식이 더욱 필요했을 것이다. 세종(世宗) 16년인 1434년 일반 서민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유행성 전염병의 치료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방향식물을 이용한 치료법을 처방문(處方文)으로 써서 전국에 알리도록 하였다. 이 처방문 중에 복용법 외에도 복숭아 나뭇잎이나 측백잎 등을 이용해도 목욕하는 방법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성분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Battaglia S, 2004) 간편하고 유용한 향기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傳旨禮曹: "外方疾疫救療之法, 備載《六典》, 然而守令, 非惟不用心救療, 救療之方, 未能盡知。 因此多有札瘥之人, 誠爲可恤。 廣抄醫方以下之, 使中外家家無不

周知，盡心救療，不至死亡，以副予矜恤之意。”其方曰聖惠方，時氣熱毒，令不相染方...又時氣瘴疫浴湯方，桃枝葉十兩、白芷三兩、柏葉五兩，搗篩爲散，每取三兩，煎湯浴之，極良。又方，時行疫癘，常以月望日，細剉東引桃(杖) [枝]，煮湯浴之...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 64券，世宗 16年 6月 5日)

예조에 전지하기를: ...“외방(外方)의 질역(疾疫) 을 구료(救療)하는 법은 갖추 《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나, 그러나 수령이 구료에 마음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구료하는 방법을 아직 다 알지 못하여, 이 때문에 요사[札瘥]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널리 의방(醫方)을 초(抄)하여 내려 보내서 경중(京中)과 외방의 집집마다 주지(周知)시키도록 하여, 정성을 다하여 구료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니, 나의 긍휼(矜恤)하는 뜻에 맞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그 방문(方文)에 이르기를...시기장역욕탕방(時氣瘴疫浴湯方)은, 복숭아나무 지엽[桃枝葉] 10냥, 백지(白芷) 3냥, 백엽(柏葉) 5냥을 골고루 찧고 체[篩]로 쳐 내어 산(散)을 만들고는, 매양 3냥을 가져다가 탕(湯)을 끓여 목욕을 하면 극히 좋다...또 방문으로는 한때 돌아가는 여역(癘疫)에는 항상 매 달 보름날 동쪽으로 뺀 복숭아 나무 가지를 잘게 썰어 넣고 물을 끓여 목욕한다...

#### (6) 조선 시대 각종 생활서 및 백과사전 편찬

조선 중기인 17세기부터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백과사전 형식의 서적들이 편찬된다.

조선 숙종 때 실학자 유암(流巖) 홍만선(洪萬選:1643~1715)이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항을 기술한 소백과사전적 책인 《山林經濟》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저술은 한국 최초의 자연과학 및 기술에 관한 교본(敎本)이라고 평가받고 있다.(辛承云, 1982) 그러나 간행을 보지 못한 채 수사본(手寫本)으로만 전해 오다가 저술된 지 약 50년 후인

1766년(영조 42) 유중림(柳重臨)에 의하여 16권 12책으로 증보되어 《增補山林經濟》로 간행된다. 이 저술을 바탕으로 19세기 중반인 순조 때, 서유구(徐有集)의 大著 《林園經濟志》가 나오게 되었다. 113권을 16개 부문으로 나눈 논저로 이루어진 방대한 저술인 《林園經濟志》는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듯이,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기예와 취미를 기르는 백과전서로 생활과학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책의 내용이 1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林園十六志》 또는 《林園經濟十六志》라고도 한다. 이 책은 중국과 우리 나라 생물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집대성한 새로운 백과전서적 박물학서이다. 그것은 《農事直說》·《東醫寶鑑》·《山林經濟》·《擇里志》·《攷事撮要》와 《攷事新書》·《課農小抄》로 이어지는 종래의 조선 농학과 박물학의 체계 위에, 800여 종의 문헌을 참고하여 이를 확대 발전시켜 19세기 중기의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보다 완벽한 박물학서로서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http://encykorea.aks.ac.kr>) 또한 19세기 초인 1809년(순조 9년)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엮은 가정생활서인 《閨閣叢書》는 저자가 서문에서 “이 모두가 양생(養生)하는 선무(先務: 먼저 힘써야 할 것)요, 치가(治家: 집안을 다스리는 것)하는 요법이라 진실로 일용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부녀가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가정 주부들의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생활의 요점을 적어 모은 것으로 단순히 인용문헌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꼼꼼히 적혀 있다. (<http://encykorea.aks.ac.kr>)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실용서(實用書)들이 등장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기요법(香氣療法)과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사용법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7) 향(香) 관련 유물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민간에 모두 향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이어 금속 및 도자 등 다양한 향로의 유물이 남아 있으며, 향료를 소지하고 다니는 장신구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다.

조선 시대의 향로는 불교적 향공양 외에 그림 19의 황동제 향로와 향합처럼 국가적 제례나 의례에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그림 20과 같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향로도 민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림 19. 조선시대 황동제 제례용 향로와 향합

출처: 국립고궁박물관(<http://www.gogung.go.kr>)



그림 20. 조선시대 백자청화사괘문향로(白磁靑畫四卦文硯滴)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http://www.museum.go.kr>

향과 관련된 장신구로는 향낭(香囊), 향노리개, 부채 끝에 다는 장식인 향선추(香扇墜), 향이 나는 허리띠인 향대(香帶), 의복이나 갓, 관모 등을 장식했던 향영자(香纓子) 등이 있다.(이경희, 2014)

그림 21의 좌측은 향노리개 중에서도 술 위쪽에 달린 상단의 투각형을 향나무로 만들거나, 보석으로 만들어 향료를 넣어 향이 나게 한 각향노리개이고, 우측은 자수로 장식한 주머니를 달아 안쪽에 향을 넣은 향낭노리개이다. 향노리개는 주로 여름철에 반가(班家)의 여인들이 많이 패용했던 노리개로서 노리개에 향(香)을 넣어 차면 은은한 향기가 주위에 퍼졌을 뿐 아니라, 향(香) 대신 약을 넣어두기도 하여 응급 시에는 구급약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http://www.culturecontent.com>)



그림 21. 조선시대 향노리개

출처: 문화콘텐츠닷컴(<http://www.culturecontent.com>)

향을 담은 향낭(香囊) 중 그림 22는 휴대용 향낭으로 영친왕이 휴대하던 것으로 보이며 발견 당시 주머니 안에는 한지로 싸인 고급향이 담겨 있었다.(<http://www.gogu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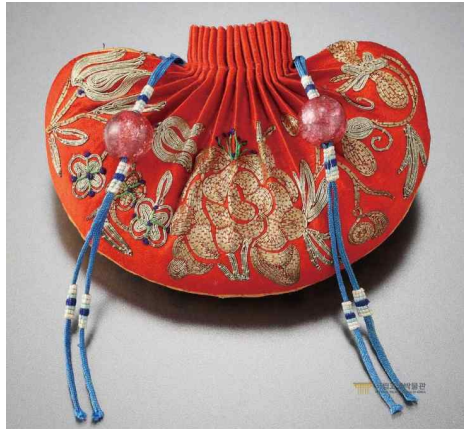


그림 22. 조선시대 자수향낭

출처: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folkency.nfm.go.kr>)

한편 중요민속자료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림 23의 운봉수(雲鳳繡) 향낭(香囊)은 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궁중의 내실(內室)에 장식되었던 향낭으로 여인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던 일반 향낭에 비해 규모가 크다.(<http://folkency.nfm.go.kr>) 실내의 공기정화 및 발향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림 23. 운봉수 향낭

출처: 문화재청(<http://www.cha.go.kr>)

## 2. 한국 전통 향기요법(香氣療法)에 대한 용도별 고찰

전통적인 향(香) 사용의 용도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분류는 향 사용의 목적에 따라 임의대로 나눈 것이 대부분이다. 권순형의 연구에서는 의례용, 제사용, 민간용으로 구분하였고,(권순형, 2013) 이경희 등이 2005년 발표한 “우리나라 전통향의 용도와 성격적 특성”이란 연구에서는 공양의 용도, 방향의 용도, 정화의 용도, 방충의 용도, 치료의 용도로 구분하였고(이경희 등, 200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향문화를 왕실의례, 불교문화, 선비문화용, 의료문화로 구분하여 문화적 용도로 구분하였다.(이경희, 2011) 기존 연구에서는 방향식물의 기능성과 향기의 기호성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향(香) 사용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기요법’의 개념을 ‘식물의 향기성분을 이용하여 치료 및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라고 보아 이 범주에 해당되는 모든 방법을 질병의 치료를 위한 ‘치료용’과 치료는 아니지만 건강하고 편리한 삶의 영위를 위해 사용했던 ‘기타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 전통적 향기요법에 대한 구체적 활용 정보 중 치료에 관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사료는 1613년에 간행된 허준의 《東醫寶鑑》이다. 본 연구에서는 《東醫寶鑑》을 기본으로 《食療纂要》, 《春鑑錄》, 《袖珍經驗神方》 등 의서(醫書)를 통하여 치료용으로 사용된 향기요법과 방향식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향기요법의 ‘기타 활용법’은 《農政會要》, 《海東農書》 등 농서(農書)와 《歷酒方文》 등의 조리서, 《山林經濟》, 《閨閣叢書》 등 다양한 생활관련 정보를 기술한 백과사전적 성격의 실용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치료용

향기성분이 인체로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구강, 후각, 폐, 피부를 통하는 4가지이다. 그러나 후각과 폐를 통하는 경로는 흡입의 방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향기성분의 적용 방법은 구강복용, 향기흡입, 피부적용 등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Battaglia, 2004) 전통적 향기 치료의 방법 역시 구강복용, 향기를 흡입하는 법, 피부에 적용하는 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서양의 아로마테라피와 다른 점은 방향식물의 향기성분인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식물(芳香植物) 자체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독특한 적용방식을 사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한약의 제형은 기본적으로 탕(湯), 주(酒), 환(丸), 산(散), 고(膏), 단(丹), 정(錠), 편(片), 로(露), 상(霜), 교(膠), 차(茶), 국(麴) 등의 형태를 취한다.(이향영, 2015) 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적인 한약의 제형과는 별도로 안점우 등은 ‘향기요법의 임상응용과 한의학적 접근’이라는 연구를 통해 한의학에서 특히 향기가 있는 방향성 한약재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해왔던 향기요법의 사용방법 및 현대적 응용법에 대하여 표 8과 같이 정리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이용한 한국 전통 향기요법 중 치료를 위해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방법을 향기성분의 인체 흡수 경로에 따라 구강복용법, 향기흡입법, 피부적용법의 3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적용방법의 세부적 사항에서 안점우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향기요법의 종류를 참고하고 보완하여 고찰하였다.

표 8. 한의학에서 사용된 향기요법의 종류

종류	방법과 문헌 주치(主治)	현대적 응용
훈법 (熏法)	원통(圓筒)에 약지(藥紙)를 태워 흡입	급만성 기관지염, 천식, 관절염, 결막염 등
훈세법 (熏洗法)	약을 달여 증기를 쬐어 방향성분을 환부에 적용하고 동시에 세척하여 피부면에 약효를 직접 전달함	피부질환, 향문질환
향대법 (香袋法)	향낭(香囊)을 휴대하거나 또 침상(寢牀) 밑에 두어 질병을 예방함	공기청정제, 향수, 감기 등
향침법 (香枕法)	침상(枕床)에 향물(香物)을 두어 악몽을 예방함	불면, 신경쇠약, 불안 신경증
향의법 (香衣法)	의복(衣服) 중에 약물(藥物)을 두거나 뿌려서 신취(身臭)를 제거함	향수, 탈취제, 방향성 섬유 등
향병법 (香瓶法)	약물(藥物)로 병(瓶)을 만들어 비개(鼻介)나 코를 맞사지함	비염, 부비동염, 코의 양성 종양 등
향지법 (香脂法)	약물(藥物)로 고(膏)를 만들어 코나 두발에 바름	발모제, 부비동염 등
향즙법 (香汁法)	약물(藥物)을 달이거나 즙을 내어 함수(含漱)함	구내염, 인두염, 편도염 등
향두법 (香豆法)	약물(藥物)로 분(粉)을 만들어 바름	여드름, 주근깨, 기미 등
향봉법 (香棒法)	약물(藥物)을 바르고 봉(棒)으로 타격하거나 마사지함	발마사지, 안마, 타박상, 염좌 등
향마법 (香摩法)	약물(藥物)을 발라서 기혈(氣血)소통(疏通)	전신 마사지, 안면 마사지 등

출처: 안점우, 2000

## (1) 구강복용법

치료를 위한 전통적 향기요법 중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방법으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대다수의 약재들이 방향식물(芳香植物)인 점을 감안하면, 한약의 제형 중 복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약의 제형은 중국의 고전적인 의학서적인 《內經》에 약재를 물에 달여서 사용하는 탕(湯), 알약으로 만든 환(丸), 가루 형태인 산(散), 졸인 형태인 고(膏), 술에 유효성분을 우려낸 주(酒), 뜸의 형태인 구(灸)의 종류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후 단(丹), 정(錠), 편(片), 로(露), 상(霜), 교(膠), 차(茶), 국(麴) 등의 제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박성규 등, 2006) 이 중 구강복용법에는 탕액을 이용하는 법, 환을 이용하는 법, 가루를 이용하는 법, 졸인 형태의 즙인 고(膏)를 이용하는 법, 약차나 약술로 이용하는 법 등이 있다.(최현정, 2004) 이들 제형은 병의 증상과 약물의 특성에 근거하여 선택되며, 제형에 따라 사용되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추출 성분에 차이가 있다. 같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이라도 치료의 목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구강복용법은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치료법 중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2) 향기흡입법

약재의 향기성분의 특징을 이용한 방법으로 휘발성 유기성분인 정유(精油)를 이용하는 치료법이였다.

안점우 등(2000)의 연구에서 한의학에서 사용되었던 향기요법으로 제시한 훈법(熏法), 훈세법(熏洗法), 향대법(香袋法), 향침법(香枕法), 향의법(香衣法), 향병법(香瓶法), 향지법(香脂法), 향즙법(香汁法), 향두법(香豆法), 향봉법(香棒法), 향마법(香摩法) 중 향기흡입법에 해당되는 것은 훈법(熏法), 향대법(香袋法), 향침법(香枕法), 향의법(香衣法), 향병법(香瓶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의 문헌상 주치(主治)의 설명을 보면 정유를 활용하는 서양의 향기요법과 목적에 있어서는 거의 흡사하며, 훈법(熏法)이나 향병법(香瓶法)은 주로 호흡기계 문제에 활용할 수 있고, 방향성분을 주머니에 넣어 몸에 휴대하는 향대법(香袋法)이나 향의법(香衣法)은 향수나 탈취제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공기 중의 항균효과로 인한 감기의 예방 등에 접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안점우 등, 2000) 또한 향침법(香枕法)은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증으로 인한 악몽의 예방에 사용된다고 하여 신경 정신적 측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안점우 등은 2000년 ‘향기요법의 임상응용과 한의학적 접근’이라는 연구 중, 향침법(香枕法)의 방법에 대해 ‘침상(枕床)에 향물(香物)을 둔다’고 설명하였는데, 침(枕)의 뜻이 베게인 점으로 보아 ‘향물(香物)을 베게 속에 넣어 사용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종의 향베게인 셈으로 현대 아로마테라피에서 라벤더를 베게 안에 넣어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고문헌상에 기록된 향기흡입법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안점우 등의 연구(2000)에서 언급된 훈법(熏法), 향대법(香袋法), 향침법(香枕法), 향의법(香衣法), 향병법(香瓶法) 중 훈법(熏法), 향침법(香枕法), 향의법(香衣法)에 관한 기록만 있었으나, 이 중 향의법(香衣法)은 의복(衣服) 중에 약물(藥物)을 두거나 뿌려서 신취(身臭)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의 목적보다는 생활의 편의를 위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기타 활용’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치료를 위한 향기흡입법 중 방향식물의 가루를 종이에 말아 태워 코에 훈증하여 두통을 치료하는 훈법(薰法)이 《袖珍經驗神方》에 소개되어 있고, 《東醫寶鑑》 및 《閨閣叢書》에는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의 치료 목적으로 각종 향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던 서운향구(瑞雲香毬), 부용향(芙蓉香), 취선향(聚仙香)의 제조법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몸을 보호하는

향이라는 뜻처럼 나쁜 기운이 침범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던 호신향(護身香) 만드는 법이 《閩閩叢書》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 밖에 《高麗圖經》에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향초(香草)를 채운 자수베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베게 속에 각종 방향식물을 넣어 불면증 등 신경계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고려시대부터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海東農書》에 소개된 신침법(神枕法)의 사용방법에 평소에는 가죽주머니로 싸서 보관하였다가 쓸 때만 벗겨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약 기운이 외부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약효가 방향식물의 향기성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고문헌에 보이는 향기흡입법의 실례(實例)는 다음과 같다.(표 9)

표 9. 향기흡입법의 실례

종류	사용법	용도	문헌
훈법 (薰法)	고본(고본 세신 백지 신이화 같은 양의 가루 매 2돈꼴을 종이 4장으로 말아 만든 대롱에 불을 붙이고 연기로 코에 훈증한다.	두통의 치료	袖珍經驗神方
서운향구 (瑞雲香毬)	산조인 1되(물에 갈아서 낸 즙 1사발을 졸여서 고약을 만든다)·향부자·백지 각 3냥, 백단향·모향·애남향 곧 소나무에 있는 푸른 이끼이다·초두구·정향 각 1냥, 목향 5돈, 용뇌 1돈. 이 약들을 가루내고 산조인고와 섞은 후에 졸인 꿀을 넣고 고르게 반죽하여 손에 붙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절구로 찧어 연육만 하게 환을 만들어 1알씩 태운다.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의 치료	東醫寶鑑

종류	사용법	용도	문헌
부용향 (芙蓉香)	침속향(沈束香)·백단향(白檀香) 각 2냥, 영릉향(零陵香)·감송향(甘松香)·모향(茅香) 각 1냥, 정향(丁香)·삼내자(三柰子)·팔각향(八角香) 각 7돈, 소뇌 5돈, 백급 4냥혹 5냥. 이 약들을 가루내고 물에 섞어 비벼서 젓가락만 하게 향을 만들어 그늘에 말려서 태움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의 치료	東醫寶鑑, 閨閣叢書
취선향 (聚仙香)	침속향 2냥, 백단향 1냥, 정향·삼내자·낭태곤 애납향(艾菴香)·황연향(黃烟香)·흑향(黑香)·올리브유·소합향유·안식향·별꽃·염초 각 5돈, 용뇌·사향 각 1돈, 백급 3냥. 앞의 7가지를 가루내고 2포로 나눈다. 작은 솥을 불에 얹힌 후 올리브유·소합향유·안식향·별꽃을 녹여 약간 따뜻하게 한다. 여기에 향가루 1포와 용뇌·사향·염초를 넣고 고루 섞이게 충분히 젓는다. 나머지 말린 가루 1포를 손에 뿌려 대나무 심지에 바르고 그늘에 말려 태움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의 치료	東醫寶鑑
호신향 (護身香)	침향, 백단향, 강진향, 당목향, 유향 각 2전, 곽향 4전, 영릉향·백지 각 8전, 현삼 2전, 고본·향부자 각 8전을 찧어 꿀에 섞어 환을 만든다. 꿀을 제외한 11가지 재료를 갑자(甲子)일에 모아서 병자(丙子)일에 찧어 무자(戊子)일 꿀에 섞어, 경자(庚子)일 스스로 이름을 부르며 환(丸)을 비벼 임자(壬子)일 호로(胡蘆)에 넣어 감춘다.	몸을 보호하는 향. 나쁜 기운이 침범치 못하게 한다.	閨閣叢書
향침법 (香枕法)	수놓은 베개는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에 향초(香草)를 채우고, 양쪽 끝은 금실로 수놓은 무늬[磨金]를 실로 빙 둘렀는데, 꽃무늬가 매우 정교하다.	불면증, 신경 안정	高麗圖經

종류	사용법	용도	문헌
향침법 (香枕法)	감국(甘菊)의 꽃을 늦가을에 많이 따서 붉은 베주머니에 넣어 베개를 만들면 머리와 눈을 맑게 하는데 쓸 수 있고 나쁜 냄새를 없앤다. 결명자(決明子)를 주머니에 넣어 베개를 만들면 눈이 밝아진다	머리와 눈을 맑게 함. 탈취	增補 山林經濟
신침법 (神枕法)	산중의 잣나무를 베어다 목침(木枕)을 만들되, 안에 공간을 두어 열어서 쓸 수 있게 하도록 한다. 그리고 뚜껑에 좁쌀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만든다. 그리고는 궁궁이[芎藭]·당귀(當歸)·백지(白芷)·신이(辛夷)·두충(杜冲)·백출(白朮)·고본(藁本)·목란(木蘭)·촉초(蜀椒)·관계(官桂)·건강(乾薑)·방풍(防風)·인삼·길경(桔梗)·백미(白薇)·형실(荊實)·비렴(飛廉)·백실(柏實)·백복령(白茯苓)·진초(秦椒)·미무(麝蕪)·육종용(肉蓯蓉)·의이인(薏苡仁)·관동화(款冬花) 등 24가지를 사용하여 24절기에 응하게 하고, 거기에다 오두(烏頭)·부자(附子)·여로(藜蘆)·조협(阜茨)·감초·반석(礬石)·반하(半夏)·세신(細辛) 등 여덟 가지를 더하여 8방의 바람[風]에 응하게 한다. 이상의 32가지를 각각 1냥씩 잘게 썰어서 여덟 가지 약은 밑에 놓고 나머지 약은 위에 놓이도록 목침 속에 가득 채우고 베로 주머니를 만들어 목침에 입히고, 다시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이중으로 싸두었다가 잠자리에 들 때는 가죽주머니는 벗겨 버린다. 이는 약 기운이 외부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백 일을 베고 자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 되면 모든 병이 다 낫고 온 몸에는 향기가 가득하며, 4년이 되면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졌던 이가 다시 나며, 이 목이 총명해진다.	海東農書

### (3) 피부적용법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 중 피부적용법은 방향식물의 향기성분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Battaglia, 2004) 안점우 등의 연구에서는 한의학에서 향기요법을 적용했던 방법을 중국 및 한국의 한의학 관련 문헌을 근거로 고찰하여 그 중 방향 성분을 피부에 적용한 방법으로 훈세법(熏洗法), 향지법(香脂法), 향즙법(香汁法), 향두법(香豆法), 향마법(香摩法) 등을 소개하였다.(안점우 등, 2000) 훈세법(熏洗法)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을 끓인 증기를 쬐고 그 물에 씻는 방법이고, 향지법(香脂法)은 방향 성분을 연고로 만들거나 기름, 꿀 등에 섞어 몸에 바르는 방법이며, 향즙법(香汁法)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즙을 내어 피부에 문질러 바르는 방법, 향두법(香豆法)은 약물(藥物)로 가루를 만들어 바르는 방법이고, 향마법(香摩法)은 현대 에스테틱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오일 마사지와 비슷하게 피부에 바르고 문지르는 방법이다.(안점우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향기요법의 피부적용법에 대하여 한국의 고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한 바, 안점우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방향식물(芳香植物)을 끓인 증기를 쬐고 그 물에 씻는 훈세법(熏洗法)과 연고로 만들거나 기름, 꿀 등에 섞어 몸에 바르는 향지법(香脂法) 등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에 안점우 등이 언급했던 향즙법(香汁法)과 비슷하지만 방향식물의 즙을 내어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식물을 찧어 바로 붙이는 향도부법(香搗付法)과 방향식물을 끓인 물에 목욕을 하거나 씻어내는 일종의 향목욕법(香沐浴法)의 방법을 포함하였다.

#### ①훈세법(熏洗法)

한국 상황에 맞춰 편찬된 의서인 《東醫寶鑑》에는 일종의 훈증(熏蒸)을 통한 방향성분의 피부적용법인 훈세법(熏洗法)에 대한 기록이 많다.

훈세법(熏洗法)이 활용이 되었던 치료분야는 질병은 비뇨계, 눈병, 항문 질환, 피부질환 등 피부로 직접 흡수되었을 때 효과가 큰 방법들이다. 훈세법(熏洗法)의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훈세법(熏洗法)의 실례

종류	사용법	용도	근거문헌
세위법 (洗熨法)	생강·총백(蔥白)·자소엽(紫蘇葉) 각 1줌씩을 달인 물로 밑실에서 아랫배·생식기·항문 부위를 훈증하고 씻는다.	전포(轉胞)나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	東醫寶鑑
탕포산 (湯泡散)	황련·적작약·당귀 각 1돈. 이 약들을 썰어서 물에 달여 뜨거울 때 훈증한 후 씻고, 식으면 다시 데워서 씻는다	풍독(風毒)으로 눈이 별경게 붓고 아프며, 화예(花翳)가 생기고 눈물이 많은 것을 치료	東醫寶鑑
오행탕 (五行湯)	황백을 가루내어 습지로 싸서 누린 진흙으로 봉한 후, 잿불에 넣고 구워 말린 후 꺼낸다. 탄자대로 솜으로 싸고 물 1잔에 넣어 밥 위에 놓고 찐다. 뜨거울 때 훈증하고 씻으면 아주 묘한 효과가 있다.	갑자기 눈에 핏발이 생기고 유행성 눈병 치료	東醫寶鑑
독호산 (獨虎散)	오배자 반냥에 물 3사발을 넣고 반이 남을 때까지 달이고, 여기에 염초·형개 각 1돈을 넣는다. 뜨거울 때 훈증하고 씻은 후에 오배자 가루를 뿌린다.	탈항(脫肛)을 치료	東醫寶鑑
문합산 (蚊蛤散)	오배자 가루에 백반과 사상자를 넣고 달인다. 이것으로 훈증하고 씻은 후에 파초 잎에 적석지 가루를 뿌려 밀어 넣는다.	항문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치료	東醫寶鑑
항문양통 (肛門痒痛)	생쑥과 천련근을 달인 것으로 훈증하고 씻는다	충(蟲)으로 인해 가려운 항문을 치료	東醫寶鑑

종류	사용법	용도	근거문헌
항문양통 (肛門痒痛)	괴백피나 오가피를 진하게 달인 물로 항문을 훈증하고 씻어 준다	항문이 가려운 것을 치료	東醫寶鑑
세치법 (洗痔法)	무화과 잎을 달인 물로 훈증하고 씻어도 괜찮다.	치질의 치료	東醫寶鑑
	번화치(翻花痔)에는 형개·방풍·염초을 달여서 훈증하고 씻은 후 목별자·울금을 갈아 가루 낸 것에 용뇌를 넣고 물에 개어 바름		
	치질로 참을 수 없이 아플 때는 목화꽃을 달인 물에 염초를 넣어 훈증하고 씻는다.		
해독탕 (解毒湯)	황백·택란·감초·형개·적작약·대황·백지·당귀·독활 각 2돈. 이 약들을 얇게 썰어 총백 5줄기, 대추 5개를 넣어 물 3되에 달여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따듯할 때 훈증하거나 씻는다.	옹저(癰疽)의 치료	東醫寶鑑
세약 (洗藥)	지골피·형개·고삼·세신 각 2냥. 이 약들을 썰어 강물에 달여 큰 통에 담아 몸을 담그고 목욕하며 훈증하고 씻는다.	온몸에 창이 나서 짓무른 경우를 치료	東醫寶鑑
세약방 (洗藥方)	방풍·창이자·지골피·형개·고삼·세신 각 3냥씩 썰어서 강물에 달여 큰 통에 채우고 몸을 담가 목욕하며 훈증하고 씻는다.	양매창(楊梅瘡)으로 짓무른 경우를 치료	東醫寶鑑
아장선 (鵝掌癬)	천오·초오·하수오·천화분·적작약·방풍·형개·창출·지정(地丁) 각 1냥, 애엽 4냥을 물에 달여 훈증하고 씻으면 바로 낫는다	손바닥에 생기는 피부병을 치료	東醫寶鑑
훈루창방 (熏漏瘡方)	애엽·오베자·백교향·천련근 모두 같은 양. 이 약들을 썰어 향을 태우듯이 긴 통 안에 놓고 태우면서 그 위에 앉아 훈증한다	종기, 고름의 치료	東醫寶鑑

## ② 향지법(香脂法)

향지법(香脂法)은 약물(藥物)로 고(膏)를 만들어 코나 두발에 바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안점우, 2000) 향지법은 방향식물의 향기성분을 기름성분 또는 꿀에 개어 피부에 직접 바르도록 하고 있다. 현대의 연고와 흡사하며 방향성분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에 소개된 육향고(六香膏)는 주재료가 백단향(白檀香)·침속향(沈束香)·정향(丁香)·영릉향(零陵香)·감송향(甘松香)·팔각향(八角香)의 6가지 향이며 겨울에 동상으로 손발이 갈라지고 창(瘡)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십향고(十香膏)는 주재료가 침향(沈香)·정향(丁香)·백단향(白檀香)·감송향(甘松香)·울금(鬱金)·유향(乳香)·목향(木香)·백교향(白膠香)·소합향(蘇合香)·사향(麝香)의 10개 향으로 육향고(六香膏)처럼 종기의 치료에 주로 사용된 듯하다. 또한 옥용고(玉容膏)는 주재료에 사용된 방향식물이 황기(黃芪)·당귀(當歸)·백지(白芷)·천궁(川芎)·곽향(藿香)·영릉향(零陵香)·백단향(白檀香)·향부자(香附子)·백렴(白斂)·백작약(白芍藥)·백급(白芨) 등이고, ‘조창(燥瘡)에 바른다’고 되어 있는데 조창은 얼굴의 마른 부스럼을 뜻하며 거칠고 건조한 피부로 인한 문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이고(辛夷膏)는 목련꽃인 신이화(辛夷花)를 주재료로 만든 연고이며, 《東醫寶鑑》외형편(外形篇) 코에 관한 항목에 주로 콧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어린 아이에게 맑은 콧물이 생길 때 쓴다고 하였다. 또한 나두창방(癩頭瘡方)은 머리에 회백색의 비듬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인 나두창(癩頭瘡)의 치료법으로 소나무 껍질을 태운 재, 황단(黃丹)·백교향(白膠香), 대황(大黃), 황백(黃柏) 등을 사용하여 기름에 개어 피부에 바르도록 하고 있다. 표 11는 향고(香膏)를 활용한 향지법(香脂法)의 실례이다.

표 11. 향지법(香脂法)의 실례

종류	사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육향고 (六香膏)	<p>백단향·침속향(沈束香)·정향·영릉향·감송향·팔각향 각 2냥을 거칠게 가루 낸 것을 꿀 3되에 담그고 입구를 봉한다. 7일 혹은 10일 만에 꺼내어 불에 쪄어 약간 따뜻하게 한 후에 체로 찌꺼기를 거른다. 여기에 삼내자를 곱게 가루 낸 것 5돈, 소뇌 가루 3돈, 동과인을 곱게 가루 낸 것 7냥 혹은 10냥을 넣고 고르게 저은 후, 다시 성긴 체에 걸러 그릇에 저장하고 쓴다. 겨울에 동상으로 손발이 갈라지고 창이 생긴 경우를 치료한다.</p>	<p>백단향·침속향 정향·영릉향 감송향·팔각향</p>	<p>東醫寶鑑</p>
십향고 (十香膏)	<p>침향·정향·백단향·감송향·울금 각 5돈을 거칠게 썰어 참기름 1근에 7일 동안 담근다. 이것을 술에 넣고 약한 불로 5일 동안 데운 후에 중간 불로 20~30번 끓여 줄이고, 천으로 걸러 찌꺼기를 제거한다. 술을 닦고 졸인 기름을 넣은 후에 황단을 넣고 버드나무로 만든 경그레로 계속 짓는다. 검은 색이 되어 물 속에 떨어뜨리면 멍쳐서 구슬이 될 때까지 계속 짓는다. 그 뒤에 유향·목향·백교향·용치(龍齒)·소합향 가루 각 5돈, 사향 가루 2.5돈을 넣고 300~500번 고르게 짓고, 엉겨서 덩어리가 되면 썰어 둔다. 쓸 때는 붉은 비단에 발라서 붙인다. 나력(癩癧)의瘡이 터지기 전에 사용하면 낫는다</p>	<p>침향·정향 백단향·감송향 울금·유향 목향·백교향 소합향·사향</p>	<p>東醫寶鑑</p>

종류	사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p>옥용고 (玉容膏)</p>	<p>황기·당귀·백지·천궁·곽향·영릉향·백단향·향부자·백렴·백작약·백급·행인 각 1냥, 과루실 1개, 용뇌 2돈, 식용유 4근, 황랍 1근. 이 약 중에 용뇌를 제외하고 모두 썰어 기름 속에 담그되,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 동안 담근다. 담근 날을 채우면 돌그릇에 넣고 백지가 누렇게 탈 때까지 달이고 찌꺼기를 제거한다. 여기에 황랍을 넣고 녹인 후에 또 찌꺼기를 제거한다. 여기에 용뇌를 넣어 고르게 저은 후 밀봉하고 쓴다. 겨울에는 황랍을 반으로 줄인다. 조창(燥瘡)에 바른다</p>	<p>황기·당귀 백지·천궁 곽향·영릉향 백단향·향부 자백렴·백작 약 백급</p>	<p>東醫寶鑑</p>
<p>신이고 (辛夷膏)</p>	<p>콧속에 굳은살이 생겨 코가 막히고 아픈 것을 치료한다. 신이 2냥, 세신·목통·목향·백지·행인 각 5돈. 이 약들을 양의 골수와 돼지기름 각 2냥에 섞어서 돌그릇에 약한 불로 졸여 적황색의 고약을 만든다. 이것이 식으면 용뇌·사향 각 1돈을 넣고 환을 만들어 숨에 싸서 콧속을 막는다. 며칠이 지나면 굳은살이 떨어지고 곧 낫는다</p>	<p>신이·세신 목향·백지 행인·용뇌</p>	<p>東醫寶鑑</p>
<p>나두창방 (癩頭瘡 方)</p>	<p>소나무 껍질을 태운 재 5돈, 황단·백교향 각 2.5돈, 백반(굽는다)·대황·황백 각 1.2돈을 가루내고 뜨거운 기름에 개어 붙인다. 머리에 회백색의 비듬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인 나두창(癩頭瘡)에 사용한다.</p>	<p>소나무 껍질을 태운 재, 황단, 백교향, 대황, 황백</p>	<p>東醫寶鑑</p>

### ③ 향도부법(香搗付法)

향도부법(香搗付法)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찢어 바로 붙이는 방법이다. 주로 피부질환의 치료법에 주로 보이는데, 《東醫寶鑑》 침구편(鍼灸篇) 요구창법(療灸瘡法)에 뜸으로 인해 상처가 덧난데, 백모향(白茅香)의 꽃을 찢어 붙인다고 되어있다.

또한 《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에 제창(諸瘡) 중 여러 악창(惡瘡)들의 치료에서 콩알이나 매화씨같이 생긴 헌데가 붙이나 목에 가득 나서 양쪽 귀로 퍼지면서 진물이 나오며 짓무르는 주피추창(走皮癩瘡)의 치료에 도부법(搗付法)을 소개하고 있다.

香搗付法의 실례와 사용되었던 방향식물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향도부법(香搗付法)의 실례

종류	사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요구창법 (療灸瘡法)	뜸으로 인해 상처가 덧난데, 백모향(白茅香)의 꽃을 찢어 붙인다	모향(茅香)	東醫寶鑑
주피추창 (走皮癩瘡) 의 치료법	소아의 태추로 머리에 붉은 딱 같은 창이 생기면 먼저 애엽(艾葉)·백지(白芷)·대복피(大腹皮)·총백(葱白)을 달인 물로 씻고, 쪽잎(생것)과 애엽(생것)에 꿀을 넣고 찢어서 붙인다.	쑥·백지(白芷) ·빈랑·과, 쪽	東醫寶鑑
지주교상 (蜘蛛咬傷)	거미에 물렸을 때 해백((薤白)이나 부추의 뿌리를 찢어서 붙인다. 또, 옹황(雄黃) 가루를 붙인다. 또, 상백피(桑白皮) 즙을 바른다. 또, 순무의 씨를 갈아 기름에 개어 붙인다. 또, 소계(小薊)의 즙을 마신다.	해백((薤白), 부추	東醫寶鑑

#### ④ 향목욕법(香沐浴法)

향목욕법(香沐浴法)은 방향식물을 끓인 물로 씻어 내거나 목욕을 하는 방법으로 가려움증이나 염증 등 피부 문제에 주로 많이 활용되었다.

《東醫寶鑑》 외형편(外形篇) 중 피부의 가려움증과 통증(痒痛)에 관한 방법에 조세약(澡洗藥)이 나온다. 풍조신양(風燥身痒)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여기서 풍조신양(風燥身痒)이란 풍사(風邪)와 조사(燥邪)가 결합하여 피부에 이상 감각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 현대의 아토피 증상처럼 소양증이 매우 심한 경우인 것 같다. 치료법은 영릉향(零陵香)·모향(茅香)·연잎·고본(藁本)·곽향(藿香)·백지(白芷)·감송(甘松) 등의 방향식물을 물에 끓이고 그 물에 목욕하는 방법을 취하라고 하고 있다.

《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의 소아(小兒) 제창(諸瘡)에 관한 처방에서 소아(小兒)의 악창(惡瘡)은 먹이는 약보다 자주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소아의 악창은 아토피처럼 반복적으로 생기고 잘 낫지 않는 부스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치료방법으로 소개된 방향식물인 형개(荊芥)는 최근 아토피 임상연구에서 효능이 검증된 바 있다. (김경한 등, 2014)

몸을 씻는 목욕법은 아니지만 방향식물을 끓인 물로 입안을 헹구어내는 양치법도 사용되었다. 《東醫寶鑑》 외형편(外形篇) 구설(口舌)에 관한 질병의 처방 중 구취(口臭)가 있을 때 향유(香薷) 달인 물을 마시거나 양치를 하면 입냄새를 빨리 없앨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방향식물인 향유(香薷)를 달인 물로 양치를 하면 향기 성분인 정유가 입속에서 항균 작용 등을 통해 입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목욕법(香沐浴法)의 실례와 사용되었던 방향식물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향목욕법(香沐浴法)의 실례

종류	사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조창약 (澡洗藥)	<p>풍조(風燥)로 몸이 가려운 것을 치료한다. 위령선(威靈仙)·영릉향(零陵香)·모향(茅香) 각 반근, 연잎(마른 것)·고본(藁本)·곽향(藿香)·백지(白芷)·감송(甘松) 각 4냥. 이 약들을 썰어 4냥씩 물 3통에 넣고 몇 번 끓여오르게 달인 후 방 안에서 목욕한다. 바람을 피해야 한다.</p>	<p>영릉향(零陵香) 모향(茅香) · 연잎 고본(藁本)·곽향 (藿香)·백지(白 芷)감송(甘松)</p>	<p>東醫寶鑑</p>
소아악창 (小兒惡瘡) 의 치료	<p>소아(小兒)의 악창(惡瘡)은 날씨가 따뜻할 때 자주 씻어 주고 옷을 갈아 입혀야 한다. 이것을 '외선(外宣)'이라고 하는데 약을 먹일 필요가 없다. 봄에는 버드나무가지·형개, 여름에는 대추잎·회화나무 가지, 가을에는 고삼을 달인 물로 따뜻하게 씻어준다.</p>	<p>형개(荊芥)</p>	<p>東醫寶鑑</p>
구취(口臭) 의 치료	<p>입 냄새를 빨리 치료한다. 향유(香薷) 달인 물을 마시거나 그 물로 양치질하면 묘한 효과가 있다</p>	<p>향유(香薷)</p>	<p>東醫寶鑑</p>

## 2) 기타 활용

향기요법의 또 다른 활용방법은 치료는 아니지만 방향식물 속 향기성분의 기능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종교 및 의식, 생활의 편의 등 다양한 목적으로 방향식물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한국의 전통적 향기 활용방법은 목적에 따라 크게 제사나 불교의식 기타 의례에서 향을 피우는 의식용, 식품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고 음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 향신료용, 책이나 의류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보존용, 피부미용이나 향 장신구로 개인의 아름다움과 향취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미용향장용으로 나눌 수 있다.

### (1) 의식용(儀式用)

천신(天神), 종교적 제례 등 다양한 정신적 세계의 교류에는 반드시 향(香)이 함께 한다. 김열규(1989) 종교, 제사 등 정신적 세계의 교류에 사용되는 향(香)의 사용 효과는 방향식물의 향기성분이 가지는 생리적 작용과 심리적 작용에 기인한 것이며, 한국의 전통적 향기사용법에도 단군신화 이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망라하는 전 시기에서 제례 및 불교 공양에 향(香)이 사용된 기록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불교국가였던 고려에서는 국왕이 친히 사찰에 가서 행향(行香)하였던 기록이 많으며, 조선시대에도 불교의 향공양(香供養), 국가의 각종 제례 및 의례, 사신의 접대, 국왕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의 봉안(奉安) 시에 향을 사용함으로써 주변의 공기 중에 좋은 향기를 풍기고 안 좋은 냄새를 가리는 등의 목적에 사용하였다.(이경희, 2011) 여기에 주로 사용된 단향(檀香), 침향(沈香) 등 향료와 침속향(沈束香)·백단향(白檀香)·영릉향(零陵香)·감송향(甘松香)·모향(茅香)·정향(丁香)·삼내자(三柰子)·팔각향(八角香) 등을 혼합한 부용

향(芙蓉香)에 사용된 방향식물의 효과에 향균 효과와 진정효과 등이 있었음을 볼 때,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닌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경건케 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목적이 내재되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 (2) 음식(飮食)에 활용

한국의 전통적 향기요법에서는 치료용 약으로 복용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도모하고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일종의 기능성 식품의 역할을 하거나, 음식의 보존 및 향미의 증진을 위해 방향식물을 활용했던 다양한 기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에 활용된 방향식물의 활용법을 식이요법을 위한 약이(藥餌), 음식을 오래 보관하거나 향과 맛을 첨가하기 위한 향신료(香辛料), 차, 음료, 술, 떡 등 다양한 음식에 향을 첨가하기 위한가향재(加香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① 약이(藥餌)

약이(藥餌)란 ‘약이 되는 음식’을 뜻한다(www.korean.go.kr). 일종의 식이요법으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식물의 기능성을 이용한 것이다. 현존하는 문헌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라 할 수 있는 《食療纂要》는 세조 4년(1460) 어의(御醫)인 전순의(全循義)의 저작으로 식의(食醫)로서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중시한 전문서이다.(신승운, 2008) 《食療纂要》는 질병에 관한 총 45문(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제조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식재료(食材料) 중 대표적인 방향식물은 파, 생강, 부추, 겨자, 산초, 후추, 굴피, 정향, 들깨, 참깨, 자소, 마늘, 고수, 소나무, 형개, 모향 등이다.

다음 표 14는 《食療纂要》에 약이(藥餌)로서 적용된 방향식물(芳香植物)과 사용 질환이다.

표 14. 《식료찬요》에 기록된 방향식물(芳香植物)과 사용 질환

종류	사용 질환
과	감기, 눈이 침침할 때, 유산기로 인한 요통, 소아의 소변 불통 및 배아픔,
생강	감기, 기침, 소화, 목이 부었을 때, 더위 먹었을 때(차게 복용), 구토, 식체, 토사곽란, 설사,
부추	중풍,心痛, 脾痛, 갈증의 치료, 급성설사,
겨자	심통(心痛)
산초	기침,가래, 소화
후추	소화
귤피	소화
정향	소화, 구토
들깨	소화
참깨	중풍, 요통, 손발저림, 기력이 쇠했을 때, 더위 먹었을 때(차게 복용), 변비, 이뇨
자소	부종, 신장
마늘	더위 먹었을 때, 다리에 쥐가 날 때(근육에 직접 문지름)
고수	기생충, 장기능 원활, 치질
소나무	타박상(松節을 술에 타 복용)
형개	중풍
모향	황달에 茅根을 사용

② 향신료(香辛料)

방향식물(芳香植物)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거나 향과 맛을 첨가하기 위한 향신료(香辛料)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왔다. (박권우, 2007) 방향식물인 허브(herb)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항균, 항돌연변이 등 여러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향과 맛의 향상 뿐 아니라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저장성 향상의 효과가 입증되었다.(Morimitsu et al, 1992) 한국의 고문헌에도 음식에 방향식물을 첨가한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다음 표 15는 그 중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각종 저장법에 사용된 방향식물의 활용법이다.

표 15. 음식 보존을 위한 방향식물(芳香植物) 사용례

분류	음식명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말림	향무말림[食香蘿蔔]	생강, 꿀꺽질, 소회향, 회향	五洲衍文長箋散稿 林園十六志 農政會要
	향무말랭이[香蘿蔔法]	소회향, 산초, 사인, 진피	林園十六志
	향가지말림[食香茄兒]	생강, 꿀꺽질, 차조기	五洲衍文長箋散稿
	향신가지당초말림[食香茄方]	박하, 회향	林園十六志
	향가지말림[食香茄方]	화초(산초), 소회향, 회향, 감초, 진피, 행인	林園十六志
	향신 배추·갓 말림 [食香菘芥方]	소회향, 회향, 화초(산초), 진피	林園十六志
절임	향신당근절임 [胡蘿蔔鮮方]	파, 회향, 소회향, 생강, 꿀꺽질, 화초(산초)	林園十六志
	향유오이절임 [香苳菹]	생강, 마늘, 후추, 향유(참기름)	需雲雜方
졸임	향설고[香雪膏]	통후추, 생강, 계피	閨閣叢書

음식을 만들 때 향신료로 향기식물을 첨가하는 것 외에, 미리 방향식물만을 섞어 향신료를 만들어두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음 표 16은 고문헌 속에 보이는 향신료 만드는 방법이다.

표 16. 향신료(香辛料)의 제조를 위한 방향식물(芳香植物) 사용례

구분	제조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손쉽게 향신료 만드는 법 [造省力料物]	마근(馬芹), 후추, 회향(茴香), 건강, 관계, 천초 등을 각각 같은 양으로 나누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반죽하여 환을 만든다. 쓸 때 마다 부수어서 섞어 냄비에 넣는다. 여행할 때 더욱 편리하다.	후추[胡椒], 회향(茴香), 건강(乾薑), 관계(官桂), 천초(川椒)	海東農書
만산향방 (滿山香方)	회향, 시라, 천초를 볶아 가루를 내어 호리병에 보관한다. 야채로 요리할 때 국물이 살짝 끓어오르면 유장(油醬)과 함께 향신료 가루를 넣어 볶은 후 급히 뚜껑을 덮어도 온 산에 이미 향신료 향기가 퍼진다.	회향(茴香), 시라(蒔蘿), 천초(川椒)	林園十六志
보리누룩술 향신료장 만드는 방법 [水豆豉方]	좋은 황자 10근, 좋은 소금 40냥, 금화감주 10사발을 준비한다. 하루 전에 끓인 물 20사발에 소금을 타서 간수를 만들어 가라앉히고 찌꺼기를 제거하여 맑게 걸러낸다. 황자를 항아리에 넣고 술을 부은 다음, 소금물을 부어 49일 동안 별을 쪄인다. 크고 작은 회향 각각 1냥, 초과 5돈, 관계 5돈, 목향 3돈, 진피 채 1냥, 화초 1냥, 마른 생강 채 0.5근, 행인 1근을 항아리에 넣고 섞어 햇별을 쪄어준다. 2일 후에 항아리를 덮고 밀봉한다.	회향(茴香), 초과(艸果), 관계(官桂), 목향(木香), 진피(陳皮), 화초(花椒), 건강(乾薑), 행인(杏仁)	林園十六志

### ③가향재(加香材)

차, 음료, 술 떡 등 다양한 음식에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첨가하는 것은 풍미와 향취를 돋을 뿐 아니라 방향식물의 향기성분을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향차(香茶)는 차잎에 다른 물질을 섞어 만들거나, 차에 다른 물질을 섞어 마시는 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래는 차잎이 포함된 혼합차에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향약재(香藥材)나 향기 나는 과일 등을 이용하여 차처럼 물에 우려 이용한 경우가 많아 차잎이 혼합되지 않은 향차(香茶)를 유사다류라 지칭하기도 한다.(조기정 등, 2011) 또한 차 외에 방향식물을 활용한 음정류의 명칭에는 제조방법에 따라 끓는 물에 재료를 넣고 추출한 숙수(熟水), 농축된 과일즙이나 꿀에 재료를 넣어 달이거나 졸여 두었다가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갈수(渴水), 재료를 물에 30분 이상 비교적 오랜 시간 달여 추출하는 탕(湯) 등이 있다.(이혜정 등, 2004) 방향식물을 첨가한 차나 음료는 사용된 방향식물에 따라 각각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 서연희 등은 1‘약이성 음료에 관한 고찰’ 연구에서 약이성 음료를 재료와 종류별로 분류하고 효능에 대하여 정리하였는데, 음료에 사용된 식물의 종류에 따라 간, 소화기, 호흡기, 신경 안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서연희 등, 1996)

다음 표 17, 표 18, 표 19는 한국 고문헌에 보이는 방향식물을 가향재(加香材)로 활용한 음식과 사용된 방향식물의 실례이다.

표 17. 방향식물(芳香植物)을 가향재(加香材)로 활용한 음료

구분	하위분류	음식명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차	가향차 (加香茶)	강굴차 (薑橘茶)	굴홍(橘紅) 생강, 작설	增補山林經濟, 林園十六志, 山林經濟, 農政會要, 博海通攷
		족미차 (足味茶)	감초, 고삼, 차	林園十六志
		구기차 (枸杞茶)	구기자, 江茶(홍차), 참기름	山林經濟, 海東農書
		기국차 (杞菊茶)	들국화, 구기자, 차잎, 참깨	山林經濟, 海東農書
		뇌차 (擂茶)	어린 차잎, 천초(川椒)	林園十六志
	유사다류 (類似茶類)	국화차 (菊花茶)	감국	五洲衍文長箋散稿, 閨閣叢書, 林園十六志, 農政會要
		강죽차 (薑竹茶)	죽력, 생강	增補山林經濟, 林園十六志
		당귀차 (當歸茶)	당귀잎 또는 당귀뿌리	林園十六志, 山林經濟, 農政會要
		백엽차 (柏葉茶)	측백엽, 생강	林園十六志
		유자차 (柚子茶)	유자	林園十六志, 山林經濟, 農政會要, 博海通攷
		해아향차 (孩兒香茶)	해아다(아카시아), 백두구인, 분초, 침향, 한수석, 박하, 필징가, 천백약전 매화편뇌	林園十六志
		삼차 (蔘茶)	홍삼뿌리, 생강, 계피	朝鮮料理製法

구분	하위분류	음식명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음청류	숙수(熟水)	향화숙수 (香花熟水)	여름철에 향기가 있으나 독이 없는 반쯤 핀 꽃	林園十六志
		두구숙수 (荳蔻熟水)	백두구	林園十六志
		정향숙수 (丁香熟水)	정향, 죽엽	林園十六志
		자소숙수 (紫薺熟水)	자소	林園十六志
		침향숙수 (沉香熟水)	焙香(불에 쪼린 침향, 또는 단향)	林園十六志
	갈수(渴水)	향당갈수 (香糖渴水)	솔당(鬆糖) 곽향(藿香) 감송(甘松) 생강 사향 백단목 가루	林園十六志
	탕(湯)	향소탕 (香薷湯)	자소, 대추, 모과	林園十六志 山林經濟 海東農書

표 18. 방향식물(芳香植物)을 가향재(加香材)로 활용한 주류

구분	하위분류	음식명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술	가향주 (加香酒)	도화주 (桃花酒)	복숭아꽃	海東農書, 閨閣叢書, 農政會要 山林經濟
		송화주 (松花酒)	소나무꽃	農政會要, 林園十六志
		송절주 (松節酒)	소나무 마디	東醫寶鑑, 閨閣叢書, 海東農書
		송순주 (松荀酒)	소나무 순	農政會要, 閨閣叢書, 山林經濟
		연엽주 (蓮葉酒)	연잎	海東農書, 閨閣叢書, 農政會要
		국화주 (菊花酒)	국화	東醫寶鑑, 農政會要, 林園十六志
		유자피주 (柚子皮酒)	유자껍질	農政會要
		백화주 (百花酒)	여러 종류의 꽃	閨閣叢書, 農政會要
		하엽주 (荷葉酒)	연꽃잎	農政會要, 山林經濟
		두견주 (杜鵑酒)	진달래꽃	閨閣叢書

표 19. 방향식물(芳香植物)을 가향재(加香材)로 활용한 기타 음식류

구분	하위분류	음식명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기타	떡	봉연고방 (蓬燕糕方)	연하고 어린 흰 쭈	林園十六志
		동정의 (洞庭餠)	연잎, 굴잎. 당귀잎으로 대용	林園十六志
		조화고법 (造花糕法)	진달래	林園十六志
	전	두견화전 (杜鵑花煎)	진달래	林園十六志 閨閣叢書
		국화전 (菊花煎)	국화	林園十六志 閨閣叢書

### (3) 생활(生活)에 활용

치료 외의 목적에서 방향식물의 향기성분이 가진 항균성과 해충 기피 작용을 활용한 방법이 천연 섬유소로 되어있어 해충 및 균에 취약한 서책과 의류의 보존법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실록, 어진, 의궤 등 주요한 서책의 보존을 위해 보관 시 항균성이 뛰어난 방향식물을 함께 넣었으며, 여러 가지 향료를 혼합하여 복식을 충해로부터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합향(合香)인 의향(衣香)은 옷의 보관 뿐 아니라 서적, 어진, 국새 등 다양한 귀중품의 보관을 위해 사용되었다.(이경희, 2011)

#### ①서책 및 의류의 보존

《朝鮮王朝實錄》은 편찬이 완성되면 장중한 의식과 함께 중앙의 춘추관(春秋館) 사고(史庫)와 지방의 외사고(外史庫)에 봉안(奉安)하였으며 봉안까지 포함하는 실록 편찬의 전 과정을 의궤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의궤류를 통해 실록(實錄) 등 중요한 서책의 보관에 사용된 약재들을 알 수 있으며, 실록을 균(菌)과 충(蟲)으로부터 안전하고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 방향식물(芳香植物)인 천궁(川芎)과 창포(菖蒲)를 갑대(甲袋)에 넣어 실록과 함께 보관한 기록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조은혜, 2010) 또한 왕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보관하거나 국새인 보(寶)를 보관하는 보통(寶筒)에도 의향(衣香)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http://uigwe.museum.go.kr>)

의향은 《東醫寶鑑》과 《閩閩叢書》에 옷장 속에 넣는 향(香)이라 하고 만드는 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정확한 용도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러나 사용된 방향식물이 항균성이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어진(御眞)이나 국새(國璽)를 보관하는 통에 넣어두었다는 점 등은 균이나 벌레에 의해 상할 수 있는 의복 및 생활용품 등에 적용된 방충보존재로서 사용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0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사용한 의류 및 제품 보존법이다.

표 20.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사용한 의류 및 제품 보존법

구분	활용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의향(衣香)	<p>모향(꿀에 축여 볶는다) 1냥, 백지 5돈, 침속향·백단향·영릉향·감송향·팔각향·정향·삼내자 각 2돈. 이 약들을 모두 거칠게 가루내고, 여기에 소뇌 가루 2돈을 고르게 섞어 1첩으로 하여 옷상자 속에 두면 가장 좋다. 여름철에 더욱 좋다.</p>	<p>모향, 백지, 침속향, 백단향, 영릉향, 감송향, 팔각향, 정향, 삼내자</p>	<p>東醫寶鑑</p>
	<p>영릉향 1근, 감송·단향 각 10양, 정향피, 신이 ½양, 회향 1푼을 찢어 곱게 가루로 하여(만들어) 용뇌, 사향을 조금 넣어 쓴다.</p>	<p>영릉향(零陵香), 감송, 단향 각, 정향피, 신이, 회향, 용뇌, 사향</p>	<p>閨閣叢書</p>
	<p>정향(丁香), 전향(箋香), 침향(沈香), 단향(檀香), 사향(麝香) 각각 한 냥(一兩)을 모두 분말을 만들어서 꿀[蜜]을 잘 개어서 어두운 곳에 한 달 동안 넣어 둔다</p>	<p>정향(丁香), 전향(箋香), 침향(沈香), 단향(檀香), 사향(麝香)</p>	<p>林園十六志</p>
<p>가죽류 보존법</p>	<p>쑥잎[艾葉]을 가죽 속에 말아 넣어 향아리 안에 두고 진흙으로 봉하거나, 화초(花椒: 산초나무 열매)를 안에 넣고 말아 두어도 된다.</p>	<p>쑥잎[艾葉], 화초(花椒)</p>	<p>增補山林經濟</p>

② 방충 및 해충의 구제

벼룩, 이, 모기, 파리, 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해충들에 대한 구제법의 상당부분에 방향식물(芳香植物)이 활용된 기록이 있다. 다음은 방향식물을 사용한 방충 및 해충 구제법이다(표 21)

표 21.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사용한 방충(防蟲) 및 해충(害蟲) 구제법

구분	활용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벼룩,이를 쫓는법 [辟蚤虱]	창포는 벌레를 잘 죽이고 벼룩과 이를 잘 죽인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	창포(菖蒲)	東醫寶鑑
	백부근은 이를 죽이니, 이것을 달인 물로 씻는다. 소나 개의 이도 없앤다	백부근 (百部根)	東醫寶鑑
	청호(靑蒿)는 이를 죽이니, 이것을 달인 물로 씻는다	청호(靑蒿)	東醫寶鑑
	이나 지네를 쫓으려면 부평 태운 연기로 훈증한다. 그러면 곧 없어진다. 청염 녹인 물을 침상에 고루 뿌려도 곧 없어진다.	부평	東醫寶鑑
	창포, 부평초, 파를 말려 가루를 만들어 늘 반잔씩 자리 밑에 넣으면 이튿날 다 죽는다.	창포, 부평초, 파	閨閣叢書
	마른 창포를 가늘게 썰어 돛자리 밑에 넣으면 벼룩이 없다.	창포	閨閣叢書
	삼월삼짓날 냉이꽃을 따다가 침상 밑에 넣으면 벼룩이 없다.	냉이꽃	閨閣叢書
	백부근과 강활 각 한냥을 불에 살라 그 내를 옷에 쏘이면 이가 다 떨어진다	백부근, 강활	閨閣叢書
	생은행 즙을 옷에 풀떡일 적에 섞으면 이가 없다.	은행 (銀杏)	閨閣叢書

구분	활용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모기, 파리 쫓는법 [辟蚊蠅]	5월에 채취한 부평을 그늘에 말려 두었다 가 태워 연기를 내면 모기를 쫓는다.	부평 (浮萍)	東醫寶鑑
	백부근은 파리나 눈에놀이를 죽인다	백부근 (百部根)	東醫寶鑑
	남칠은 파리를 죽인다. 이것을 가루내어 밥과 섞은 것을 파리가 먹으면 죽는다	남칠(藍漆)	東醫寶鑑
	목별자·천궁·옹황을 가루내어 태우면 모기가 멀리 가버린다.	목별자 (木鱉子), 천궁(川芎) , 옹황(雄黃)	東醫寶鑑
빈대 쫓는법 [辟壁蝨]	부평초와 옹황과 모과잎을 태워 연기를 쬐면 빈대가 없다	부평초 (浮萍草), 모과잎	閨閣叢書
	큰 칩 대어섯자를 집에 걸어두면 빈대, 노래기가 다 없어진다.	칩	閨閣叢書
좀을 쫓는법 [辟蠹]	운대는 좀을 물리치니 책 속에 놓아두면 좀이 먹지 않는다	운대(芸薹)	東醫寶鑑
	냉이꽃으로 침상 밑을 비비면 좀이 없어 진다.	냉이꽃	東醫寶鑑

#### (4) 미용(美容), 향장(香粧)용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이용한 미용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동의보감에 보이는데, 《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에 향비조(香肥皂) 만드는 법에 대한 기록이 있다. 다른 이름으로 향비로(香飛露)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다. 일종의 향(香) 세안법으로, 침향(沈香)·백단향(白檀香)·정향(丁香)·영릉향(零陵香)·삼내자(三柰子) 등 각종 향재(香材)를 가루로 만들고 여기에 주엽나무 열매 가루와 흑설탕을 넣어 녹인 후 환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세수할 때 사용하여 때와 각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현대의 스크럽 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에 몸냄새를 제거하고 향이 나도록 모향(茅香), 영릉향(零陵香) 등을 끓인 물에 목욕을 하고 차로 마시는 법에 대한 기록이 있다. 《東國歲時記》에는 단오에 창포를 끓인 물에 세수를 함으로써 피부관리를 하였다. 또 《農政會要》에는 미용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일종의 머릿기름인 향택(香澤)을 만드는 법에 대한 소개가 있다. 번역서에는 청유(淸油)에 향을 담근다고 되어 있고 바로 다음에 여름에는 찬술을 쓰고 봄가을에는 미지근한 술로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약간 뜨겁게 해준다고 되어 있다. 청유(淸油)는 참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의미하므로 식물성 기름에 방향식물을 담아 향기성분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술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청유(淸油)가 아니고 청주(淸酒)의 오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술의 알콜 성분도 향기성분을 추출하기 좋은 용매가 되므로 향을 담가 두었다가 향이 우려나면 참기름, 돼지창자 비계와 함께 끓여서 알콜 성분을 날려 보낸 뒤 걸러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사용된 방향식물(芳香植物)은 계설향(鷄舌香)·곽향(藿香)·거여목[苜蓿]·광명자[羅勒]이다.

다음은 미용(美容) 및 향장(香粧) 관련 향기요법의 활용방법과 사용된 방향식물이다.(표 22)

표 22. 미용(美容) 및 향장(香裝) 관련 향기요법

종류	활용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향비조 (香肥皂)	<p>침향·백단향·정향·영릉향·삼내자 각 1냥, 소뇌 3돈, 사향 1돈. 이 약들을 가루내고, 여기에 조각가루 5냥, 흑당 2냥 혹은 3냥을 넣는다. 이것을 불에 녹인 후에 향가루와 반죽하여 탄자대로 환을 만든다. 세수할 때 이것으로 손과 얼굴을 비비고 씻으면 때가 없어진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향비로(香飛露)라고 한다.</p>	<p>침향(沈香) 백단향(白檀香) 정향(丁香) 영릉향(零陵香) 삼내자(三柰子)</p>	<p>東醫寶鑑</p>
향신법 (香身法)	<p>모향(茅香)의 싹과 잎을 달인 물에 목욕하면 몸에서 향기가 나고 나쁜 냄새가 없어진다. 달여 먹어도 괜찮다. 영릉향(零陵香)도 몸에 향기가 나게 하는데, 마시거나 목욕하는 것이 모두 좋다.</p>	<p>모향(茅香) 영릉향(零陵香)</p>	<p>東醫寶鑑</p>
창포세안 (菖蒲洗眼)	<p>창포를 끓인 물로 얼굴을 씻고, 부녀자들은 창포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쪽에 꽂아 전염병을 예방한다.</p>	<p>창포(菖蒲)</p>	<p>東國歲時記</p>

종류	활용방법	사용된 방향식물	근거문헌
<p>머리에 바르는 향유 만드는 법 향택(香澤)</p>	<p>좋은 청유(淸油)에 향(香)을 담근다. 여름에는 찬술을 쓰고 봄가을에는 미지근한 술로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약간 뜨겁게 해준다. 계설향(鷄舌香)·곽향(藿香)·거여목[苜蓿]·광명자[羅勒] 등 모두 4종을 새 헹겂으로 싸서 담근다. 여름에는 하룻밤을 담가두고, 봄가을에는 이틀 밤, 겨울에는 3일 밤을 담가둔다. 참기름[胡麻油] 2푼[分]과 돼지창자[猪腹] 1푼을 구리 술 안에 넣는다. 향을 담갔던 술로 섞어 달이는데 몇 번 끓여오른 다음에는 천천히 불을 낮추어 약하게 달인다. 그런 다음 담갔던 향을 저녁까지 따뜻하게 불에 달이면 물이 다 없어진다. 향택(香澤) 속에 불씨를 넣어 소리가 나면 물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연기가 나고 소리가 없으면 물이 다 없어진 것이다. 향택이 다 되었을 때 약간의 개사철 쑥[靑蒿]을 집어 넣으면 색이 난다. 헹겂으로 술 아가리나 병 아가리를 덮고 쏟아 붓는다.</p>	<p>계설향(鷄舌香) 곽향(藿香) 거여목[苜蓿] 광명자[羅勒]</p>	<p>農政會要</p>

### 3.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效用性)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사용된 芳香植物은 대부분 약재로서의 기능이 있는 식물이지만, 모든 방향식물(芳香植物)이 국내산은 아니었다. 오히려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상당수는 인도 및 동남아 산지의 아열대성 기후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따라서 약재의 가격 또한 고가(高價)였다. 실제 조선 초기에 약재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세종(世宗) 때 기존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고가의 약재(藥材)들을 토산화(土着化)하고 재배의 확대 및 증산을 독려했던 것으로 보인다.(이경록, 2010) 고려시대까지는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이 시기에 국내에서 재배되거나 토산화된 것으로 보이는 수입향약에는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零陵香), 곽향(藿香), 회향(茴香), 백교향(白膠香), 청목향(靑木香), 모향(茅香)이 있다.(이애련 등, 2012)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약재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한국의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자원 활용 관련 연구가 최근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지형준은 한국의 향신료 및 방향식물(芳香植物) 자원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분포된 관속식물 4,500 종 중 1,000여종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중 방향성분을 가지고 있어 향료자원이 될 수 있는 국내 식물 100여종의 이름만을 단순 소개하였다.(지형준, 1997) 또한 천연물 자원과 향기(방향)요법에 대한 정시련 등의 연구에서는 향기요법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방향성분의 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향기요법의 의미와 천연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들의 용도를 약용, 조리용 향신료, 건강미용의 용도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정시련 등, 2001) 그러나 정시련 등의 연구에서 소개된 방향식

물(芳香植物)은 서양 향기요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허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한국의 방향식물(芳香植物)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한편 변재면은 방향성(芳香性) 전통 약용자원식물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약서인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에 수록된 약재 중 식물과 관련된 곡부(穀部), 과부(果部), 채부(菜部), 초부(草部), 목부(木部)에 수록된 총 742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향료자원식물을 조사하여 279종의 방향성 전통 약용자원식물을 분류한 바 있다.(변재면, 2000) 그러나 변재면의 연구에서는 같은 식물이라도 사용부위에 따라 약재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여 사용부위에 따른 식물의 이칭(異稱)을 모두 별개의 식물로 계수(計數)한 점, 주치(主治)의 용도를 《東醫寶鑑》의 기록에만 근거하여 효용성을 검증한 점 등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 고찰을 위하여 앞서 고문헌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도별로 조사된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수입산 방향식물(芳香植物)과 현재 국내 재배가 가능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을 분류하고, 이 중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을 대상으로 고문헌에 기록된 용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현재 국내의 연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RISS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편수를 조사하였고, 그 중 효용성에 대한 연구의 수가 10편 미만인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 24종을 추출한 뒤 현재 진행된 연구내용과 고문헌상 기록된 용도를 비교,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후 향기요법에 대한 연구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1) 고문헌(古文獻)에 기록된 용도별 효용성

먼저 고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사용된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정리한 결과, 주요 방향식물의 종류는 감송향(甘松香), 강진향(降眞香), 삼내자(三柰子), 소합향(蘇合香), 용뇌(龍腦), 유향(乳香), 육두구(肉荳蔻), 초두구(草豆蔻), 침속향(沈束香), 팔각향(八角香), 황연향(黃烟香), 흑향(黑香),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零陵香), 괘향(藿香), 회향(茴香), 백교향(白膠香), 청목향(青木香), 강활(羌活), 고본(藁本), 구기자(枸杞子), 천궁(川芎), 냉이, 당귀(當歸), 독활(獨活), 모향(茅香), 목향(木香), 방풍(防風), 백교향(白膠香), 백금(白芨), 백렴(白蘘), 백지(白芷), 부평(浮萍), 사상자(蛇床子), 세신(細辛), 소나무, 쑥, 신이화(辛夷花), 애납향(艾納香), 오가피(五加皮), 울금(鬱金), 연(蓮), 작약(芍藥), 제비꽃, 지각(枳殼), 지황(地黃), 창출(蒼朮), 창포(菖蒲), 천오(川烏), 천초(川椒), 청호(靑蒿), 측백(側柏), 칩, 하수오(何首烏), 향유(香薷), 향부자(香附子), 현삼(玄蔘), 형개(荊芥), 황기(黃芪), 황련(黃連), 황백(黃柏), 겨자, 고수, 국화(菊花), 귤피(橘皮), 도화(桃花), 들깨, 마늘, 박하(薄荷), 부추, 산초(山椒), 생강(生薑), 소회향(小茴香), 유자(柚子), 자소(紫蘇), 진달래꽃, 참깨, 파로 총 81종이다

이중 기후 조건 등으로 국내 재배가 어려워 현재에도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은 감송향(甘松香), 강진향(降眞香), 삼내자(三柰子), 소합향(蘇合香), 용뇌(龍腦), 유향(乳香), 육두구(肉荳蔻), 초두구(草豆蔻), 침속향(沈束香), 팔각향(八角香), 황연향(黃烟香), 흑향(黑香)으로 12종이고, 나머지 69종의 芳香植物은 국내생산이 가능한데, 이 중 고려시대까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으나 조선 세종대에 향약의 국산화 노력의 결과 국산화가 가능했던 방향식물(芳香植物)에는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零陵香), 괘향(藿香), 회향(茴香), 백교향(白膠香), 청

목향(靑木香), 모향(茅香)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자생(自生)하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식물에는 강활(羌活), 고본(藁本), 구기자(枸杞子), 천궁(川芎), 냉이, 당귀(當歸), 독활(獨活), 목향(木香), 방풍(防風), 백교향(白膠香), 백급(白芨), 백렴(白蘘), 백지(白芷), 부평(浮萍), 사상자(蛇床子), 세신(細辛), 소나무, 쑥, 신이화(辛夷花), 애납향(艾納香), 오가피(五加皮), 울금(鬱金), 연(蓮), 작약(芍藥), 제비꽃, 지각(枳殼), 지황(地黃), 창출(蒼朮), 창포(菖蒲), 천오(川烏), 천초(川椒), 청호(靑蒿), 측백(側柏), 칩, 하수오(何首烏), 향유(香薷), 향부자(香附子), 현삼(玄蔘), 형개(荊芥), 황기(黃芪), 황련(黃連), 황백(黃柏)이 있었고, 향신료 및 음식에 활용이 많이 되었던 방향식물에는 겨자, 계피(桂皮), 고수, 국화(菊花), 귤피(橘皮), 도화(桃花), 들깨, 마늘, 박하(薄荷), 부추, 산초(山椒), 생강(生薑), 소회향(小茴香), 유자(柚子), 자소(紫蘇), 진달래꽃, 참깨, 과 등이 있었다.

상기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 69종의 효용성 조사를 위해, 앞서 살펴본 고문헌상에 기록된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용도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표 23) 먼저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용도를 ‘치료용’과 ‘기타활용’으로 나누고 ‘기타 활용’을 ‘의식용’, ‘음식에 활용’, ‘생활에 활용’, ‘미용·향장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치료용’으로는 69종 모두가 해당되었다. ‘기타 활용’ 중 향을 피워 공간에 퍼지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경건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의식용’으로 사용된 기록이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은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영릉향(零陵香), 모향(茅香), 목향(木香), 울금(鬱金) 등이다. 음식에 활용되었던 방향식물(芳香植物)은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곱향(藿香), 회향(茴香), 구기자(枸杞子), 당귀(當歸), 도꼬마리, 목향(木香), 소나무, 쑥, 오가피(五加皮), 연(蓮), 작약(芍藥), 지황(地黃), 천초(川椒), 측백(側柏), 칩, 향유(香薷), 황기(黃芪), 겨자, 계피(桂皮), 고수, 국화(菊花), 도화(桃花), 들깨, 마늘, 박하(薄荷), 부추, 산

초(山椒), 생강(生薑), 소회향(小茴香), 유자(柚子), 자소(紫蘇), 진달래꽃, 참깨, 파 등이 있다. 생활의 용도 중 항균 효과가 있어 ‘보존용’으로 사용되었던 방향식물(芳香植物)은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영릉향(安息香), 회향(茴香), 모향(茅香), 백지(白芷), 부평(浮萍), 신이화(辛夷花), 천궁(川芎) 등이 있다. 또한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을 내서 벌레를 쫓아낼 수 있는 芳香植物로는 백단향(白檀香), 천궁(川芎), 냉이꽃, 쭉, 창포(菖蒲), 청호(靑蒿), 취 등이 있으며, 생활 속에서 이, 벼룩, 진드기, 옴 등 해충을 쫓거나 서책이나 가죽 등 동물성 섬유에 생기는 좀벌레 등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비교적 향기가 좋으며 실내 공기정화나 신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식물(芳香植物)에는 정향(丁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安息香), 곽향(藿香), 고본(藁本), 목향(木香), 백지(白芷), 소나무, 애납향(艾納香), 향부자(香附子), 현삼(玄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용, 향장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방향식물(芳香植物)로는 백단향(白檀香), 영릉향(安息香), 모향(茅香), 향유(香薷) 등이 있는데, 고문헌의 기록 중 피부미용 및 향장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므로, 향후 전체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피부자극이 없으며, 향기가 좋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을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자원 식물을 추가 탐색의 필요가 있다.

표 23.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고문헌(古文獻)상 용도별 효용성

종류	용도	치료 용	의식 용	음식 활용			생활에 활용			미용 및 향장
				약이	향신료	가향	보존	방충	방향	
정향(丁香)		○	○	○	○	○	○		○	
자단향(紫檀香)		○	○			○	○			
백단향(白檀香)		○	○			○	○	○	○	○
안식향(安息香)		○							○	
영릉향(安息香)		○	○				○		○	○
곽향(藿香)		○				○			○	○
회향(茴香)		○			○		○			
백교향(茴香)		○								
청목향(青木香)		○								
모향(茅香)		○	○				○			○
강활(羌活)		○								
고본(藁本)		○							○	
구기자(枸杞子)		○				○				
냉이꽃		○						○		
당귀(當歸)		○				○				
독활(獨活)		○								
목향(木香)		○	○		○				○	
방풍(防風)		○								
백급(白芨)		○								
백렴(白蘘)		○								
백지(白芷)		○					○		○	
부평(浮萍)		○						○		
사상자(蛇床子)		○								
세신(細辛)		○								
소나무		○		○		○			○	
쭈		○				○		○		
신이화(辛夷花)		○					○			
애남향(艾納香)		○							○	
오가피(五加皮)		○		○						
울금(鬱金)		○	○							
연(蓮)		○				○				
작약(芍藥)		○				○				
제비꽃		○								
지각(枳殼)		○								
지황(地黃)		○		○						

종류	용도	치료 용	의식 용	음식 활용			생활에 활용			미용 및 향장
				약이	향신료	가향	보존	방충	방향	
창출(蒼朮)		○								
창포(菖蒲)		○						○		
천궁(川芎)		○					○	○		
천오(川烏)		○								
천초(川椒)		○				○				
청호(靑蒿)		○						○		
측백(側柏)		○				○				
침		○		○		○		○		
하수오(何首烏)		○								
향부자(香附子)		○							○	
향유(香薷)		○								
현삼(玄蔘)		○							○	
황기(黃芪)		○		○						
황련(黃連)		○								
황백(黃柏)		○								
겨자		○		○						
계피(桂皮)		○				○				
고수		○		○						
국화(菊花)		○				○				
귤피(橘皮)		○		○	○	○				
도화(桃花)		○				○				
들깨		○		○						
마늘		○		○	○					
박하(薄荷)		○			○	○				
부추		○		○						
산초(山椒)		○		○	○					
생강(生薑),		○		○	○	○				
소회향(小茴香)		○			○					
유자(柚子)		○				○				
자소(紫蘇)		○		○	○	○				
진달래꽃		○				○				
참깨		○		○	○	○				
과		○		○	○		○			

## 2)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 관련 연구 검색

한국 향기요법에 사용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 연구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상기 69종의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국내 연구를 RISS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국내 연구 중 상기 69종의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이름이 ‘제목’ 또는 ‘주제어’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를 대상으로 검색하고, 본문 내용 대조를 통하여 중복, 동음이의어, 관련성이 없는 연구를 제외하여 1차 검색하였다. 1차 검색 결과가 너무 방대하므로 그 중 학위논문, 단행본, 연구 보고서 등을 제외하고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2차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인문학, 사회, 경제학 분야의 연구와 식물의 육성, 재배, 품종 등에 관한 원예, 농업 분야의 연구를 제외하고, 방향식물(芳香植物) 속 유효 성분의 정량(定量), 정성(定性) 분석(分析) 및 유효성분 탐색 등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성분에 관련된 연구의 수와 기능성 및 약리적 효과 등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의 수로 나누어 3차 검색한 결과는 표 22와 같았다.

이 중 효용성에 관련된 연구의 수가 50편이 넘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은 정향(丁香), 구기자(枸杞子), 천궁(川芎), 소나무, 쑥, 오가피(五加皮), 울금(鬱金), 지각(枳殼), 지황(地黃), 황백(黃柏), 계피(桂皮), 마늘, 유자(柚子) 등이 있었으며, 특히 구기자(枸杞子), 소나무, 쑥, 들깨, 마늘 등 생활과 친숙한 방향식물(芳香植物)에 관한 효용성 연구는 100편 이상으로 유효성분 및 약리작용에 대한 기본 연구 뿐 아니라 저장, 가공, 보관법에 따른 성분 및 효능의 변화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곱향(藿香), 회향(茴香), 냉이, 백급(白芨), 도화(桃花)처럼 식물학적 특성이나 재배에 관한 연구 및 품질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효용성에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부족한 식물들도 있었으며, 백교향(白膠香), 애납향(艾納香)처럼

고문헌에는 있으나 아예 연구 자체가 진행된 바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효용성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수가 10편 미만인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零陵香), 곽향(藿香), 회향(茴香), 백교향(白膠香), 청목향(靑木香), 냉이, 모향(茅香), 백급(白芨) 백렴(白蘘), 부평(浮萍), 사상자(蛇床子), 신이화(辛夷花), 애납향(艾納香), 제비꽃, 창출(蒼朮), 천초(川椒), 청호(靑蒿), 고수, 도화(桃花), 소회향(小茴香), 진달래꽃 등 24종의 방향식물은 향후 한국적 향기요법 및 향기관련 산업의 자원식물로서의 가능성을 추가 탐색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24.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에 대한 국내 연구의 수

방향식물	학술지 논문(수)	성분관련 논문(수)	효용성관련 논문(수)
정향(丁香)	120	4	59
자단향(紫檀香)	7	1	4
백단향(白檀香)	12	0	3
안식향(安息香)	5	2	1
영릉향(零陵香)	2	1	1
곽향(藿香)	41	2	10
회향(茴香)	21	3	9
백교향(白膠香)	0	0	0
청목향(靑木香)	6	5	1
모향(茅香)	8	1	2
강활(羌活)	67	12	18
고본(藁本)	29	8	13
구기자(枸杞子)	363	33	139
냉이꽃	31	9	11
당귀(當歸)	502	19	275
도꼬마리	19	2	9
독활(獨活)	45	4	18
목향(木香)	44	10	32
방풍(防風)	35	5	16
백급(白芨)	65	2	3
백렴(白蘘)	8	2	6
백지(白芷)	30	5	17
부평(浮萍)	14	1	2
사상자(蛇床子)	19	6	10
세신(細辛)	30	4	19
소나무	1,621	7	104
쭈	251	41	194
신이화(辛夷花)	20	6	6
애남향(艾納香)	0	0	0
오가피(五加皮)	280	11	51
울금(鬱金)	325	53	235
연(蓮)	535	25	207
작약(芍藥)	329	20	112
제비꽃	93	5	10

방향식물	학술지 논문(수)	성분관련논문(수)	효용성관련 논문(수)
지각(枳殼)	63	17	67
지황(地黃)	225	19	53
창출(蒼朮)	26	3	9
창포(菖蒲)	66	9	24
천궁(川芎)	119	12	57
천오(川烏)	38	4	30
천초(川椒)	57	23	32
청호(靑蒿)	9	6	3
측백(側柏)	49	7	20
쑤	116	3	29
하수오(何首烏)	62	27	27
향부자(香附子)	62	5	14
향유(香薷)	30	5	5
현삼(玄蔘)	69	6	18
형개(荊芥)	30	6	12
황기(黃芪)	114	12	46
황련(黃連)	41	4	32
황백(黃柏)	60	5	50
겨자	127	18	32
계피(桂皮)	115	15	43
고수	25	4	9
국화(菊花)	1,474	5	22
귤피(橘皮)	34	5	25
도화(桃花)	60	0	5
들깨	1,050	30	139
마늘	1784	42	101
박하(薄荷)	74	3	13
부추	78	9	16
산초(山椒)	59	15	24
생강(生薑)	238	16	40
소회향(小茴香)	26	0	10
유자(柚子)	169	18	55
자소(紫蘇)	38	8	13
진달래꽃	175	8	10
참깨	572	28	30
과	110	5	11

### 3) 24종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 고찰

국내 발표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된 24종의 국내산 芳香植物은 현재 진행된 국내 연구의 수는 부족하나 《東醫寶鑑》, 《林園十六志》, 《山林經濟》, 《閨閣叢書》, 《食療纂要》 등 한국 고문헌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던 기록이 있어 현재 향기요법 및 향기관련 산업의 소재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종의 국내산 芳香植物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내용과 고문헌에 기록된 효용성을 비교하고, 향후 향기요법에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자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1) 자단향(紫檀香)

자단향(紫檀香)과 백단향(白檀香)의 원료가 되는 단향(檀香)은 원래는 아열대성 기후인 인도 및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상록 소교목인 샌달우드(*Santalum album*)를 뜻한다.(정수일, 2013) 그러나 향이 있는 유사 수종을 모두 단향(檀香)이라고 하는 바, 크게 백단(白檀) · 황단(黃檀) · 자단(紫檀) 3종류로 나뉘며, 약 8종의 관련 수종(樹種)이 있다.(정수일, 2013) 한의학에서는 대개 자단(紫檀)은 콩과 식물인 *Pterocarpus indicus*로 소개하고 있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Pterocarpus indicus*는 향기가 있는 상록 소교목으로 남인도 및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로즈우드(rosewood) 또는 붉은 산달나무[red sandal tree]라고 알려져 있으며 약용으로 사용되는 방향식물이다.(세화편집부, 2001) 고려시대까지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자단향(紫檀香)을 궤공(厥貢)하는 지역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 조선조 이후 향약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자단의 재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이애련 등, 2012) 그러나 단향(檀香)의 재배 기후가 아열대성임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비슷한 수종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토산 자단향(紫檀

香)은 국내에 서식하는 향나무 종류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목부(木部)의 자단향(紫檀香)에 대한 설명에 ‘우리나라에는 강원도에 많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으로 보아 수입 자단(紫檀)이 아닌 국산 자단(紫檀) 즉 향나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단의 효용성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자단(紫檀)의 체초제로서의 항균활성(김지연 등, 2012) 및 해충에 대한 방제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천용식 등, 2015) 그러나 자단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향나무에 대한 효용성 연구 중에는 피부에 대한 항균, 항산화 및 각질세포 보호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유민정 등, 2010) 해충 기피 효과에 관한 연구(남기연 등, 2013; 이경호 등, 2012) 및 암전이 억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이경호 등, 2012)

고문헌에 기록된 효용에는 《東醫寶鑑》에서 부기를 가라앉히고, 출혈과 통증을 멎게 하며 광란(霍亂), 종독(腫毒), 다쳐서 피가 나는데 등에 쓴다고 되어있다. 또한 《朝鮮王朝實錄》에 각종 국가 의례 및 연회 등의 자리에서 발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林園十六志》에는 침향(沉香) 또는 단향(檀香)을 기와를 깨끗이 씻어 올려놓은 뒤 불에 달구어 빨갱게 된 후 병에다 대고 향이 녹을 때 재빨리 끓는 물을 넣어 밀봉하여 마시는 음료인 침향숙수(沉香熟水)에 사용하였으며, 의류 등을 보존하는 의향(衣香)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고문헌에 기록된 자단향이 수입 자단인지 국산 자단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국산 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향나무류에 대한 상기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5. 자단향(紫檀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Santalum album</i> 또는 향나무 속에 속하는 다수종
이명		자진단(紫眞檀) · 자단향(紫檀香)
사용부위		목재
고문헌상 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기를 가라앉힌다</li> <li>• 출혈과 통증을 멎게 한다.</li> <li>• 꺾임</li> <li>• 종독(腫毒)</li> <li>• 다쳐서 피가 나는데 쓴다.</li> </ul>
	의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례의식, 연회 등</li> </ul>
	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향숙수(沉香熟水)</li> </ul>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류의 보존(의향 제작)</li> </ul>
현대적 활용가치		부종, 지혈, 습진, 여드름, 향수, 방향제

## (2) 백단향(白檀香)

백단향(白檀香)은 자단향(紫檀香)과 마찬가지로 수입 향재(香材)였으나 조선조에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궤공(厥貢)했다고 나온다.(이애련 등, 2012) 원래는 인도 및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백단과의 상록 고목인 백단(白檀) 나무의 심재(心材)를 말린 것이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백단향 역시 자단향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향나무 종류 중 하나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추출방법에 따른 항산화와 생리활성에 대한 김태훈의 연구가 있고, (김태훈, 2008), 항혈소판 응집 및 혈전 용해능에 관한 연구가 있다.(송영위 등, 2012)

백단향에 대한 고문헌 자료에서는 《東醫寶鑑》에 다양한 활용법이 나오는데, 치료용으로는 명치와 배가 아픈 데, 토하는 데, 연하곤란(dysphagia), 산통(疝痛), 악취를 맡아 피부색에 검어진 데 쓴다고 되어 있으며, 《林園十六志》, 《東醫寶鑑》, 《閨閣叢書》에 의류보존이나 벌레를 죽이는 데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에 각종 제례, 의식에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으며, 또한 《東醫寶鑑》에 피부 스크럽용으로 쓰는 향비조(香肥皂)의 재료로 쓰였고, 《閨閣叢書》에는 몸에 지니거나 피워 공기 중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하는 호신향(護身香)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다.

향후 소화 및 통증 관련 치료 및 피부미용, 향수, 방향제 등에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 백단향(白檀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Santalum album L.</i>
이명		단향(檀香)
사용부위		목재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산화와 및 생리활성(김태훈, 2008)</li> <li>• 항혈소판 응집 및 혈전 용해능.(송영위 등, 2012)</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치와 배가 아픈 데, 토하는 데,</li> <li>• 연하곤란(dysphagia)</li> <li>• 산통(疝痛) 등에 쓴다.</li> <li>• 악취를 맡아 피부색에 검어진 데 쓴다.</li> <li>• 계절성 급성 전염병</li> </ul>
	의식용	• 불교의식용, 장례 및 각종 의례용
	가향용	• 침향숙수
	보존용	• 의류의 보존(의향 제작)
	방충용	• 벌레를 죽인다.
	방향용	• 몸을 보호하는 향수
	미용, 향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 스크럽용으로 쓴다.</li> <li>• 각종 복합향의 제조에 쓴다.</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식체, 구토, 소화, 통증, 방충, 피부정화, 피부미용, 향수, 방향제

### (3) 안식향(安息香)

안식향(安息香)은 때죽나무과의 안식향(安息香)나무 또는 동속 식물에서 얻은 수지를 말한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산지는 자바·수마트라·베트남·타이 등 아열대성 기후 식물이다. 원래는 수입약재이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길도 등 거의 전국에 걸쳐 토산약재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 질도 매우 좋다고 되어 있다.(이애련 등, 2012) 그러나 수입 향재(香材)와 같은 수종의 안식향나무 [Siam Benzoin]에서 채취한 것이 아니고 붉나무의 진, 즉 윗나무과의 낙엽 관목인 오배자나무 [Japanese sumac]의 수지에서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이애련 등, 2012) 그러나 안식향나무에 대하여 일부 황칠나무와 혼동이 있는데, 이는 《海東農書》와, 《增補山林經濟》의 기록 중 붉나무를 설명하면서 붉나무의 수지(樹脂)로 안식향(安息香)을 만들고, 그 즙으로 황칠(黃漆)을 만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서 황칠을 만드는 또 다른 수종인 황칠나무와 혼동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황칠(黃漆)은 황금색을 띠는 옷칠과 비슷한 뜻으로 쓰인 것으로 붉나무 즙과 황칠나무 즙 모두 목재 등에 사용했던 도료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나무 모두 향기성분인 휘발성 정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자원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붉나무의 경우, 국내 연구에서는 붉나무 자체에 대한 연구와 붉나무에 생기는 벌레집인 오배자(五倍子)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22편, 후자의 경우는 82건으로 오배자에 대한 연구가 훨씬 많다. 오배자는 붉나무 잎에서 만들어지는 벌레혹으로 오배자 역시 약재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휘발성 방향성분은 오배자가 아닌 붉나무의 진에서 얻어지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붉나무에 관한 연구로는 붉나무 수피 성분에 관한 연구(김미정 등, 1999), 발효 붉나무 성분에 대

한 연구(이동성 등, 2013), 붉나무 수피 추출물에서의 항산화 물질의 분리와 동정에 대한 연구(오지영 등, 2003), 붉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와 항균 효과에 대한 연구(Chun et al, 2004; Cha et al, 2000), 붉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Synergist 첨가 효과 연구(장영상 등, 1992) 붉나무 추출물이 식용유지에 미치는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최웅 등, 1992; 신동화 등, 1992) 등이 있어 주로 항균 및 항산화 효과와 식용 유지 첨가에 있어서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붉나무의 사용 부위가 수피인 것(오지영 등, 2003; 최웅 등, 1992; 장영상 등, 1992; 김미정 등, 1999), 수피를 제외한 전체인 것(장영상 등, 1992; , 추출부위를 구분하지 아니한 것(Cha et al, 2000; 이동성 등, 2013) 등 붉나무의 진액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향후 붉나무 수지의 향기성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고문헌에서는 《東醫寶鑑》에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하며 정신혼몽, 명치통, 복통, 산후혈운, 기침, 소아경간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林園十六志》, 《東醫寶鑑》에 취선향(聚仙香) 등의 재료로 계절성 급성 전염병을 위한 향기요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https://mediclassics.kr>) 따라서 붉나무 수지의 향균 및 진통, 진정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향균 관련 방향용품, 향수 및 세정제, 보존제 등의 재료로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붉나무와 혼동이 있는 황칠나무 역시 다른 종이기는 하나 휘발성 정유 성분을 소지한 방향식물 자원으로서 향후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7. 안식향(安息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안식향 나무 - <i>Styrax benzoin Dryander</i> 붉나무 - <i>Rhus javanica</i>
이명		벤조인(benzoin) 또는 붉나무 진(붉나무의 異名에는 부목(膚木), 염부목(鹽膚木), 천금목(千金木) 등이 있다.
사용부위		나무의 수지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항산화 및 항균효과(Chun et al, 2004; Cha et al, 2000; 장영상 등, 1992; 최웅 등, 1992; 신동화 등, 1992)
고문헌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을 안정</li> <li>•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li> <li>• 정신혼몽</li> <li>• 명치통</li> <li>• 복통</li> <li>• 산후혈운</li> <li>• 기침</li> <li>• 소아경간</li> </ul>
	방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향의 제조에 쓴다.(취선향)</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진정, 혈액순환, 기침, 향수, 방향제, 보존제

#### (4) 영릉향(零陵香)

영릉향(零陵香)은 봄맞이꽃과 식물인 *Lysimachia foenumgraecum* Hance의 전초를 사용한다. 중국 남부에서 재배되는 수입약재이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경상도, 전라도 제주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다.(이애련 등, 2012)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다른 이름은 훈초(薰草) · 혜초(蕙草) · 영향초(靈香草)이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까치수염이라고 한다.

영릉향에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영릉향으로부터 분리된 Foenumoside B의 부위별 함량비교 연구(엄영란 등, 2014)와 ‘MCF-7 유방암 세포에서 영릉향 추출물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관한 연구(이세희 등, 2013)가 있다.

《東醫寶鑑》에는 풍한감모(風寒感冒), 명치와 배가 불러 오르면서 아픈데, 치통, 설사, 유정(遺精) 등에 쓴다고 되어 있으며 《林園十六志》, 《東醫寶鑑》, 《閨閣叢書》에 의향, 각종 복합향의 재료로 사용되며, 몸을 향기롭게 하는 법, 거친 얼굴을 매끄럽게 하는 법 등에 사용된 기록이 있어 감기, 치통, 소화기 문제, 향수, 방향제, 의류 보존, 비누, 세정용품의 재료로서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영릉향(零陵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Lysimachia foenumgraecum</i> Hance
이명		훈초(薰草) · 혜초(蕙草) · 영향초(靈香草)
사용부위		전초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암효과(이세희 등, 2013)</li> </ul>
고문헌상 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한감모(風寒感冒)</li> <li>• 명치와 배가 불러오르면서 아픈 데</li> <li>• 치통</li> <li>• 설사</li> <li>• 유정(遺精)</li> <li>• 피부질환</li> </ul>
	의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향의 제조에 쓴다.(취선향, 부용향, 호신향)</li> </ul>
	보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의 제조에 쓴다</li> </ul>
	미용 및 향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크립용으로 쓴다(향비고)</li> <li>• 목욕용으로 쓴다</li> </ul>
현대적 활용가치		감기, 치통, 소화기 문제, 향수, 방향제, 의류 보존, 비누, 세정용품

##### (5) 곽향(藿香)

곽향(藿香)은 배초향(排草香)의 지상부를 사용해 만든 약재이다. 고려시대에는 송(宋) 나라에서 수입했던 기록이 있으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라도 지역의 토산 약재로 기록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로는 곽향(藿香)의 향기성분에 관한 연구가 있고,(신민교 등, 1996) 장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정수 등, 2005) 천식개선 효과(강석용 등, 2015), 항산화 효과(홍세철 등, 2008; 김승현 등, 2005), 항염효과(이승연 등, 2006; 배기상, 2008), 항암효과(이상건 등, 2004), 간세포 보호 효과(장미희 등, 2015), 항비만 효과(김용민 등, 2015) 등에 관한 연구가 있어 주로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고문헌에는 《東醫寶鑑》에서 복부창만,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소화장애를 동반한 감기, 구취, 옴이나 버짐, 각종 종기, 여드름, 건조한 피부로 인한 가려움증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주로 소화기 장애와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林園十六志》, 《閨閣叢書》에 절임류 등 음식에 향신료로 사용되었으며, 술에 향을 대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東醫寶鑑》, 《閨閣叢書》에 의향의 제조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農政會要》에 머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바르는 일종의 머릿기름인 향택(香澤)의 재료 중 하나에 들어간다는 기록이 있어 미용 및 모발관리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현대의 활용분야에서는 소화기 문제 및 피부질환에 관련된 치료용이나 구취제거용품, 피부미용, 모발관리 제품, 습진, 여드름, 향수, 방향제, 음식향, 향신료 등의 재료로서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9. 곱향(藿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Agastache rugosa (Fisc.r et Mey.) Kuntze</i>
이명		토곽향(土藿香), 배초향(排草香), 방애잎, 중개풀, 방아풀
사용부위		지상부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운동 개선효과(이정수 등, 2005)</li> <li>• 천식개선 효과(강석용 등, 2015),</li> <li>• 항산화 효과(홍세철 등, 2008; 김승현 등, 2005),</li> <li>• 항염효과(이승연 등, 2006; 배기상, 2008),</li> <li>• 항암효과(이상건 등, 2004),</li> <li>• 간세포 보호효과(장미희 등, 2015),</li> <li>• 항비만 효과(김용민 등, 2015) 등</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부창만</li> <li>• 식욕부진,</li> <li>• 메스꺼움,</li> <li>• 구토,</li> <li>• 설사,</li> <li>• 소화장애를 동반한 감기,</li> <li>• 구취,</li> <li>• 옴이나 버짐</li> <li>• 각종 종기, 여드름, 피부병, 가려움증</li> </ul>
	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li> <li>• 향신료</li> <li>• 절임류</li> </ul>
	보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의 제조에 쓴다</li> </ul>
	미용 및 향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크럽용으로 쓴다(향비고)</li> <li>• 머릿기름 제조의 재료 중 하나(향택)</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소화기 장애, 구취제거용품, 피부미용, 습진, 여드름, 가려움증, 향수, 방향제, 음식향, 향신료

## (6) 회향(茴香)

회향(茴香)은 산형화과 식물인 *Foeniculum vulgare*이며 익은 씨앗을 사용한다. 조선시대 세종(世宗) 21년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인 제생원(濟生院)을 설치하여 여러 약재를 직접 심고 가꾸도록 하였으며, 외국산을 대용할 향약(鄉藥)의 지속적인 시험재배를 행하였다. 회향(茴香) 역시 원래는 외래종인 약재였으나 이 때 재배된 종양약재(種養藥材) 중의 하나로 보인다. (이애련 등, 2012)

회향의 영명은 펜넬(Fennel)로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허브 중 하나이다.(박권우, 2007) 국외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의 연구로는 성분에 관한 연구(이현수 등, 2003; 박소이 등, 2010), 항비만 효과에 관한 연구(서동주 등, 2010)항염 효과에 관한 연구(허성규 등, 2013; 양인준 등, 2014), 간장기능 회복 효과에 관한 연구(이장천 등, 2010), 피부보호 기능에 관한 연구(유학인 등, 2015), 식품 첨가시 효능에 관한 연구(최은미 등, 2004; 박추자 등, 2006), 방충향낭 개발에 관한 연구(이수현 등, 2013) 등이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신장 및 방광병, 구취제거, 산통(疝痛), 진경(鎮驚) 작용, 곽란·오심, 뱃속이 불편한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林園十六志》, 《閨閣叢書》에는 무, 가지, 당근, 배추 등의 절임류에 첨가하여 향과 보존성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데 사용하였다고 되어있다. 또한 《東醫寶鑑》, 《閨閣叢書》에 의향(衣香)의 제조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회향의 효용성은 기존 연구와 고문헌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신장 질환, 발작성 복통, 진경, 소화기 장애 등의 치료용이나 구취제거 제품, 음식향, 향신료,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항비만 효과와 피부보호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 미용, 건강 분야의 중

은 소재가 될 수 있는 방향식물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30. 회향(茴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Foeniculum vulgare</i>
이명		펜넬
사용부위		씨앗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비만 효과(서동주 등, 2010)</li> <li>• 항염 효과(허성규 등, 2013; 양인준 등, 2014)</li> <li>• 간장기능 회복 효과(이장천 등, 2010)</li> <li>• 피부보호 기능(유학인 등, 2015)</li> <li>• 식품 첨가시 효능(최은미 등, 2004; 박추자 등, 2006),</li> <li>• 방충향낭 개발(이수현 등, 2013)</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장 및 방광병</li> <li>• 입냄새 제거</li> <li>• 산통(疝痛), 진경(鎮驚) 작용</li> <li>• 객란</li> <li>• 오심, 배속이 불편한 것</li> </ul>
	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향신료</li> </ul>
	보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의 제조에 쓴다</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신장 질환, 발작성 복통, 진경, 소화기 장애, 구취제거 제품, 음식향, 향신료, 보존제

### (7) 백교향(白膠香)

백교향(白膠香)은 단풍나무의 수지(樹脂)를 의미하며 다른 말로 풍향지(楓香脂)라고도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충청도,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하였다.(이애런 등, 2012) 한의학에서는 백교향의 학명을 *Liquidambar formosana*로 지칭하고 있는데(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이 수종은 대만풍나무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역에서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종으로 원래부터 자생하는 수종은 아니다.(<http://www.naris.go.kr>) 따라서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언급한 풍향지(楓香脂)는 중국 등의 수입약재로 사용되었던 것을 국내에서 자생하는 다른 종류의 국산 단풍나무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백교향(白膠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그러나 단풍나무에 관한 국내 학술지 연구는 66편이 검색되는데 이 또한 모두 단풍나무의 수목적 특성이나 재배에 관련된 사항이고 유일하게 이서운 등의 ‘한국산 단풍나무속 식물의 당에 관한 연구’가 단풍나무의 성분에 관한 연구인데(이서운 등, 1974), 이것도 단풍나무의 진액이 아닌 줄기의 당 성분에 대한 연구이므로 방향성분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백교향(白膠香)은 송진(松津), 유향(乳香) 등처럼 나무의 수지향(樹脂香)으로, 치료 효과도 《東醫寶鑑》에 종기(腫氣)를 사라지게 하고. 이질(痢疾)을 멈추게 하며, 폐(肺)를 보(補)하며 지혈(止血)작용이 있으며 살이 생기도록 해주는 약재라 하여 주로 피부, 습진, 치질 및 치루, 상처치유 등에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문헌에는 위와 같이 사용례가 보이는 반면 백교향(白膠香)의 효용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백교향(白膠香)을 소재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상처치료 및 피부재생 효과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피부미용과 관련된 국내 방향식물(芳香

植物) 자원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표 31. 백교향(白膠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Liquidambar formosana</i> 또는 단풍나무 속의 다른 식물들
이명		풍향지(楓香脂)
사용부위		나무의 진액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기(腫氣)의 치료</li> <li>• 가려움증</li> <li>• 치통</li> <li>• 지혈(止血)작용</li> <li>• 치질, 치루의 치료</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종기, 습진, 지혈, 피부질환, 상처치료 및 피부재생, 치질, 치루

## (8) 청목향(靑木香)

청목향(靑木香)은 방울풀과 식물인 쥐방울 덩굴(*Aristolochia debilis Siebold et Zuccarini*)의 뿌리이다. 청목향(靑木香)은 세종실록지리지에 종양약재(種養藥材)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경기도, 경상도, 황해도 지역에서 재배되었다고 하였다.(이애련 등, 2012) 이애련 등의 연구에서는 청목향(靑木香)의 다른 이름을 마두령(馬兜鈴)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나, 청목향(靑木香)은 방울풀의 뿌리를, 마두령(馬兜鈴)은 방울풀의 열매를 의미하므로 사용부위 및 성분, 효능에 차이가 있다.(솔피, 2010) 청목향(靑木香)의 다른 이름에는 운남근(雲南根) · 독행근(獨行根) · 토청목향(土靑木香)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 각지 산기슭의 양지에서 자란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국내 연구로는 청목향의 성분에 관한 연구(정보섭 등, 1989; 이흠숙, 1990; 한 대석 등, 1993; 이흠숙 등, 1994)가 있고, F344 랫드에 대한 독성 연구가 있었다.(김충용 등, 2005) 《東醫寶鑑》에는 주로 구강복용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일부 피부 적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청목향의 구강복용 시 독성에 관한 연구(김충용 등, 2005)를 고려할 때 구강복용이 아닌 피부적용 등 외용법이 보다 다양한 제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용법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東醫寶鑑》에 가슴이 그득하고 헛배가 불러 오르며 아픈 데, 장염, 응종(癰腫), 뱀에 물린 상처, 정창(疔瘡), 피부 소양증, 혈치(血痔)와 누창(瘻瘡) 등에 쓴다고 되어 있다.

현대적 용도로는 소화기 질환, 지혈, 피부질환 등 치료에 관한 용도와 화장품 등 피부 관련 제품의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표 32. 청목향(靑木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Aristolochia debilis Siebold et Zuccarini</i>	
이명	운남근(雲南根) · 독행근(獨行根) · 토청목향(土靑木香)	
사용부위	뿌리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성 연구(김충용 등, 2005)</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에 추위를 느끼는 경우</li> <li>• 가슴이 그득하고 헛배가 부르며 아픈 데</li> <li>• 장염</li> <li>• 지혈</li> <li>• 뱀에 물린 상처(snakebite),</li> <li>• 용종(癰腫), 정창(疔瘡),</li> <li>• 피부 소양증</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소화기 질환, 지혈, 피부질환, 화장품 등 피부관련 제품	

### (9) 모향(茅香)

모향(茅香)은 벼과 식물인 *Hierochloe odorata Beauv.*의 전초를 말린 것이다.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충청도, 경상도 지역의 토산 약재로 되어 있다.(이애련 등, 2012)

모향(茅香)의 학명에 대해서는 벼과 식물인 띠풀(*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http://encykorea.aks.ac.kr>), 띠풀은 향기가 나지 않으므로 방향식물로서의 모향(茅香)은 일반 띠풀이 아닌 향모(香茅)를 의미하며 따라서 원산지가 중국인 모향(*Hierochloe odorata Beauv.*)를 지칭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향(茅香)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띠풀(*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에 대한 연구이고, 방향식물인 모향(*Hierochloe odorata Beauv.*)에 대한 연구는 ‘향모(*Hierochloe odorata Beauv.*)의 휘발성 향기화합물’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연보람 등, 2011) 연보람 등은 상기 연구를 통하여 모향의 정유를 추출하고 향기에 대한 향취 평가와 함께 함유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정성, 정량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향장품 및 아로마테라피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모향(茅香)의 향기성분 분석 외에 약리적 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모향(茅香)의 효용성에 대한 고문헌자료 중 《東醫寶鑑》에 모향의 꽃인 모향화(茅香花)는 토하는 것과 코피 나는 것을 멎게 하고, 구창(灸瘡)과 쇠불이에 상한 데 붙여 피를 그치게 하고 통증을 멎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모향(茅香)의 뿌리를 달인 물에 목욕하면 사기(邪氣)를 쫓고 몸에서 향내가 난다고 하였다. 또한 만성 위장병, 폐결핵, 열성 질병의 치료에 사용된다고 되어 있다. 《食療纂要》에는 황달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朝鮮王朝實錄》 기록 중 의식에 많이 사용된 부용향(芙蓉香)의 재료 중 하나이며, 《閩閩叢書》, 《東醫寶鑑》 등에 의향(衣香)의 재료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고문헌의 자료와 국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향의 현대적 적용방법을 모색해보면, 상처치료와 지혈, 위장병이나 폐결핵 등의 치료와 각종 방향제 품 및 향수, 화장품 등의 재료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3. 모향(茅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Hierochloe odorata Beauv.</i>
이명		백모향(白茅香), 향모
사용부위		전초(全草)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
고문헌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 위장병</li> <li>• 폐결핵</li> <li>• 열성 질병</li> <li>• 황달에 사용</li> <li>• 모향화(茅香花)-명치와 배가 차면서 아픈 데, 토하는 데, 땀으로 인해서 상처가 덧난 데, 상처의 지혈, 가려움증의 치료</li> </ul>
	의식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향의 제조에 쓴다.(부용향)</li> </ul>
	보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의 제조에 쓴다</li> </ul>
	미용 향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의 냄새를 없애고 향기롭게 할 때 쓴다</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위장병, 폐결핵, 가려움증, 피부질환, 향수, 방향제, 의류보존제

## (10) 냉이

냉이는 한국에서 어린 순·잎과 뿌리 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봄나물 중 하나이다. 학명은 *Capsella bursa-pastoris*이며 나생이·나승게라고도 한다.(솔피, 2010) 한약재로는 제채(薺菜)하고 하고 냉이씨를 제자(薺子) 또는 제채자(薺菜子)라고도 부른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냉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식재료로서 식품영양학의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냉이의 채취 시기 및 지역에 따른 풍미성분에 대한 연구(이미순 등, 1993), 지역에 따른 냉이의 아미노산 함량 분포에 대한 연구(이윤정 등, 2014), 냉이의 지방성분에 대한 연구(배만중, 1987)가 있고 향기성분에 대한 연구로 냉이의 식용부위별 휘발성 향기성분에 대한 연구(이미순 등, 1996; 최향숙 등, 2006), 연속증류추출시 추출용매가 냉이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미치는 영향(최향숙 등, 1998), 건조방법에 따른 냉이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관한 연구(이미순 등, 1996) 등이 있다. 냉이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로는 냉이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김진희 등, 1994; 홍정일 등, 1994; 곽재혁 등, 1996; 양한철 등, 1995)가 있고,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임현아 등, 2009), 김치에 첨가시 숙성 품질 등에 관한 연구(정외숙 등, 2004; 이신호 등, 2006)가 있다. 냉이의 약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중독성 간질환에 대한 냉이의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김한섭 등, 1987) 향미성분과 영양성분, 항균 및 항산화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졌으나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고문헌 중 《東醫寶鑑》에는 냉이씨가 이질, 이뇨, 지혈, 해독의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으며, 냉이꽃은 즙을 예방한다고 되어있다. 《閨閣叢書》에는 냉이꽃이 벼룩을 없앤다고 되어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적 활용가치를 검색해보면, 나물로서의 역할 외에 설사, 해독, 지혈, 이뇨 등의 치료효과와 방충 제품의 자원식물로서 가

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34. 냉이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Capsella bursa-pastoris</i>
이명		나생이 ·나송개, 제채(薺菜)
사용부위		꽃, 냉이씨(薺子), 줄기, 잎, 뿌리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산화 효과(김진희 등, 1994; 홍정일 등, 1994; 광재혁 등, 1996; 양한철 등, 1995)</li> <li>• 항균효과(임현아 등, 2009)</li> <li>• 김치 첨가시 숙성 품질 개선 효과(정외숙 등, 2004; 이신호 등, 2006)</li> <li>• 중독성 간질환 치료효과(김한섭 등, 1987)</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질</li> <li>• 이뇨</li> <li>• 지혈</li> <li>• 해독</li> <li>• 안질</li> </ul>
	방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이꽃-좀을 쫓는다</li> <li>• 냉이꽃-벼룩을 쫓는다</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줄기, 뿌리, 잎, 씨앗-이질, 이뇨, 지혈, 해독, 안질

(11) 백급(白芨)

백급(白芨)은 난초과 식물인 자란(*Bletilla striata* (Thunb.) Reichb. f)의 덩이줄기를 사용한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백급(白芨)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은 65편 정도 검색되었으나 대부분 식물학 분야에서의 연구였고, 성분 및 효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1982년 백급(白芨)의 덩이줄기로부터의 간흡충에 대한 살충성 물질 분획에 대한 연구(李宰求 등, 1982) 이후 10여년 이상 별다른 연구 성과가 없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효용성 관련 연구가 발표되는데, 백급(白芨)의 멜라닌 생성 억제에 대한 *in vivo* 실험 연구가 있었고(리순화 등, 2007), 백급(白芨)으로 처리된 직물의 항미생물 효과에 관한 연구(Baek, 2012), 백급(白芨)의 파이토케미칼 성분과 세포독성에 관한 연구(Woo et al, 2014) 및 백급(白芨)의 항산화, 항염 효과와 화장품 소재로서의 연구(윤지훈 등, 2013)가 있었다. 백급의 효용성에 대한 국내 연구의 수는 적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백급의 적용분야가 넓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문헌자료에서는 《東醫寶鑑》에 각종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지혈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였고, 부기를 가라앉히고 새살이 돌아나게 한다고 하였다. 치료분야는 객혈, 코피, 외상성 출혈, 용종(癰腫), 창양(瘡瘍), 화상, 손발이 트는 데 등에 쓸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東醫寶鑑》과 《閨閣叢書》에 사기(邪氣)를 제거하고 몸을 보호하는 부용향(芙蓉香), 취선향(聚仙香)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기(邪氣)를 제거한다는 것은 공기 중 바이러스나 균에 의한 감염을 막는 의미라 유추할 수 있으므로 항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5. 백급(白芨)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Bletilla striata</i> (Thunb.) Reichb. f
이명		감근(甘根) · 백급(白芨) · 연급초(連及草)
사용부위		괴경(塊莖)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흡충에 대한 살충효과(李宰求 등, 1982)</li> <li>•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리순화 등, 2007)</li> <li>• 항미생물 효과(Baek, 2012)</li> <li>• 세포독성(Woo et al, 2014)</li> <li>• 항산화, 항염 효과 및 화장품 소재 가능성(윤지훈 등, 2013)</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혈</li> <li>• 코피</li> <li>• 외상성 출혈</li> <li>• 옹종(癰腫)</li> <li>• 창양(瘡瘍)</li> <li>• 화상손발이 트는 데</li> </ul>
현대적 활용가치		객혈, 코피, 외상성 출혈 등 지혈효과, 피부질환 및 상처치유 관련 제품, 피부보호 관련 제품, 향균, 보존용 제품

(12) 백렴(白蘗)

백렴(白蘗)은 포도과 식물인 가회톱(*Ampelopsis japonica Mak.*)의 뿌리를 사용한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백렴(白蘗)에 대한 국내 연구의 양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중 백렴(白蘗)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백렴으로부터 항산화 물질의 분리와 Matrix Metalloproteinase-1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Cho et al, 2005; 조영호 등, 2005)와 백렴의 항암효과 관련하여 백렴(白蘗) 추출물이 종양면역(腫瘍免疫)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박승만 등, 2005), 폐암세포에서의 백렴의 항암효능 연구(남혜선 등, 2012)가 있고, 백렴의 항염작용에 대한 연구(김장현 등, 2008)이 있으며, 백렴의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문헌 연구(이상남 등, 2010)와 Adriamycin의 독성 발현에 미치는 백렴의 영향에 대한 연구(김동성 등, 1994)가 있다.

고문헌 자료에는 《東醫寶鑑》에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새살이 돌아나게 하고 아픔을 진정시킨다고 나와 있으며 주치(主治)는 용종(癰腫), 창양(瘡瘍), 화상, 나력(癩癧), 장출혈, 치루 등에 쓴다고 되어 있다. 특히 건조피부 치료를 위한 옥용고(玉容膏)의 재료로 사용되어 피부 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건성 피부를 위한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백렴(白蘗)은 복용했을 때 독성 가능성이 있는 방향식물이다.(이상남 등, 2010) 백렴(白蘗)의 구강 복용보다는 피부 흡수 등을 통한 적용법이 더 안전할 수 있으며, 현대의 활용분야에서 피부 건강 및 미용 분야에서의 효용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원식물이라고 생각된다.

표 36. 백렴(白癩)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Ampelopsis japonica</i> Mak.
이명		백초(白草) · 토핵(菟核) · 곤륜(崑崙) · 백근(白根)
사용부위		뿌리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산화 효과(Cho et al, 2005; 조영호 등, 2005)</li> <li>• 항암 효과(박승만 등, 2005; 남혜선 등, 2012)</li> <li>• 항염 효과(김장현 등, 2008)</li> <li>• 독성 연구(김동성 등, 1994; 이상남 등, 2010)</li> </ul>
고문헌 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옹종(癰腫)</li> <li>• 창양(瘡瘍)</li> <li>• 화상</li> <li>• 나력(癩癧)</li> <li>• 장출혈</li> <li>• 치루</li> <li>• 건조피부로 인한 피부질환</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종기, 상처, 화상 등 피부질환, 건조피부,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

(13) 부평(浮萍)

부평(浮萍)은 개구리밥과 식물인 머구리밥풀(*Spirodela polyrhiza* Schleid)과 개구리밥풀(*Lemna paucicostata* Hegelm.)의 전초(全草)를 사용한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한국의 늪, 저수지, 논 등의 물위에 떠서 자라는 흔한 토종 식물이다.(솔피, 2010)

부평(浮萍)에 대한 국내 연구는 총 14편으로 매우 적다. 그나마 식물학 분야의 논문이 아닌 경우는 부평초(浮萍草)의 화학성분 및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김유정 등, 1995)와 부평초 추출물을 이용한 약침이 지방세포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성언 등, 2008)과 부평초 추출물을 염색에 이용한 한복 디자인 연구(장현주, 2016)이 전부이다.

《東醫寶鑑》에서는 풍(風)을 치료하는데 부평초를 환(丸)로 만든 거풍단(去風丹)을 처방하고 있으며, 땀을 내는 발한작용에 좋다고 하였다.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초부(草部)에 부평(浮萍)을 설명하면서 ‘물에 뜬 것에 주로 쓴다. 기미를 없애고 수종을 없애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도랑의 작은 개구리밥이다. 열병을 치료하고 발한에도 뛰어나니, 그 공이 대단하다.’고 하고 있다. 《東醫寶鑑》과 《閨閣叢書》에 벼룩, 이, 모기를 쫓는데도 부평을 말려두었다가 태우거나 침상 자리 밑에 깔아 사용하라는 기록이 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부평의 현대적 활용분야는 발한, 두드러기, 단독(丹毒), 화상 등의 피부질환, 이뇨작용이 필요한 비만관리, 기미 상처치유 등 피부미용 관련 분야에 대한 적용과 방충 관련 제품으로서의 적용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7. 부평(浮萍)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Spirodela polyrhiza</i> Schleid, <i>Lemma paucicostata</i> Hegelm.	
이명	개구리밥, 자평(紫萍), 수화(水花) · 수백(水白) · 수소(水蘇) · 수평(水萍)	
사용부위	전초(全草)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산화 효과(김유정 등, 1995)</li> <li>• 항비만 효과(조성언 등, 2008)</li> <li>• 염색제로서 활용(장현주, 2016)</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한</li> <li>• 두드러기, 단독(丹毒), 화상</li> <li>• 수종(水腫)</li> <li>• 이뇨</li> <li>• 기미</li> </ul>
	방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벼룩, 이, 모기 등 해충의 구제</li> </ul>
현대적 활용가치	발한, 두드러기, 단독(丹毒), 화상 등의 피부질환, 이뇨작용이 필요한 비만관리, 벼룩, 모기, 이 등 해충의 구제, 기미 상처치유 등 피부미용 관련 분야, 염색 및 향균 보존 제품	

(14) 사상자(蛇床子)

사상자(蛇床子)는 산형과의 별사상자(*Cnidium monieri* (L.) Cuss) 또는 사상자(*Torilis japonica* Decandolle)의 열매를 뜻한다.(한의학대사전 편찬 위원회, 2010) 이명(異名)으로 별사상자, 사미(蛇米), 사주(蛇珠), 사상인(蛇床仁), 마상(馬床), 사숙(蛇粟), 사익(思益), 승독(繩毒), 조극(棗棘) 등이 있다.

사상자(蛇床子)에 관한 국내 연구는 성분 또는 휘발성 정유성분에 관한 연구(류경수 등, 1978; 심상혁, 1977; 육창수 등, 1977)이 있고, 사상자의 지표물질인 Torilin의 분리 및 함량분석법에 관한 연구(황의일, 2007)가 있다. 그 밖에 효능에 대한 연구로 사상자 물 추출물의 혈액응고 작용에 관한 연구(김환수 등, 1995), 섬유아세포 단백질에 대한 영향(구분석 등, 2007), 사상자의 항염작용에 대한 연구(김상미, 1998), 별사상자와 사상자의 항산화능 비교 연구(오지훈 등, 2014),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김신규, 1979; 홍선화 등, 2013) 등이 있다.

고문헌 중 《東醫寶鑑》의 외형편(外形篇) 전음(前陰)의 단방(單方)에 사상자(蛇床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사상자(蛇床子)는 음부를 따뜻하게 하는 주약(主藥)이다. 달인 물로 남녀의 음부를 씻으면 풍랭(風冷)을 없애고 정력이 세어지며 음부의 땀이 사라진다. 또, 가루 내어 쌀가루와 섞고 솜으로 싸서 음부에 넣어 놓으면 따뜻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東醫寶鑑》탕액편(湯液篇) 초부(草部)에서 ‘부인의 음부가 붓고 아픈 것, 남자의 음위와 음부가 축축하며 가려운 데 주로 쓴다. 속을 데우고 기를 내리며, 부인의 자궁을 덥게 하고 남자의 음경을 강하게 한다. 남녀의 음부를 씻으면 풍랭(風冷)을 없앤다. 성기능을 보하고, 허리가 아픈 것과 음부에 땀나는 것, 습선(濕癬)을 치료하며, 소변을 줄이고, 적백대하를 치료한다’고 하였다. 정리하면 남성들의 신허음위증(腎虛陰痿症), 여성의 불임, 아랫배가 차가운 자

궁냉증, 질염에 의한 음부소양증, 백대하 등 생식계 문제에 사용되었다. 또한 피부질환으로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염 및 진물 등에 사상자 끓인 물에 씻는 방법, 훈증하는 방법 등을 처방한다.

실제 효과가 검증된 연구에 항균효과, 세포보호 효과, 항염효과 등이 있으므로, 아토피나 민감성 피부관련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38. 사상자(蛇床子)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Cnidium monieri</i> (L.) Cuss <i>Torilis japonica</i> Decandolle
이명		별사상자, 사미(蛇米), 사주(蛇珠), 사상인(蛇床仁), 마상(馬床), 사숙(蛇粟), 사익(思益), 승독(繩毒), 조극(棗棘)
사용부위		열매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혈액응고 작용(김환수 등, 1995)</li> <li>• 피부주름 예방 효과(구본석 등, 2007)</li> <li>• 항염 효과(김상미, 1998)</li> <li>• 항산화 효과(오지훈 등, 2014)</li> <li>• 항균 효과(김신규, 1979; 홍선화 등, 2013)</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궁냉증</li> <li>• 트르코모나스성 질염에 의한 심한 가려움증</li> <li>• 백대하</li> <li>• 피부소양증</li> <li>• 습진</li> <li>• 알레르기성 피부염</li> <li>• 진물</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자궁냉증, 질염에 의한 심한 가려움증, 백대하 등의 치료용 약제, 피부소양증,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관련된 약제 또는 화장품

(15) 신이화(辛夷花)

신이화(辛夷花)는 목련과 식물인 목련(*Magnolia liliflora Desr*)의 꽃봉오리를 사용한다.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봄에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따서 말려두었다가 사용한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목련 관련 국내 연구는 주로 식물, 조경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목련의 꽃인 신이화(辛夷花)의 성분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신이화(辛夷花)의 성분과 관련하여 신이화(辛夷花)의 유효성분과 한약으로서의 제형에 관한 연구(趙賢模 등, 2000), 목련꽃 부탄올 가용물질의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박희욱, 2008), 황목련꽃의 Alkyl Glycoside 성분 분리 및 동정에 관한 연구(오은지 등, 2015)이 있었고, 목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목련꽃 추출물의 생리활성 실험연구(노진우 등, 2009), 목련꽃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성지연 등, 2006) 피부미용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신이화 추출물의 화장품 약리활성 및 항염증 효과에 관한 연구(김영훈 등, 2012)와 상황과 신이화 복합추출물의 항산화 화장품 소재에 관한 피부미용 효과(이명선 등, 2009), 상황과 신이화 복합추출물의 미백효과에 관한 연구(이명선 등, 2010) 및 목련잎의 염색성에 대한 연구(최순화 등, 2001)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입증된 신이화의 기능성 작용은 항산화, 항염, 미백 기능 등이다.

고문헌 자료로는 《東醫寶鑑》탕액편(湯液篇) 목부(木部)에 목련에 대한 설명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풍(風)으로 머리가 아픈 것과 기미에 주로 쓴다. 코가 막힌 것을 뚫어 콧물이 나오게 한다. 얼굴이 부으면서 치아까지 당기며 아픈 것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하며,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라게 한다. 기름을 만들어 얼굴에 바르면 광택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東醫寶鑑》외형편(外形篇) 비(鼻)의 질병에 관한 처방 중,

코의 균살이 생기거나 어린 아이의 맑은 콧물에 신이고(辛夷膏)를 사용할 것을 처방하고 있다. 또 《袖珍經驗神方》남부통치문(男婦通治門) 중 두병(頭病)에 관한 처방에는 두통의 치료에 (藁本), 세신(細辛), 백지(白芷), 신이화(辛夷花)를 사용해 연기를 훈증하여 두통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海東農書》외거(卜居) 편에 보면 베게 안에 향재(香材)를 넣어 사용했던 신침법(神枕法)의 재료 중 하나에 신이화(辛夷花)가 들어간다. 《閨閣叢書》에 의향(衣香)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다.

《東醫寶鑑》의 처방을 보면, 축농증, 만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두통 및 의류의 보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련에 대한 설명 중 기름을 만들어 얼굴에 바르면 광택이 난다고 되어있으나 정확히 어떤 목련의 어느 부위를 사용하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향후 연구를 통해 목련의 유효성분을 검색하고 다양한 추출방법으로 피부미용관련 유효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 연구 및 고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신이화의 현대 활용분야를 정리하면 축농증, 만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코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와 피부미용 분야, 의류 보존용 제품 등의 소재로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9. 신이화(辛夷花)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Magnolia liliflora Desr</i>
이명		목련꽃
사용부위		꽃봉오리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리활성 효과(노진우 등, 2009)</li> <li>• 항산화 활성 효과(성지연 등, 2006)</li> <li>• 화장품 약리활성 및 항염증 효과(김영훈 등, 2012)</li> <li>• 항산화 화장품 소재 관련 피부미용 효과(이명선 등, 2009)</li> <li>• 미백 효과(이명선 등, 2010)</li> <li>• 염색성에 대한 연구(최순화 등, 2001)</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농증</li> <li>• 만성 비염</li> <li>• 알러지성 비염</li> <li>• 비후성 비염</li> <li>• 두통</li> </ul>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향</li> </ul>
	미용 및 향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미용</li> </ul>
현대적 활용가치		만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코와 관련된 질환 및 두통의 치료와 피부미용, 육모 및, 양모, 의류 보존용 제품

### (16) 애납향(艾納香)

애납향(艾納香)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목부(木部)에 “松樹皮上綠衣” 즉 ‘소나무 위의 녹색 이끼’가 애납향(艾納香)이고, 낭태(狼苔)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향과 함께 태우면 그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둥글게 모여서, 청백색으로 보기 좋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閨閣叢書》에도 소개되어 있다.

애납향(艾納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혀 없다. 애납향(艾納香)이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에 대한 자료 또한 없다. 다만 《東醫寶鑑》 잡병편(雜病篇) 잡방(雜方)에 다양한 향을 만드는 방법 중 서운향구(瑞雲香毬), 취선향(聚仙香)을 만드는 재료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참나무 위에 생기는 이끼인 오크모스(Oak Moss)의 향이 향수의 원료물질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한상길, 2011)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나무 이끼인 애납향(艾納香) 역시 방향식물 자원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40. 애납향(艾納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
이명	낭태(狼苔)
사용부위	이끼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
고문헌상의 용도	• 잘 알려지지 않음
현대적 활용가치	방향제, 향수 등 향료 제품

### (17) 제비꽃

제비꽃과 식물인 제비꽃(*Viola mandshurica* W. Becker)과 호제비꽃(*V. yedoensis* Nak.)의 전초를 사용하며, 이명(異名)으로는 지정(地丁), 자화지정(紫花地丁), 전두초(箭頭草), 독행호(獨行虎), 양각자(羊角子), 미포대(米布袋), 자지정(紫地丁), 지정초(地丁草), 근근채(董董菜) 등이 있다.(솔피, 2010;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제비꽃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식물, 원예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성분에 대한 연구는 5편, 효능에 대한 연구는 10편 정도이다. 성분에 대한 연구로는 제비꽃의 아미노산과 유용성분에 대한 연구(이양숙 등, 2008), 금강제비꽃잎의 Flavonoid 배당체에 관한 연구(육창수 등, 1985; 육창수 등, 1989), 한국산 제비꽃속의 성분에 의한 분류 연구(문창규 등, 1977)가 있고, 효능에 대한 연구로는 제비꽃(*Viola mandshurica*)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9-hydroxy- $\alpha$ -tocopherone의 항산화 활성 및 세포 보호효과에 대한 연구(이미라 등, 2010), 제비꽃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alpha$ -Amylase와  $\alpha$ -Glucosidase에 대한 저해 활성에 대한 연구(이보배 등, 2008), 자화지정 메탄올추출물의 항산화효능에 관한 연구(고경숙, 2012)와 자화지정 추출물 적용에 따른 모발손상 및 형태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고경숙, 2013), 삼색제비꽃 추출물의 진통 효과에 대한 연구(박수현 등, 2010), 제비꽃의 진통 및 소염작용에 관한 연구(신민교 등 1987), 자화지정 기원 식물의 뇌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이동성 등, 2011), 제비꽃의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 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이미라 등, 2008), 제비꽃 추출물의 항염효과에 대한 연구(Lee et al, 2003)가 있다.

고문헌 자료에서는 《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 제창(諸瘡)의 아장선(鵝掌癬)에 대한 처방에서 손바닥에 생기는 피부병인 아장선(鵝掌癬)의 치료에 쓴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고문헌과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제비꽃은 현대적 활용 분야에 있어서 피부질환 관련 치료 및 피부보호, 미용 관련 제품의 연구자원으로 효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1. 제비꽃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제비꽃 ( <i>Viola mandshurica</i> W. Becker) 호제비꽃 ( <i>V. yedoensis</i> Nak.)
이명		지정(地丁), 자화지정(紫花地丁), 전두초(箭頭草), 독행호(獨行虎), 양각자(羊角子), 미포대(米布袋), 자지정(紫地丁), 지정초(地丁草), 근근채(堇堇菜)
사용부위		전초(全草)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산화 활성 및 세포 보호 효과(이미라 등, 2010; 이보배 등, 2008)</li> <li>• 항산화 효능(고경숙, 2012)</li> <li>• 모발보호 효과(고경숙, 2013)</li> <li>• 진통 효과(박수현 등, 2010)</li> <li>• 진통 및 소염 작용(신민교 등 1987)</li> <li>• 뇌세포 보호 효과(이동성 등, 2011)</li> <li>• 신경세포 보호 효과(이미라 등, 2008)</li> <li>• 항염 효과(Lee et al, 2003)</li> </ul>
고문헌상의 용도	치료용	• 아장선(鵝掌癬)에 쓴다
현대적 활용가치		진통, 항염, 항산화, 피부질환 관련 치료 및 피부보호, 미용 관련 제품

(18) 창출(蒼朮)

창출(蒼朮)은 국화과 식물인 조선 삼주(*Atractylodes koreana Kitam*)와 삼주(*A. japonica Koidz*) 및 같은 속(屬) 식물의 뿌리줄기를 사용한다. 이 명(異名)으로는 삼주, 산계(山薺), 산강(山薑), 산련(山連) 등이 있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삼주와 관련된 국내연구 중 성분에 대한 연구로는 창출의 성분에 대한 연구(지형준 등, 1985; 강은미, 2001), 삼주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관한 연구(이종원 등, 2001), 삼주 수집종 및 뿌리 형태별 유효성분 함량 차이에 대한 연구(김윤제 등, 2004)가 있고, 효능·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창출의 당뇨에 관한 효과에 대한 마우스 실험 연구가 있고(고응배, 1992; 이대훈 등, 2015), 천식 관련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이정우 등, 2007)과 소염작용에 관한 연구(허인희 등, 2007; 김선민 등, 2011), 창출이 포함된 한방약침이 비만으로 인한 혈청지질과 간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윤대환 등, 2004), 창출성분의 장관면역 자극을 통한 골수세포 증식활성에 관한 연구(유광원 등, 2001)가 있었다. 이밖에도 견직물의 염색에 삼주 추출물을 적용(김상률, 2014)하거나 창출로부터 분리한 Furanodiene가 남조류의 생육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황현진 등, 2008)이 있었다. 연구 결과로써 입증된 창출의 효과로는 당뇨, 천식, 간 기능에 대한 효과와 면역세포 활성화에 대한 효과, 항염 작용 등이 있다.

고문헌 자료 중 《東醫寶鑑》탕액편(湯液篇) 초부(草部)에 창출(蒼朮)에 대한 설명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다. 상중하의 습으로 인한 병을 치료한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땀을 내며, 담음이 뭉친 것과 현벽(痲癬), 기괴(氣塊), 산람장기(山嵐瘴氣)를 깨뜨린다. 풍한습비(風寒濕痺)와 곽란(癩亂)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것이 멎지 않는 것을 치료하고, 수종(水腫)과 창만(脹滿)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의학적으로 위병,

소화 장애, 설사, 감기, 비증(痺證), 관절통, 부종, 야맹증 습진 등에 쓴다.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한의학에서 창출(蒼朮)은 삼주의 뿌리를 말려서 사용한다. 그러나 삼주의 휘발성 정유 성분은 건조기간 중 대부분 소실되므로 어떤 상태의 방향식물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창출(蒼朮)과 같이 한의학적으로 건조해서 사용하는 약재의 경우, 방향식물의 다양한 상태와 향기성분 추출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효과의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42. 창출(蒼朮)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Atractylodes koreana</i> Kitam., <i>A. japonica</i> Koidz.
이명		삼주, 산계(山薺), 산강(山薑), 산련(山連)
사용부위		근경(根莖)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뇨 개선 효과(고응배, 1992; 이대훈 등, 2015)</li> <li>• 천식 개선 효과(이정우 등, 2007)</li> <li>• 소염 효과(허인희 등, 2007; 김선민 등, 2011)</li> <li>• 비만으로 인한 혈청지질과 간 기능 개선 효과(윤대환 등, 2004)</li> <li>• 골수세포 증식 활성 효과(유광원 등, 2001)</li> <li>• 염색성에 관한 연구(김상률, 2014)</li> <li>• 남조류의 생육 억제 효과(황현진 등, 2008)</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장병</li> <li>• 소화 장애</li> <li>• 설사</li> <li>• 감기</li> <li>• 비증(痺證)</li> <li>• 관절통</li> <li>• 부종</li> <li>• 야맹증</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위장병, 소화 장애, 설사, 감기, 관절통, 부종, 야맹증 등의 치료, 방향제품

### (19) 청호(靑蒿)

청호(靑蒿)는 국화과 식물인 개사철쭉(*Artemisia apiacea Hance*)의 전초(全草)를 사용한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이명(異名)으로 方潰(방궤), 細葉蒿(세엽호), 草靑蒿(초청호), 草蒿(초호), 草蒿子(초호자), 臭蒿(취호), 香蒿(향호), 蒿子(호자), 葍(긴)이 있다.(<http://www.culturecontent.com>)

청호(靑蒿)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성분에 관한 연구로는 청호의 휘발성 성분에 대한 연구(김옥찬 등, 1994), 청호의 파이토케미칼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2), 청호의 비극성 분획물에 대한 연구(Lee et al, 2003), 청호의 Flavonol Galactosides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5), 청호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하나인 Apicin에 대한 연구(Lee et al, 2006), 청호의 Artemisterol 성분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8), 청호와 참오동 나무의 생리활성 성분에 관한 연구(Kim, 2004) 등이 있다.

한편 청호(靑蒿)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청호의 육모활성 연구(김경순 등, 1999)와 청호의 뇌세포 보호활성에 대한 연구(이지우 등, 2014)가 있다.

고문헌 자료로는 《東醫寶鑑》잡병편(雜病篇)에 화(火)나 열(熱)로 인한 병에 사용하고, 쇠붙이에 상한 곳에 붙이면 피와 통증을 멎게 하고 새살을 돋게 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벌에게 쏘였을 때는 청호(靑蒿)를 씹어서 붙이고, 이를 죽이기 위해서 청호(靑蒿)를 달인 물로 씻는다는 내용이 있다.

《東醫寶鑑》외형편(外形篇)에는 뽀루지나 땀띠에 창이 생기면 청호(靑蒿) 달인 물로 씻는다는 처방이 있다. 정리하면 열을 내리고, 상처 재생과 벌레 물린데, 뽀루지 등 피부 문제와 해충을 쫓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호의 피부재생, 항염, 방충 등의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대에서의 청호의 활용분야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상처, 벌레 물린 곳, 피부 트러블 등 피부질환의 치료와 화장품, 해충 기피제, 육모용 제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 청호(靑蒿)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Artemisia apiacea Hance</i>
이명		方潰(방궤), 細葉蒿(세엽호), 草靑蒿(초정호), 草蒿(초호), 草蒿子(초호자), 臭蒿(취호), 香蒿(향호), 蒿子(호자), 蔽(긴)
사용부위		전초(全草)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모활성 효과(김경순 등, 1999)</li> <li>• 뇌세포 보호 및 활성 효과(이지우 등, 2014)</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을 내린다.</li> <li>• 상처 재생</li> <li>• 벌레 물린데</li> <li>• 뽕루지, 땀띠</li> </ul>
	방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등 해충의 구제</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신경퇴행성 질환, 상처, 벌레 물린 곳, 피부 트러블 등 피부질환의 치료와 화장품, 해충 기피제, 육모용 제품

(20) 향유(香薷)

향유(香薷)는 꿀풀과 식물인 노야기(*Elsholtzia patrinii* (Lep.) Geke)의 전초(全草)를 말린 것이다.(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향유(香薷)의 이명(異名)으로는 노야기, 노야지(奴也只), 석향(石香), 향여(香菇) 등이 있다.(<http://encykorea.aks.ac.kr>; <http://www.doopedia.co.kr>)

향유(香薷)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유효 성분 에 관한 연구에는 향유의 생육과 정유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에 관한 연구(손관화 등, 1998), 향유 및 배초향 정유 성분의 화학형 분류에 관한 연구(김진경 등, 2001), 향유와 꽃향유의 향기성분 비교에 관한 연구(손관화 등, 1998; 이재곤 등, 2004)가 있으며 향유의 정유 성분 추출법 중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추출법에 대한 연구(윤광섭 등, 2006)가 있다. 또한 향유의 효능에 대한 연구로 고지방 식이로 인한 지방축적에 향유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마우스 실험연구(Sung et al, 2011), 향유와 꽃향유 향기성분의 항산화, 돌연변이 유발, 항균, 세포독성 등에 관한 생리활성 연구(정재훈 등, 2004), 향유 정유의 항균성에 관한 연구(신승원, 2010)와 향유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와 항염 효과 등 화장품 원료로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대우 등, 2006)가 있다.

고문헌 자료 중 《東醫寶鑑》탕액편(湯液篇) 채부(菜部)에 향유에 대한 설명으로, ‘성질이 약간 따듯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다. 광란(霍亂)으로 배가 아프면서 토하고 설사하는 데 주로 쓴다. 수종(水腫), 서습(暑濕)을 없애며, 위기(胃氣)를 데우고 번열을 없앤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여름철 채소로 먹기도 하고 그 때의 이름은 향여(香菇)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에 향유를 사용한 처방에는 외형편(外形篇)에 입 냄새를 빨리 치료한다고 되어 있으며, 잡병편(雜病篇)에 더위를 없애고 위(胃)를 조화롭게 하며 기를 보한다고 하고 더위로 인해 구토,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며, 근이 뒤틀리고 팔다리가 차가운 것을 치료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즉 향유는

주로 더위먹어서 생기는 질환과 입 냄새 제거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향유의 활용 분야를 정리해보면, 고지방 식이로 인한 비만의 개선 효과(Sung et al, 2011), 미백과 항염 효과 등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향유의 기능성이 검증되었고,(이대우 등, 2006) 더위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 구취 제거 관련 연구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한 정유 성분을 함유한 식물로서(손관화 등, 1998)으로 향수 등 향료자원으로서의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표 44. 향유(香薷)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Elsholtzia patrinii</i> (Lep.) Geke
이명		노야기, 노야지(奴也只), 석향(石香), 향여(香茹)
사용부위		전초(全草)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축적 분해 효과(Sung et al, 2011)</li> <li>항산화, 돌연변이 유발, 항균, 세포 독성 등 생리 활성 효과(정재훈 등, 2004)</li> <li>항균 효과(신승원, 2010)</li> <li>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및 항염 효과(이대우 등, 2006)</li> </ul>
고문헌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번열을 없앤다</li> <li>더위로 인해 구토, 설사 등 더위 관련 질환</li> <li>입 냄새 제거</li> </ul>
현대적 활용가치		비만 관리, 기능성 화장품, 더위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 구취 제거, 향수, 방향제

## (21) 고수

고수는 미나리과의 일년초인 *Coriandrum Sativum L.*이며,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지만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http://encykorea.aks.ac.kr>) 이명(異名)으로는 빈대풀, 호수(胡荽), 향수(香荽)라 한다.(<http://www.doopedia.co.kr>) 고수는 서양에서 코리안더(Coriander)라고 부르며, 건위제, 설사시키는 약, 해열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최영진, 2008)

주로 열매를 이용하는데, 고수의 열매는 양념·향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빵과 과자류에도 이용되며, 술의 향료로도 이용된다. 잎과 줄기는 향신채로도 사용한다.(한국식품과학회, 2008)

고수에 관한 국내 연구 중 유효 성분에 관한 연구로는 고수의 향미성분에 관한 연구(김경자 등, 2001), 고수의 가열처리에 따른 향미 성분의 변화에 대한 연구(최옥자 등, 2002) 등 주로 향미성분에 대한 연구가 있고, 고수의 효능에 대한 연구로는 항균 활성에 대한 연구(김용두 등, 2001), 칸디다(Candida) 균과 트리코모나스(Trichomonas) 균종에 대한 항균효과 연구(Lim et al, 2007), 고수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황금희 등, 2001; Hwang et al, 2001),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허수진 등, 2001)이 있다.

고문헌 자료에서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채부(菜部)에서 고수에 대한 설명에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약간 있다. 곡식을 소화시키고 소장기와 심규(心竅)를 통하게 한다. 사진(沙疹)과 완두창이 내돋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수가 사용되는 처방으로는 《東醫寶鑑》 외형편(外形篇) 코에 관한 질병 중 코 속에 생긴 균살에 고수를 짓찧어 코를 막아 놓으면 균살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하였고, 외형편(外形篇) 후음(後陰) 곧 치질에 관한 치료방법으로 향문이 튀어나왔을 때는 고수의 씨

를 태워 그 김을 쏘이면 들어간다고 하였다. 또한 잡병편(雜病篇) 소아(小兒)의 질환 중 두창(痘瘡) 곧 천연두에 관한 치료법 중 발진의 진행이 더더 시원하게 돋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수 줄기를 2냥 썰어 청주 2되와 함께 달인다. 끓으면 무엇으로 덮어 약 기운이 새지 않게 하고, 따뜻해지면 찌꺼기를 제거한 뒤에 얼굴과 머리를 제외한 온몸에 뽀고 옷으로 덮어 따뜻하게 한다. 그러면 곧 두창이 시원하게 돋는데 신표(神效)하다. 줄기가 없으면 씨를 쓴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잡병편(雜病篇) 해독(解毒)에 대한 처방 중 ‘여러 가지 고기를 먹고 중독되어 토혈하고 하혈할 때는 호유자(胡蘆子) 1되를 달인 물을 차게 식혀 반 되씩 하루에 2번 먹는다’고 되어 있다. 고기를 먹었을 때, 토혈이나 하혈을 한다는 것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食療纂要》에는 기생충의 감염으로 생기는 고독(蠱毒)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고수를 열매가 터지도록 삶은 다음 식혀서 그 즙을 복용하라는 기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食療纂要》에는 대소변불통(大小便不通) 시 고수 나물을 임의대로 먹으면 소변과 대변이 잘 나간다고 되어 있다. 또한 치질의 치료에도 고수를 열매가 터지도록 삶은 다음 식혀서 그 즙을 복용하라고 되어 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고수의 효능을 정리하면 검증된 연구로서 고수의 항산화, 항균 및 지질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고문현상의 기록에도 코 속의 균살, 인체 내 기생충 감염의 구제, 바이러스성 질환의 치료, 치질, 소화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로 고수의 효능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표 45. 고수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Coriandrum Sativum L.</i>
이명		빈대풀, 호수(胡荽), 향수(香荽), 코리안더(Coriander)
사용부위		씨앗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균 효과(김용두 등, 2001; Lim et al, 2007)</li> <li>• 지질대사 개선 효과(황금희 등, 2001; Hwang et al, 2001)</li> <li>• 항산화 효과(허수진 등, 2001)</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속의 균살</li> <li>• 인체 내 기생충 감염의 구제</li> <li>• 천연두의 치료</li> <li>• 치질</li> <li>• 소화기능 개선</li> </ul>
현대적 활용가치		소화 및 비만관리, 해충 구제, 바이러스성 질환의 치료

(22) 도화(桃花)

도화(桃花)는 장미과 식물인 복숭아나무(*Prunus persica* (L.) Batsch)의 꽃을 의미한다.(<http://www.doopedia.co.kr>)

국내 연구 중, 복숭아 나무와 복숭아의 과일, 잎 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복숭아꽃인 도화(桃花)에 대한 연구의 수는 많지 않다. 그 중 도화(桃花) 추출물의 효능에 관한 연구로, 도화 분획물의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이진영 등, 2012), 복숭아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항염증 효과에 대한 *in vitro* 연구(곽충실 등, 2015), 도화 및 복숭아 꽃받침 추출물의 미백활성 비교에 대한 연구(손형우 등, 2012)이 전부로 주로 피부미용과 관련된 연구로 최근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최근 피부미용 관련 천연 식물 자원에 대한 수요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고문헌 자료 중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과부(果部)에 도화(桃花)에 대한 설명으로, ‘성질이 평(平)하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 석림(石淋)을 깨뜨리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삼충(三蟲)을 내려보내고 시주(尸疰)와 악귀를 물리치며, 안색을 좋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에 도화(桃花)는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해서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꽃이 떨어질 때 모아 그늘에 말려 가루내고 물에 타서 먹거나 전병을 만들어 먹는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 외형편(外形篇)에 도화(桃花)를 술에 담갔다가 마시면 안색을 좋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얼굴 헌데에서 누런 물이 나올 때는 복숭아꽃을 가루 내어 1돈씩 하루에 3번 물로 먹는다고 되어 있다. 치료 외의 용도로는 술에 향기를 입히는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 《海東農書》, 《閨閣叢書》, 《農政會要》, 《山林經濟》에 정월에 술을 빚어두었다가 복숭아 꽃이 필 무렵, 복숭아 꽃잎을 섞어 도화주(桃花酒)를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도화(桃花)의 활용분야를 정리해보면, 치료용으로는 배변활동의 원활, 이뇨, 피부 미백 등 미용, 피부 염증의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중 미백 및 항염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되었다. 또한 복숭아꽃의 정유성분이 술의 알콜 성분에 추출됨으로써 향미의 증진 외 기능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화장품, 방향용품, 가향재로서의 효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표 46. 도화(桃花)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Prunus persica (L.) Batsch</i>
이명		백도화(白桃花)
사용부위		꽃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이진영 등, 2012)</li> <li>• 미백 활성 효과(손형우 등, 2012)</li> <li>• 항산화 효과 및 항염증 효과(곽충실 등, 2015)</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비</li> <li>• 부종</li> <li>• 피부 염증 완화</li> </ul>
현대적 활용가치		배변활동의 원활, 이뇨, 피부 미백 등 미용, 피부 염증의 완화, 화장품, 방향제, 가향재

### (23) 소회향(小茴香)

산형화과 식물인 *Anethum graveolens* L.을 말하며 주로 씨앗을 이용한다. 이명(異名)으로는 시라(蒔蘿), 딜(Dill), 시라(蒔蘿)의 씨앗을 의미하는 시라자(蒔蘿子) 등이 있다.(<http://www.doopedia.co.kr>) 소회향의 영명은 딜(Dill)이고 대회향인 펜넬(Fennel)과 함께 씨앗의 정유성분이 향기요법에서 많이 쓰이는 방향식물이다.(박권우, 2007)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이후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http://encykorea.aks.ac.kr>)

소회향(小茴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생태, 육종, 유전학적 특성 등에 관한 식물학 분야의 연구를 제외했을 때, 성분, 효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소회향(小茴香)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소회향(小茴香)이 허혈성 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강성용 등, 2007), 소회향(小茴香)이 흰쥐의 국소뇌혈류량 및 평균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남순 등, 2007), 소회향(小茴香)이 생식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우스 실험연구(전미혜 등, 2010)등과 소회향(小茴香)의 정유 성분을 사용한 연구로 식욕억제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김세종 등, 2005), 산형화과 식물의 정유성분이 개미퇴치에 대한 효과 연구(Kim et al, 2010), 육계(肉桂)와 소회향(小茴香) 에센셜 오일의 항산화와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Chun et al, 2004), 산초(山椒)와 소회향(小茴香) 정유의 항균효과에 대한 연구(백정애 등, 2008) 등이 있었고 소회향 잎의 추출법에 따른 항산화와 지질 감소능에 대한 효과 연구(Bahrami et al, 2007), 진통, 소염효과 및 관절염에 대한 소회향과 시라자 물 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마우스 실험연구(반상석 등, 2002)과 소회향과 금은화의 열수 추출물이 급성췌장염에 대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김봉규 등, 2010)가 있었다. 위 연구를 통해 입증된 소회향의 효능은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혈류개선 효과, 생식기능 개선, 식욕억제 효과, 해충퇴치 효과, 항산화, 항균 효과, 항염 효과, 진통 효과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

다.

고문헌 자료에는 《東醫寶鑑》 탕액편(湯液篇) 수제법(修製法) 중에 ‘소회향을 좌약으로 쓰면 경락을 운행시키는데, 소금물에 축여 볶으면 신간원기(腎間元氣)를 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袖珍經驗神方》 부인문(婦人門)에 월경 때가 되어 배가 아픈 경우, 월경이 고르지 못한 경우 사용하는 약재 중에 소회향을 사용했다. 《袖珍經驗神方》 소아문(小兒門)에 소아가 자정 넘은 깊은 밤중에 허리를 구부리고 우는데, 안색은 창백하고 입에 냉기가 있고 손발이 냉하고 배도 냉한 경우의 약재 중에 소회향을 볶아서 사용했다. 또한 생식기에 고환이 없는 경우, 한쪽 고환이 늘어져 아픈 경우, 종기가 깊어 아픈 경우에도 소회향을 사용하였다. 《袖珍經驗神方》 남부통치문(男婦通治門) 중 허리 아래나 배꼽 아래가 아픈 경우, 신허(腎虛)로 인한 요통 등에 소회향을 사용했다.

소회향은 치료용보다는 향신료로써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음식보존을 위하여 사용하는 향신료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五洲衍文長箋散稿》, 《林園十六志》, 《農政會要》 등에 향무말림[食香蘿蔔], 향가지말림[食香茄方], 향신 배추·갓 말림[食香菘芥方] 등의 각종 말림류를 만드는데 보존을 위한 식품 첨가향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소회향의 향기성분이 가진 항균성을 활용한 방법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회향의 현대적 활용범위에는 혈류개선, 생식기능 개선, 식욕억제, 해충퇴치, 항산화, 항균, 항염, 진통과 관련된 치료적 영역, 향신료 및 식품 보존제로서의 영역이 있다고 사료된다.

표 47. 소회향(小茴香)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Anethum graveolens L.
이명		시라(蒔蘿), 딜(Dill)
사용부위		씨앗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혈성 뇌혈관 질환 개선효과(강성용 등, 2007)</li> <li>• 국소뇌혈류량 및 평균혈압 개선 효과(김남순 등, 2007)생식능력 개선 효과(전미혜 등, 2010)</li> <li>• 식욕억제 효과(김세종 등, 2005)</li> <li>• 개미 퇴치 효과(Kim et al, 2010)</li> <li>• 항산화, 항균효과(Chun et al, 2004; 백정애 등, 2008)추출법에 따른 항산화와 지질 감소능 효과 (Bahrami et al, 2007)</li> <li>• 진통, 소염효과 및 관절염 개선 효과(반상석 등, 2002)급성췌장염에 대한 효과(김봉규 등, 2010)</li> </ul>
고문현상의 용도	치료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식기능 개선</li> <li>• 성호르몬 관련 문제</li> <li>• 생식계 관련 통증</li> <li>• 요통</li> <li>• 가슴 통증</li> <li>• 피부 속 종기로 인한 통증</li> </ul>
	향신료용	각종 말린류를 만드는데
현대적 활용가치		혈류개선, 생식기능 개선, 식욕억제, 해충퇴치, 항산화, 항균, 항염, 진통과 관련된 치료적 영역, 향신료 및 식품 보존제

#### (24) 진달래꽃

진달래과 식물인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의 꽃이며 이명(異名)으로는 두견화(杜鵑花), 만산홍(滿山紅), 영산홍(映山紅)이라고 한다.(장준근, 2009)

진달래에 관한 국내 연구는 대부분 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식물인 진달래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재배, 육성 등 식물학 분야를 제외하면 그다지 많지 않다. 진달래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도 잎(박유화 등, 2008)이나 줄기(홍혜선 등, 2007)에 대한 연구가 아닌 진달래꽃의 유효 성분 에 대한 연구로는 진달래꽃의 휘발성 성분에 관한 연구(이승은 등, 1991), 진달래꽃 추출물로부터 *Helicobacter pylori* 균의 억제 효과를 가지는 phenol성 물질의 정제 및 동정에 대한 연구(주인식 등, 2009), 추출조건에 따른 진달래 화분의 이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박난영 등, 2007), 진달래꽃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및 물성에 관한 연구(안봉전 등, 2005), 등이 있었다. 또한 진달래꽃의 효능에 대한 연구로는 진달래 화분이 간 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윤수홍 등, 1989), 진달래꽃으로부터 추출한 플라보노이드류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김미애 등, 1996), 진달래꽃으로부터 추출한 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김미애 등, 1996), 진달래꽃 추출물의 항고혈압, 항산화, 항균 효과 등 생리활성 탐색에 대한 연구(조영제 등, 2008), 진달래꽃 추출물의 항산화, 항암 효과 및 tyrosinase 저해활성에 대한 연구(안봉전 등, 2005), 진달래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인체세포에 관한 독성 연구(박승우 등, 2006)와 진달래꽃의 견직물에 대한 염색성에 대한 연구(배상경, 2007)가 있었다. 실험 연구로 입증된 진달래꽃의 효능은 암세포 억제 효과, 항산화, 미백, 항균, 항고혈압 효과와 진달래 꽃가루의 간에 대한 해독작용 등이 있었다. 진달래꽃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개발에 대한 연구는 진달래꽃 추출물을 적용한 화장품의 물성의 특징에 대한 부분만 이루어

져 인체 임상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문헌 자료 중 《東醫寶鑑》에서는 진달래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으나 《閨閣叢書》, 《林園十六志》에는 진달래꽃을 이용한 술, 떡, 전 등 음식류에 향기를 입히기 위해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

표 48. 진달래꽃의 효용성

구분		내용
학명		<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이명		두견화(杜鵑花)
사용부위		꽃, 뿌리, 줄기, 잎
효용성 관련 국내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달래 화분의 간독성(윤수홍 등, 1989)</li> <li>• 항산화 활성(김미애 등, 1996)</li> <li>• 항고혈압, 항산화, 항균 효과 등 생리활성 탐색(조영제 등, 2008)</li> <li>• 항산화, 항암 효과 및 tyrosinase 저해활성 효과(안봉전 등, 2005)</li> <li>• 항산화 및 인체세포에 관한 독성 연구(박승우 등, 2006)</li> </ul> 염색성에 대한 연구(배상경, 2007)
고문헌상의 용도	가향재로서 음식에 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두견주(杜鵑酒)</li> <li>• 떡-진달래떡</li> <li>• 전-두견화전(杜鵑花煎)</li> </ul>
현대적 활용가치		항산화, 미백, 항균, 항고혈압 효과, 해독작용에 의한 치료용, 음식향, 화장품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사용된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각의 방향식물마다 효능에 관한 국내 연구에 대해 조사하였고, 고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용도별 사용 분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 사용된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약리적 효용성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구기자(枸杞子), 소나무, 쑥, 들깨, 마늘 등 일부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하여는 효용성 검증을 위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집적되어 있는 반면, 곱향(藿香), 회향(茴香), 냉이, 백급(白芨), 도화(桃花)처럼 식물학적 특징이나 재배에 관한 연구 및 품질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효용성에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부족한 식물들도 있었으며, 백교향(白膠香), 애납향(艾納香)처럼 고문헌에는 있으나 아예 연구 자체가 진행된 바 없는 식물도 있었다.

이에 효용성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수가 10편 미만인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零陵香), 곱향(藿香), 회향(茴香), 백교향(白膠香), 청목향(靑木香), 냉이, 모향(茅香), 백급(白芨) 백렴(白蘘), 부평(浮萍), 사상자(蛇床子), 신이화(辛夷花), 애납향(艾納香), 제비꽃, 창출(蒼朮), 천초(川椒), 청호(靑蒿), 고수, 도화(桃花), 소회향(小茴香), 진달래꽃 등 24종의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고문헌(古文獻)의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적 향기요법 및 향기관련 산업의 자원식물로서의 가능성을 추가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9와 같이 요약할 수 있었다.

표 49. 24종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현대적 효용성

종류 용도	치료용	기타 활용		
		생활에 활용	음식에 활용	미용 및 향장
자단향 (紫檀香)	부종, 지혈, 진통, 종기, 습진, 상처, 여드름	의류 보존	-	트러블 피부용 화장품, 향수, 방향제
백단향 (白檀香)	식체, 구토, 소화, 진통	의류 보존, 방충	-	피부미용, 스크럽, 향수, 방향제
안식향 (安息香)	진정, 혈액순환, 기침	향균, 보존제	-	향수, 방향제
영릉향 (安息香)	감기, 치통, 소화기 문제, 피부질환	의류 보존, 비누, 세정용품	-	향수, 방향제
곽향 (藿香)	소화기 장애, 습진, 여드름	구취제거용 품, 목욕용품	음식향, 향신료	트러블 피부용 화장품, 향수, 방향제
회향 (茴香)	신장 질환, 발작성 복통, 진정, 여성계 질환, 소화기 장애	구취제거 제품 의류 보존제	음식향, 향신료	-
백교향 (茴香)	종기, 습진, 지혈, 피부질환, 상처치료 및 피부재생, 치질, 치루	-	-	재생용 화장품
청목향 (青木香)	소화기 질환, 지혈 상처, 용종(癰腫), 정창(疔瘡), 피부 소양증	-	-	재생용 화장품,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
모향 (茅香)	만성 위장병, 폐결핵, 열성 질병, 가려움증, 피부질환	의류보존제	-	향수, 방향제

종류 용도	치료용	기타 활용		
		생활에 활용	음식에 활용	미용 및 향장
냉이꽃	이질, 이뇨, 지혈, 해독, 안질(사용부위-줄기 , 뿌리, 잎, 씨앗)	벼룩, 좀 등 해충구제(사 용부위-꽃)	-	-
백급 (白芨)	객혈, 코피, 외상성 출혈 등 지혈효과, 피부질환 및 상처치유 관련 제품	항균, 보존용 제품	-	피부보호 관련 제품
백렴 (白蘞)	종기, 상처, 화상 등 피부질환	-	-	건조피부,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
부평 (浮萍)	발한, 두드러기, 단독(丹毒), 화상 등의 피부질환	벼룩, 모기, 이 등 해충의 구제, 염색, 항균, 보존 제품	-	이노작용이 필요한 비만관리, 기미, 재생용 화장품
사상자 (蛇床子)	자궁냉증, 질염에 의한 심한 가려움증, 백대하, 피부소양증, 습진, 알레르기성 피부염	-	-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
신이화 (辛夷花)	만성 비염, 알러지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코와 관련된 질환	의류 보존제	-	피부미용, 모발 관련 제품
애남향 (艾納香)	-	-	-	방향제, 향수
제비꽃	진통, 항염, 피부질환	-	-	항산화, 피부 및 모발 보호 관련 제품

종류 용도	치료용	기타 활용		
		생활에 활용	음식에 활용	미용 및 향장
창출 (蒼朮)	위장병, 소화 장애, 설사, 감기, 관절통, 부종, 야맹증	-	-	-
청호 (靑蒿)	신경퇴행성 질환, 상처, 벌레 물린 곳, 피부질환	해충 기피제	-	피부 트러블 관련 화장품, 육모용 제품
향유 (香薷)	비만 관리, 더위로 인한 구토, 설사 등 더위 관련 질환, 입냄새 제거	구취 제거용품	-	기능성 화장품, 향수, 방향제품
고수	소화 및 비만관리, 해충 구제, 바이러스성 질환의 치료, 치질, 소화기능 개선	해충 기피제	향신료	-
도화 (桃花)	배변활동의 원활, 이노, 피부 염증의 완화	-	술, 음료 등 가향제	피부 미백 등 미용, 화장품, 방향제
소회향 (小茴香)	혈류개선, 생식기능 개선, 식욕억제, 항산화, 항균, 항염, 진통과 관련된 치료용	해충 기피제	향신료 및 식품 저장	-
진달래꽃	항고혈압 효과, 해독작용에 의한 치료용	-	술, 떡, 전 등 음식에 첨가	항산화, 미백 관련 화장품

## V. 결론

향기요법(香氣療法)의 개념은 “향기로 치료하는 대체의학(代替醫學)의 일종’이라는 협의(狹義)의 뜻 뿐 아니라 ‘식물의 향기성분(香氣性分)을 이용하여 치료 및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이라는 광의(廣義)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향기요법(香氣療法)은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성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식물의 향기성분인 정유(精油)는 향균 작용,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항암 작용 등 다양한 약리 작용과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의 조절기능에 입각한 생리 작용 및 후각자극을 통해 인간의 감성과 기억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작용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작용을 통하여 향기요법(香氣療法)은 치료를 포함한 인간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향(香)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향료(香料), 향문화(香文化), 방향식물(芳香植物) 자원(資源) 등 통합되지 않은 다양한 개념 하에서 언급되어 왔으며, 정확하게 ‘한국의 향기요법(香氣療法)’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연구는 극히 소수였다. 이는 ‘향기요법(香氣療法)’에 대한 개념이 ‘치료’의 분야에 국한되어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서양의 근대적 향기요법인 아로마테라피의 방식과 외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전통적 향기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향기의 쓰임새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한의학, 식품영양학, 의류학, 보존과학, 고고미술학 분야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한국의 향, 또는 향기문화의 실제 활용 분야는 향의 재료가 되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의 기능성 및 약리작용에 근거하여 적용된 것이며 크게 보았을 때 향기요법(香氣

療法)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한국 전통 향료(香料), 향문화(香文化), 향(香)의 사용방법, 향료자원 식물(香料資源植物) 등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 전통 향기요법(香氣療法)의 역사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향기요법(香氣療法)에 대한 역사를 살펴본 결과, 최초의 기원은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방향식물(芳香植物)인 마늘과 쑥을 약으로 사용했으며 향기가 있는 단수(檀樹)를 신과의 교류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아 한민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향식물(芳香植物)을 활용할 줄 알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향기의 사용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모두 향을 피우는 도구인 향로(香爐)를 사용하는 등 향(香)을 태워 향기 성분을 흡입하는 발향법(發香法)의 흔적을 벽화와 유물, 부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6세기 중엽인 528년 고구려의 승려 목호자가 향을 사용해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향기치료가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고대의 향기요법(香氣療法)은 주로 불교의례와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향을 피우며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공양의 목적에 개인적인 기원 뿐 아니라 호국(護國)적 차원의 목적이 포함되었으며 사용된 향의 종류도 대부분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된 고가의 수입품인 만큼 경제적, 정치적 힘을 가진 왕족 및 귀족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수입향의 가격이 고가(高價)이므로 신라의 경우 비싼 향료 및 향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신분제인 골품제(骨品制)에 따라 수입향료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향(香)의 사용이 더욱 많아졌으며, 종교의식 뿐 아니라 사신 및 손님 접대, 향장(香粧), 치료 등에 사용되었으며, 사용법도 발향법, 목욕법, 피부적용법 등 다양해졌다. 이 시기에도 역시 향료의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품이었으므로 주된 사용은 재력이 있는 왕족 및 귀족계층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조선 초기 백성들의 질병과 구호를 위한 국가의 여러 노력 중, 세종(世宗) 조에 값비싼 수입약재의 국산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수입에 의존하였던 방향식물(芳香植物)의 국내 재배 및 국산 식물로의 대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이후 조선시대의 향기요법은 치료를 비롯하여 왕실의 관혼상제, 사신의 접대, 문인들의 기호, 옷이나 서책의 보관, 향신료, 미용, 해충의 구제 등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고 보인다. 특히 조선 중기인 17세기부터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백과사전 형식의 서적인 《山林經濟》, 《林園十六志》, 《閨閣叢書》 등이 편찬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요법의 적용에 대한 지식이 전파될 수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향기요법과 방향식물의 사용법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의 전통적 향기요법(香氣療法)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향기(香氣) 활용법(活用法)을 ‘치료용’과 ‘기타 활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향기요법(香氣療法)의 개념 중 ‘광의(廣義)의 아로마테라피 개념’에 근거한 분류법으로, 먼저 ‘치료용(治療用) 향기요법(香氣療法)’을 적용 방법에 있어서 향기성분의 흡수 경로에 따라 크게 흡입법과 구강복용법, 피부적용법으로 세분화하였다. 이 중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서 사용되었던 흡입법은 향을 피워 연기를 쬐는 훈법(薰法), 향낭(香囊)에 약재를 넣어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향대법(香袋法), 베게 속에 향초를 채워 사용했던 향침법(香枕法)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구강복용법은 약재를 달이거나 우린 탕액(湯液)을 이용하는 법, 환(丸)을 이용하는 법, 가루를 이용하는 법, 졸인 형태의 즙인 고(膏)를 이용하는 법, 약차(藥茶)나 약주(藥酒)로 이용하는 법이 있으며 피부적용법은 향재(香材)를 달여 약의 증기를 쬐거나 세척하는 훈세법(薰洗法), 향재(香材)를 기름 또는 꿀과 섞어 피부에 직

접 바르는 향지법(香脂法), 방향식물을 찢어 바로 붙이는 향도부법(香搗付法), 방향식물을 끓인 물로 씻어 내거나 목욕을 하는 방법인 향목욕법(香沐浴法), 향재(香材)를 끓인 물로 양치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타 활용’은 치료는 아니지만 방향식물(芳香植物) 속 향기성분의 기능적 효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사나 의례, 종교 등 의식(儀式)에 활용된 경우, 식이요법이나 향신료, 음식에 향을 더하여 맛과 기능을 더하는 음식(飲食)에 활용한 경우와, 책이나 의류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보존용, 해충을 쫓아내기 위한 방충용, 피부미용이나 향 장신구로 개인의 아름다움과 향취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미용향장용 등 생활에 활용했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방향식물이 가진 효능을 활용했던 기록이 보인다.

한편 한국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던 주요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종류를 정리하면 대략 80여종으로 축약된다. 이들을 생산지에 따라 크게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나누었을 때, 기후, 토양 등의 이유로 국내 재배가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은 감송향(甘松香), 강진향(降眞香), 삼내자(三柰子), 소합향(蘇合香), 용뇌(龍腦), 유향(乳香), 육두구(肉荳蔻), 초두구(草豆蔻), 침속향(沈束香), 팔각향(八角香), 황연향(黃烟香), 흑향(黑香)이 있고, 고려시대까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으나 조선 세종대에 약재의 土産化 노력의 결과 국산화가 가능했던 방향식물(芳香植物)에는 정향(丁香), 자단향(紫檀香), 백단향(白檀香), 안식향(安息香), 영릉향(零陵香), 곽향(藿香), 회향(茴香), 백교향(白膠香), 청목향(靑木香), 모향(茅香)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약용(藥用)으로 사용되어 왔던 강활(羌活), 고본(藁本), 구기자(枸杞子), 천궁(川芎), 냉이, 당귀(當歸), 독활(獨活), 목향(木香), 방풍(防風), 백교향(白膠香), 백급(白芨), 백립(白蘘), 백지(白芷), 부평(浮萍), 사상자(蛇床子), 세신(細辛), 소나무, 쑥,

신이화(辛夷花), 애납향(艾納香), 오가피(五加皮), 울금(鬱金), 연(蓮), 작약(芍藥), 제비꽃, 지각(枳殼), 지황(地黃), 창출(蒼朮), 창포(菖蒲), 천오(川烏), 천초(川椒), 청호(靑蒿), 측백(側柏), 칩, 하수오(何首烏), 향유(香薷), 향부자(香附子), 현삼(玄蔘), 형개(荊芥), 황기(黃芪), 황련(黃連), 황백(黃柏)이 있었고, 향신료 및 음식에 활용이 많이 되었던 식물에는 겨자, 계피(桂皮), 고수, 국화(菊花), 귤피(橘皮), 도화(桃花), 들깨, 마늘, 박하(薄荷), 부추, 산초(山椒), 생강(生薑), 소회향(小茴香), 유자(柚子), 자소(紫蘇), 진달래꽃, 참깨, 파 등이 있다.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요법(香氣療法) 적용 가능 분야를 탐색하기 위해 고문헌 자료를 통해 검색된 81 종의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원산지외 기후 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물 12종을 제외한 69종의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고문헌상 활용자료를 바탕으로 ‘치료용’, ‘의식용’, ‘음식 활용’, ‘생활에 활용’, ‘미용 및 향장에 활용’의 총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사용분야를 정리하였다. 또한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 69종의 성분 및 약리적 효용성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일부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온 반면, 상당히 많은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상기 69종의 방향식물(芳香植物) 중 국내 선행 연구 수가 미미한 24종의 방향식물(芳香植物)을 추출하고, 고문헌상의 활용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고문헌의 숫자와 종류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문헌자료에 대한 추가 탐색을 통하여 더욱 더 많은 향기요법 및 방향식물 관련 자료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문헌에 기록된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연구 역시 더욱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향기요법(香氣療法)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서양의 향기요법(香氣療法)에서 주로 사용되는

외래산 허브에 집중되어있고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왔던 한국 방향식물(芳香植物)에 대하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국내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활용 성분의 차이에도 일부 있다고 보여진다. 서양 향기요법(香氣療法)에서 사용되는 향기성분의 추출방식이 대부분 수증기 증류법에 의존한 반면, 한국 전통 향기요법에서는 수증기 증류법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방향식물의 활용방법이 서양의 아로마테라피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던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성분 역시 서양의 향기요법(香氣療法)에서 사용되는 성분과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는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 추출법에 따른 성분, 효능의 차이 등 다방면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향기요법(香氣療法)의 특징이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향기성분인 정유(精油)의 효능을 활용하는 것이며, 정유(精油)의 특성상 구강복용법만이 아닌 흡입 또는 피부적용법에 의해서도 인체에 용이하게 흡수됨으로써 약리적, 생리적 작용을 할 수 있는 바, 간독성(肝毒性)의 이유로 식용 또는 구강복용에 문제가 있던 각종 방향식물(芳香植物) 사용의 제한점을 적용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향기요법(香氣療法)은 약리적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치료의 영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스스로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韓國) 전통(傳統) 향기요법(香氣療法)의 역사와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전통적 활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국산 방향식물(芳香植物)의 현대적 적용 분야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예견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21세기 미용 및 건

강 용·복합 산업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향기 콘텐츠 및 향  
기요법 관련 연구소재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석용, 박용기(2015), 곽향(藿香)의 난알부민으로 유도된 천식 마우스에서의 천식개선 효능연구, 大韓本草學會誌 30(3), pp.1-12
- 강영희(2008), 생명과학대사전, 아카데미서적
- 강은미, 심기환(2001), 한국산 삼주의 화학성분,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8(1), pp.79-85
- 고경숙(2012), 자화지정 메탄올추출물의 항산화효능에 관한연구, 한국미용학회지18(5), pp.1082-1086
- 고경숙(2013), 자화지정 추출물 적용에 따른 모발손상 및 형태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9(3), pp.411-419
- 고응배(1992), 蒼朮의 血糖降下作用에 관한 研究, 제주한라대학 論文集16, pp.309-321
- 孔錫龜(2007), 안약 3호분의 주인공과 고구려, 白山學報 78, pp.61-88
- 곽재혁, 권미향, 나경수, 성하진, 양한철(1996), 냉이(Capsella bursa-pastoris)로부터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물질의 정제 및 이화학적 성질, 한국식품과학회지 28(1), pp.184-189
- 곽충실, 최혜인(2015),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in vitro 항산화 효과 및 RAW 264.7 대식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4(10), pp.1439-1449
- 구민정(2003), 高麗時代 香椀 研究, 東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구본석, 황의일, 소승호, 이성계, 한경호, 김나미(2007), 사상자(Torilis Fructus)가 섬유아세포의 Procollagen 생합성과 Matrix metalloproteinase-I(MMP-1)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생약학회지 38(4), pp.349-353

- 권순형(2013), 고려 전·중기 향과 문화 생활, 한국문화연구 25, pp.7-35
- 권헌교, 염상희, 신원섭, 연평식, 이정희, 이효은(2011), 편백정유향 흡입이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2011(4), p.132
- 김경순, 심상희, 장지면, 정재훈, 김박광, 청호의 육모활성연구, 약학회지 43(6), pp.798-801
- 김경자, 최옥자, 김용두, 강성구, 황금희(2001), 고수의 향미성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7(1), pp.80-90
- 김경한, 정현아(2014), 고삼(苦蔘), 지실(枳實), 형개(荊芥), 연교(連翹), 마치현(馬齒莧) 추출물이 포함된 외용제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7(1), pp.17-36
- 김다솜, 노광수(2014), 냉이부위별에 따른 SOD유사활성과Proline함량, 한국자원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2014(9), pp.167-167
- 김동석, 이성호, 정연봉(1994), Adriamycin의 독성 발현에 미치는 백림(Ampelopsis radix)의 영향, 韓國食品營養學會誌 7(3), pp.232-238
- 김두진(2002) 한국 축문화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35-38
- 김미애, 정태영, Daniel JA(1996), 진달래꽃으로부터 분리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항산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39(4), pp.320-326
- 김미애, 정태영, Daniel JA(1996), 진달래꽃으로부터 분리된 페놀산 화합물의 항산화성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39(6), pp.506-511
- 김미옥(2008), 일반 소비자의 아로마오일 인지도와 활용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3
- 김미정, 노재섭, 이경순, 황방연, 오갑진, 최우희, 강신정, 정선채(1999), 붉나무 수피의 성분, 생약학회지 30(3), pp.295-300

- 김상률(2014), 삼주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服飾文化研究 22(3), pp.361-370
- 김상미, 김태희, 이은방(1998), 사상자의 항염증작용, 생약학회지 29(4), pp.384-390
- 김상무, 최창혁, 김장원, 원세라, 이해익(2008), 회향열수 추출물의 치면 세균막 형성 억제 효과,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지 51(1), pp.84-87
- 김선민(2006), 방향성 약용식물의 산업화 전략, 약품개발연구지 15. p. 319
- 김선민, 김경준(2011), 창출(蒼朮) 에탄올 추출물이 비만세포 매개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4(1), pp.45-63
- 김소영, 양지혜, 이승민, 이영미(2014), 한국음식에 사용된 향신료의 종류와 특성 변화,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2014(11), p.167
- 김수영(2002), 쑥향기 흡입을 병행한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영, 김명애(2005), 쑥향기 흡입을 병행한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및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성인간호학회지 17(3), pp.358-367
- 김승현, 강미영, 남석현(2005), 광향(*Agastache rugosa*)을 포함한 21종의 한약재가 대식세포주 RAW 264.7 세포의 nitric oxide(NO) 생산 조절에 미치는 효과,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지 48(4), pp.411-417
- 김신규(1979), 한약재로 제조한 Tar 에 대한 연구 (7)-사상자 Tar 의 감압분별 증류물의 항균작용, 경희약대 논문집 7, pp.75-77
- 김열규(1989), 한국의 신화, 일조각, pp.48-54
- 김영제(2009), 송(宋),고려(高麗) 교역(交易)과 송상(宋商) -송상(宋商)의 경영형태(經營形態)와 그들의 고려거주공간(高麗居住空間)을 중심(中心)으로-, 史林 32, pp.201-227

- 김옥찬, 장희진(1994), 청호(*Artemisia apiaceae* Herba) 의 휘발성 성분,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37(1), pp.37-42
- 김왕인, 김지은, 이선희, 문양선, 이숙희, 박수연, 나창수(2013), 화피, 석류피, 염부수백피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 효과, 大韓本草學會誌 28(3), pp.45-52
- 김용두, 강성구, 최옥자(2001), 고수(*Coriandrum sativum* L.) 추출물의 항균 활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0(4), pp.692-696
- 김용민, 김미혜, 양용모(2015), 지방합성 인자 조절 및 식이 섭취 감소를 통한 과량의 항비만 효능, 한방비만학회지 15(2), pp.104-110
- 김유정, 배성진, 이효은, 양한석, 최재수(1995), 부평초의 화학성분 및 항산화효과에 관한 연구, 생약학회지 26(1), pp.97-97
- 김윤제, 김관수, 박시형, 정명근(2004), 약용식물 삼주 수집종 및 뿌리 형태별 유효성분 함량 차이,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9(2), pp.252-253
- 김장현, 천진홍, 김성윤, 박용기(2008), 백렴의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대한 억제효과, 大韓本草學會誌 23(4), pp.91-101
- 김정희(2013), 쌍영총(雙楹塚) 의식행렬도(儀式行列圖) 벽화(壁畫)의 도상(圖像)과 성격(性格), 강좌미술사 41, pp.269-312
- 김지연, 서보람, 고영관, 황인택, 문석식, 모니르, 엄준원, 한병수, 심상인, 최정섭(2012), 신규제초제 작용점 KAPAS를 저해하는 자단향 추출물의 제초활성 및 활성물질 분리, 한국잡초학회 별책 32(1), pp.84-84
- 김지은(2010), 통일신라의 대일교역품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2013), 고대 香藥의 유통과 불교의례, 경주사학, Vol.37 No.-, pp1-33
- 김진경, 이봉호, 방진기, 박충범, 이병규(2001), 향유 및 배초향 정유성분의

- 화학형 분류,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13(1), pp.71-77
- 김진희, 구정리, 김경환, 최성락, 양지영(1994), 냉이 ( *Capsella bursa - pastoris* )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라디칼 소거 및 항산화 활성, 韓國食品營養學會誌 7(3), pp.169-176
- 김충용, 김용범, 양병철, 이종화, 정문구, 양기화, 장동덕, 한상섭, 강부현 (2005), 청목향 *Aristolochiae radix*에 있어 F344 랫드의 독성, 大韓獸醫學會誌 45(1), pp. 29-37
- 김태훈(2008), 추출방법에 따른 백단향의 항산화 및 생리활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5(3), pp.456-460
- 김태희, 이은방, 강삼식, 조성익, 김경란(1999), 사상자 중 Torilin의 분리 및 진통소염작용, 생약학회지 30(2),pp.137-144
- 김한섭 최종백(1987), 제채가 TAA 중독백서(中毒白鼠)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東西醫學 12(1), pp.25-30
- 김환수, 박병욱, 김기협, 박광식(1995), 사상자 물추출물의 혈액 응고 작용, 藥學會誌39(1), pp.55-60
- 길기태(2006),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기연, 이정순(2013), 향나무 심재 추출물로 염색된 직물의 방미성과 집먼지 진드기 기피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pp.687-699
- 남혜선, 조민경(2012), 폐암세포에서 백림의 항암효능연구 - Bcl-2 family 단백질조절을 통한 자가사멸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6(1), pp.71-80
- 류경수, 이명철(1978), 사상자 (蛇床子)의 성분연구, 경희약대 논문집 6, pp.61-67
- 리순화, 류지영, 장뢰, 유희숙, 김지혜, 권태중, 강상모, 최태부, 안성관(2007), B16F10 mouse melanoma 세포주에서 백급에 의한 Tyrosinase 발현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대한미용학회지 3(2),

pp.5-20

- 문창규, 육창수, 이우철(1977), 한국산 제비꽃속의 성분에 의한 분류(2), 생약학회지8(4), pp.174-174
- 박경식(2013), 한국의 석등, 학연문화사
- 박권우(2007),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 선진문화사
- 박난영, 정용진, 이상철(2007), 추출조건에 따른 진달래 화분의 이화학적 특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4(1), pp.73-77
- 박남수(2009), 752년 金泰廉의 對日交易과 「買新羅物解」의 香藥, 韓國古代史研究, Vol.55 No.-, pp.341-391
- 박미선(2005), 新羅下代 石造物에 나타난 茶.香 供養像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규, 김윤경, 오명숙(2006), 처방제형학, 영림사 p.24
- 박소이, 김태수, 문은영, 박춘근, 최미경, 강명화(2010), 일당귀와 회향 추출물의 생리활성측정,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11), pp.142-142
- 박수현, 심윤범, 서홍원, 김진규, 이진구, 임순성(2010), 마우스에서 삼색제비꽃 추출물의 진통 효과와 매커니즘, 韓國藥用作物學會誌 18(4), pp.238-243
- 박승만, 안상우, 조종관(2005), 백렴 抽出物이 腫瘍免疫에 미치는 영향,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1(2), pp.113-140
- 박승우, 김상교, 김미정(2006), 진달래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인체 KB cell에 대한 세포독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3(4), pp.501-505
- 박유화, 김성문(2008), 털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var. *ciliatum* Nakai) 정유의 성분분석과 독성평가, 한국응용생명화학학회지 51(3), pp.233-237

- 박재익(2005), 편백정유향의 흡입이 학생의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익, 송중은, 조문경, 이종섭, 손기철(2004), 편백정유향의 흡입이 학생의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 및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2004(10), p.28
- 박추자, 김동한, 김미림, 박찬성(2006), 회향과 감초를 첨가한 육포의 건조방법에 따른 조직특성,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학술대회 2006 p.99
- 배기상, 박희제, 김도윤, 서상완, 박경배, 김병진, 송제문, 이경용, 나철, 신병철, 박성주, 송호준, 황성연(2008), 곽향 추출물의 염증성세포활성물질 억제효과, 大韓本草學會誌 23(3), pp.119-125
- 배만중(1987), 냉이의 脂肪質 및 脂肪酸 組成에 관한 研究,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6(2), pp.83-86
- 배상경(2007), 건직물에서의 진달래의 염색성, 論文集 23, pp.599-608
- 서동주, 김정미, 김태혁, 백종미, 김태우, 김현숙, 최면(2010), 회향종자 (Foeniculum fructus) 물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9(11) pp.1604-1610
- 서연희, 조후중, 오성천(1996), 약이성 음료(藥餌性飲料)에 관한 고찰, 자연과학논문집, Vol.14 No.- pp. 76-83
- 서호수(2008), 海東農書(고농서국역발간추진위원회 번역), 농촌진흥청 (원서출판 18세기 후반)
- 성현수, 고유라, 최인화(2014), 편백 정유향의 흡입이 주의집중력과 기분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Forest Science 30(1), pp.62-70
- 손관화, 송지숙, 채영암, 김기선(1998), 향유의 생육과 정유의 정성 및 정량적 분석,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39(6), pp.809-813,

- 손동우(2013), 香氣療法(翠雲香)이 鎮靜 및 抗癌變에 미치는 實驗的 研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손형우, 허진철, 서명선, 이상한(2010) 자소엽 및 자소자의 염증조절 활성  
비교,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7 No.5 pp.757-761
- 손형우, 이숙희, 김민아, 박희준, 이상한(2012), 도화 및 도화약 추출물의 미  
백활성 비교,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9(6), pp.946-950
- 솔피(송상근)(2010), 약초도감, 넥서스
- 송영위, 이지현, 송규주, 구병수, 김근우(2012), 백단향추출물의 항산화, 항혈  
소관 응집 및 혈전 용해능에 관한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3(1), pp.115-128
- 송철민, 신선호, 정현애, 이준경, 조려화, 강대길, 이호섭(2006) 정향피 추출  
물의 혈관 이완효과 및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5), pp.1166-1173
- 신동화, 이연재, 장영상, 강우석(1992), 붉나무 추출물과 몇가지 synergist를  
첨가한 기름 튀김 식품의 저장 안정성 비교, 한국식품과학회지  
24(6), pp.547-551
- 신민교, 고운채(1987), 자화지정의 진통 및 소염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생약학회지 18(4),pp.210-215
- 신민자, 최영진(1998), 임원십육지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전통음료의 향약성  
효과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8(2), pp. 81-92
- 辛承云(1982), 山林經濟, 民族文化 8, pp.113-127
- 辛承云(2008), 朝鮮初期의 醫學書 「食療纂要」에 對한 研究, 서지학연구  
40, pp.121-151
- 신승원(2010), 향유 지상부의 정유의 수증 향생제 내성 병원성 균주에 대한  
억제효과", 약학회지 54(2), pp.122-125

- 심상혁(1977), 蛇床子の 精油成分, 德成女大論文集 5-6, pp.571-575
- 안봉진, 이창언, 손준호, 이진영, 최귀향, 박태순(2005), 진달래꽃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aninow) 추출물의 항산화, 항암 효과 및 tyrosinase 저해활성,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48(3), pp.280-284
- 안봉진, 이진태, 이창언, 손준호, 이진영, 박태순(2005), 진달래꽃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aninow)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 및 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48(3), pp.273-279,
- 안점우, 김정연, 김동일(2000), 향기요법의 임상응용과 한의학적 접근, 대한 한방부인과학회지 13(1) pp.557-580
- 양인준, 유학인, 이동웅, 신흥묵(2014),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he Fruits of *Foeniculum vulgare* i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Macrophages, 생명과학회지 24(9), pp.981-987
- 양한철, 성하진, 나경수, 홍정일, 권미향(1995), 냉이(*Capsella bursa - pastoris*)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라디칼 소거 및 Xathine Oxidase 저해활성,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38(6), pp.590-595
- 엄영란, 목소연, 신재혁, 김슬기, 조병현, 조용백(2014), 영릉향으로부터 분리된 Foenumoside B의 부위별 함량비교 연구, 생약학회지 45(1), pp.88-92
- 엄지태(2011), 韓醫學에서 香의 概念과 應用에 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엄지태, 김정신, 강정수, 김병수(2011), 방향성(芳香性) 본초(本草) 분류를 통한 향기요법(香氣療法) 연구(研究),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1), pp.39-50
- 오지영, 최웅, 김용석, 신동화(2003), 붉나무 수피로부터 항산화 물질의 분리

- 및 동정, 한국식품과학회지 35(4), pp.726-732
- 오지현(2016), 자소엽과 어성초 추출물이 두피 개선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지훈, 김도림 박수연, 장문석, 박성규(2014), Leydig Cell의 항산화에 미치는 별사상자와 사상자의 비교연구, 大韓本草學會誌 29(6), pp.111-116
- 육현충(2004), 꿀풀과 식물 배초향과 자소의 방향성 정유 성분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광원, 신광순(2001), 창출 성분의 장관면역 자극을 통한 골수세포 증식활성, 한국식품과학회지 33(1), pp.135-141
- 유민정, 이숙영, 조상혁, 박열(2010), 향나무 추출물의 항균, 항산화 및 각질세포 보호 효과,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2), pp.107-116
- 유중립(2004), 增補山林經濟(고농서국역발간추진위원회 번역), 농촌진흥청(원서출판 1766)
- 유학인, 양인준, 빅터루베리오린차, 박인식, 이동웅, 신흥묵(2015), HaCaT 세포에서 회향 열매의 피부장벽기능과 hyaluronic acid 생성에 미치는 영향, 생명과학회지 25(8), pp.880-888
- 육창수, 류경수, 이명철(1977), 사상자 과실의 성분연구, 생약학회지 8(4), pp.173-174
- 육창수, 문창규(1985), 금강제비꽃잎의 플라보노이드 배당체(V), 생약학회지 16(1), pp.40-40
- 육창수, 이우철, 문창규(1989), 금강제비꽃 잎의 Flavonoid 배당체 ( II ), 약학회지 33(2), pp.124-128
- 윤경은 장매희(2002), 허브식물과 아로마테라피,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15(4), pp. 1-6

- 윤광섭, 홍주현, 권중호, 최용희(2006),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향유 추출공정의 최적화,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3(3), pp.363-368
- 윤대환, 강자돈, 주준성, 채우석, 나창수(2004), 고지방식이(高脂肪食餌)로 유발(誘發)된 비만백서(肥滿白鼠)모델에서 창출(蒼朮), 의이인(薏苡仁), 마황(麻黃), 창출합의이인(蒼朮合薏苡仁) 마황합록차(麻黃合綠茶) 약침(藥鍼)이 혈청지질(血清脂質) 및 간기능(肝機能)에 미치는 영향(影響), Journal of pharmacopuncture 7(1), pp.87-100
- 윤수홍, 강정혜, 권정숙(1989), 사염화탄소로 인한 간 독성에 미치는 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화분의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8(4), pp.363-370
- 윤지훈, 박성근, 이미지, 박진영, 서교성, 우경철, 이창언(2013), 백급(Bletilla striata Reichenbach fil.) 분획물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와 화장품소재로서의 연구, 생명과학회지 23(9), pp.1073-1078
- 이강욱, 이수경, 장기완(1999), 계피(Cinnamomi cortex)추출물이 mutans streptococci 의 성장과 hydroxyapatite beads 에의 부착에 미치는 효과, 大韓口腔保健學會誌 23(1), 2pp.5-34
- 이경록(2010), 조선 세종대 향약 개발의 두 방향, 泰東古典研究 26, pp.215-250
- 이경호, 이기형(2012), 향나무 추출물의 Galectin-3 저해에 의한 암 전이 억제 효과, 韓國食品營養學會誌 25(4) pp.713-718
- 이경호, 김병수, 최영호, 이기형(2012), 향나무 추출물의 항말라리아 효과, 생약학회지 43(3) pp.239-242
- 이경희(2011), 조선시대 쑥문화와 의생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이주영, 권영숙(2005), 우리나라 전통 향의 용도와 성격적 특성
- 이경희, 권영숙(2006), “고문헌을 통해 본 방충향”, 복식문화연구 14(5)

- 이기동(1997), 한국사 時代區分論, 한국사 시민강좌 20, 일조각 pp.125-142
- 이내옥(2010), 백제금동대향로의 사상, 진단학보 109, pp. 1-28
- 이대우, 김영진, 김영실, 엄상용, 김종현(2006), 향유의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 및 항염효과와 화장품 원료로서의 특성, 大韓化粧品學會誌 32(4), pp.219-225
- 손관화, 송지숙, 김기선(1998), 향유와 꽃향유의 휘발성 정유 성분의 동정, 원예과학기술지 16(1), pp.121-121
- 이대훈, 한재민, 양용모(2015), 창출이 제 2형 당뇨병 흰쥐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36(1), pp.75-85
- 이동성, Li B. 이윤정, 천현자, 류일환, 지연주, 채권우, 김영숙, 손지우, 강현규, 이성희, 안인파, 이호섭, 김윤철(2011), 자화지정 기원 식물의 뇌세포 보호 효과, 대한구강약안면병리학회지 35(4), pp.209-214
- 이동성, 강민수, 김윤철, 임남경, 김현수, 정길생(2013), *Lactobacillus* spp. 이용 발효 붉나무의 기능성물질 검색에 대한 연구, 생명과학회지 23(1), pp.44-54
- 이미라, 한창석, 한동열, 박은주, 이승철, 박해룡(2008), Glutamate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제비꽃 추출물의 영향,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51(1), pp.79-83
- 이미라, 황지환, 박재희, 김현정, 박은주, 박해룡(2010), 제비꽃(*Viola mandshurica*)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9-hydroxy- $\alpha$ -tocopherone의 항산화 활성 및 세포 보호효과, 생약학회지 41(3), pp.166-173
- 이미순, 윤석권, 최향숙(1993), 냉이의 채취 시기 및 지역에 따른 풍미성분, 植物資源研究誌 1, pp.42-56
- 이미순, 강금지(1993), 지역에 따른 냉이의 아미노산 함량 분포, 植物資源研究誌 1(-), pp.57-62

- 이미순, 최향숙(1996), 건조방법에 따른 냉이의 휘발성 향기성분, 한국식품과학회지 28(5), pp.814-821
- 이미순, 최향숙(1996), 냉이의 식용부위별 휘발성 향기성분, 한국식품과학회지 28(5), pp.822-826
- 이보배, 박순례, 한창석, 한동열, 박은주, 박해룡, 이승철(2008), 제비꽃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alpha$ -Amylase와  $\alpha$ -Glucosidase에 대한 저해 활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7(4), pp.405-409
- 이상건, 송호준, 박기현, 신민교(2004), 藿香의 물 抽出物과 精油의 抗癌效果에 關한 研究, 大韓本草學會誌 19(2), pp.109-121
- 이상남, 김용현, 서부일(2010), 백렴(白斂)의 독성(毒性)과 불량반응(不良反應)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약응용학회지 10(2), pp.25-27
- 이상필(2006), 진달래꽃 추출물을 이용한 식물염색,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pp.166-167
- 이서운, 백덕우(1974), 한국산 단풍나무속 식물의 당에 관한 연구, 생약학회지 5(3), pp.155-157
- 이선경, 윤미영, 손 경우, 채한(2011), 아로마테라피의 연구 동향과 한의학적 활용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5(3) pp.398-405
- 이세희, 김근태, 김중일, 임은경, 김인섭, 김영민(2013), MCF-7 유방암 세포에서 영릉향 추출물에 의한 Apoptosis 유도에 관한 연구, KSBB Journal 28(5), pp.303-309
- 이수현, 조현주, 이윤정, 한재준(2013), 화랑곡나방 유충 방제를 위한 회향오일 기반 방충향낭 개발, 한국포장학회지 19(2), pp.81-85
- 이승연, 김희석, 김정옥, 황성완, 황성연(2006), 곱향과 갈근 복합제제의 대장암 세포주 HT-29 증식 저해효과 및 PGE2 생성 억제효과, 생약학회지 37(4), pp.283-294

- 이승은, 정태영(1991), 진달래꽃의 휘발성 성분에 관한 연구, 한국응용생명 화학회지 34(4), pp.344-352
- 이신호, 배추김치 발효에 미치는 냉이의 첨가 효과,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6(5), pp.559-563
- 이애련, 전해숙(2012),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우리나라산 전통향 고찰, 한복문화 15(3), pp.67-83
- 이양숙, 김남우(2008), 자화지정(Viola mandshurica)의 아미노산과 유용성분 비교 분석,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5(5), pp.699-705
- 이영노(2006), 한국식물도감, 교학사
- 이용진(2010), 三國時代 香爐 研究, 한국고대사탐구 Vol.5 pp.159-216
- 이장천, 이은, 오황, 윤호석, 하태광, 홍은희, 이영철(2007), 회향의 간장기능 회복효과, 大韓本草學會誌 22(4), pp.213-218, 대한본초학회
- 이재곤, 광재진, 임홍빈, 정재훈(2004), 향유와 꽃향유의 향기성분 조성 비교, 한국연초학회지 26(2), pp.109-116
- 李宰求, 金平吉, 白秉杰, 李相福, 安丙浚(1982), 白芨의 塊莖으로부터 肝吸蟲에 대한 殺蟲性 物質 分劃,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20(2), pp.142-146
- 이정수, 손창규, 조정호, 신장우, 유화승, 이연월, 이남현, 윤담희, 조종관(2005), 광향(藿香) 추출물(抽出物)이 장운동(腸運動)에 미치는 영향(影響), 大韓韓方內科學會誌, 26(4), pp.761-766
- 이정우, 이형구, 정희재(2007), 창출(蒼朮)이 천식 관련 Th1/Th2 세포 분비 cytokine에 미치는 영향, 大韓韓方內科學會誌 28(4), pp.681-693
- 이종원, 이재곤, 김미주, 도재호, 양재원(2001), 삼주의 휘발성 향기성분, 韓國食品營養學會誌 14(1), pp.15-19
- 이지우, 원진배, 마충제(2014), 청호의 Phytosterol 성분 분리 및 뇌세포 보

- 호 활성, 생약학회지 45(3), pp.214-219
- 이진영, 안봉전(2012), 도화(*Prunus persica Flos*) 분획물의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40(4), pp.364-370
- 李春寧(1986), 한국 古來의 香辛料, 식품과학과 산업.19(2) pp.18-24
- 이향영(2015), 『醫方類聚』의 釀法에 관한 문헌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수, 문형철, 박진홍, 김대호, 유재은, 박영식, 류이하, 최근표, 이현용(2003), 초임계 추출 공법을 이용해 회향, 유향 및 노간주나무로부터 분리한 정유 성분의 생리활성 비교, 韓國藥用作物學會誌 11(2), pp.115-121
- 이혜정, 최은영, 장관식, 이용환(2004), 전통 음청류의 분류 및 범주 정의, 식품과학과 산업 제37권 제4호, pp42-51
- 이효은, 신원섭, 연평식, 조영민, 염상희(2011), 편백정유향 흡입이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2), pp.61-68
- 이흠숙, 한대석, 원덕권, 한국산 청목향의 성분에 관한 연구(Ⅱ)(1990), 생약학회지 21(1), pp.52-55
- 이흠숙, 정석진, 정병옥(1994), 청목향의 Sesquiterpenoid 성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논문집 39(1), pp.469-475
- 임현아, 윤순일(2009), 냉이 추출물의 항균활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6(4), pp.562-566
- 장미희, 변성희, 서혜림(2015), 곱향의 간세포 보호효과, 東西醫學 40(1,2), pp.1-12
- 장영상, 최웅, 신동화, 신재익(1992), 항산화 효과가 있는 붉나무 추출물의 몇가지 Synergist 첨가 효과, 한국식품과학회지 24(2), pp.149-153

- 장준근(2009), 몸에 좋은 산야초, 넥서스
- 장지훈(1998), 신라 중고기의 호국불교, 한국사학보 4, pp.9-37
- 장현주(2016), 개구리밥 추출액을 이용한 홉치기 천연염색 어린이 배자 디자인 개발, 韓服文化 19(1), pp.119-132
- 전서영, 김성옥, 백영두, 구진숙, 안희덕, 김미려(2014), 방향성식물에 대한 국내,외 최근 연구 경향, 한약응용학회지 14(1) pp.11-17
- 전완길(1999):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pp19~163
- 전주원,이병찬,한두석,서부일(2004), 안식향이 인체상피암종세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大韓本草學會誌 19(1), pp.83-88
- 전호태(2013), 고구려 쌍영총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6, pp. 83-119
- 정동호 , 윤백현, 이영희(2012), 차생활문화대전, 홍익재
- 정보섭, 지형준, 한 대석, 이흠숙, 한국산 청목향의 성분 에 관한 연구(1989), 생약학회지 20(1), pp.54-54
- 정세연, 황재웅, 김석민, 정제한, 최창민, 정우상, 문상관, 조기호, 김영석, 선종주(2006), "중풍후우울증 환자에 대한 향기침요법의 임상적 연구", 大韓韓方內科學會誌 27(2), pp.480-487
- 정수일(2013), 실크로드 사전, 창비
- 정시련, 전경희, 이승호(2001), 천연물자원과 향기(방향)요법, 영남대학교 약품개발연구소 연구업적집, Vol.11 pp.281-294
- 정외숙, 전정례, 임용숙(2004), 냉이 김치의 숙성시 품질 특성 및 변화,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4(2), pp.131-134
- 정용석, 오민석, 송태원(1999), 《향보(香譜)》에 나타난 향기요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9(1) pp.316-344
- 정용재 · 이규식 · 한성희 · 강대일 · 이명희(2001), 천연약재로부터 문화재보존용 방충방균제 개발연구, 보존과학연구 22(2), pp.5-25

- 정재훈, 임흥빈(2004), 향유의 향기성분 분석 및 생리활성 김정, 韓國藥用作  
物學會誌 12(6), pp.463-472
- 조기정, 이순옥(2011), 전통 향약차(香藥茶) 고찰, 한국차학회지, 17(1),  
pp.1-7
- 朝鮮總督府(1915), 朝鮮古蹟圖譜 2卷 p99
- 조성언, 김병우, 임태진, 김동희, 권기록,(2008), 부평초약침이 지방세포 대사  
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pharmacopuncture 11(1), pp.71-82
- 조영제, 주인식, 천성숙, 안봉진, 김정환, 김명옥, 권오준(2008), 진달래꽃  
(*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Flower) 추출물의 생리활성  
탐색,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7(3), pp.276-281
- 조영호, 김진희, 심관섭, 이동환, 이범천, 표형배(2005), 백림 에틸 아세테이  
트 층의 항산화 활성과 Matrix Metalloproteinase-1 발현 저해효과,  
大韓化粧品學會誌31(1), pp.103-109
- 조은혜(2010), “서화 유물 보존에 사용된 전통 천연 약재에 관한 연구”, 용  
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재(2012), 한국 천연자원을 활용한 천연물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식품저장과 가공산업 11(2), pp.7-9
- 주인식, 조영제(2009), 진달래꽃(*Rhododendron mucronulatum* Flos.) 추출물  
로부터 *Helicobacter pylori* 억제 효과를 가지는 phenol성 물질의 정  
제 및 동정, 생명과학회지 19(8), pp.1125-1131
- 지형준, 임동술, 유승조(1985), 한국산 창출의 성분 연구, 생약학회지 16(1),  
pp.42-42
- 지형준(1997), 한국의 향신료 및 방향식물 자원, 한국자원식물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및 학술연구발표요지 pp.1-5
- 池江伊(1999), 新羅時代 香爐 變遷過程 研究, 考古歷史學志 15

- 채범석, 김을상(1998), 영양학사전, 아카데미서적
- 채상식(2012), 한국 중세시기 香徒의 존재양상과 성격, 한국민족문화 45, pp.51-87
- 蔡雄錫(2002), 여말선초 향촌사회의 변화와 埋香활동, 역사학보 173, pp.95-125
- 蔡雄錫(2006), 여말선초 泗川 지방의 埋香活動과 地域社會, 한국중세사연구 20, pp.231-261
- 채웅석(2016), 한국 고대 香徒의 조직과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1, pp.179-220
- 천용식, 여상헌, 한재준, 나자현(2015), 한약재 추출물에 대한 화랑곡나방, 어리쌀바구미, 곡식수시렁이의 기피효과,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 pp.218-218
- 최미희, 김건희(2007), 식물자원의 정유성분의 생리활성, 植物資源研究誌, Vol.6, pp.191-217
- 최상란(2014), 편백 정유향 흡입이 일반 직장인의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전(2008), HERBS 대사전, 예가, pp.564-568
- 최옥자, 김경수, 정현숙(2002), 고수의 가열처리에 따른 향미 성분의 변화, 한국가정과학회지 5(1), pp.94-106
- 최은미, 구성자(2004), Inhibition of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inflammatory mediator production in RAW264.7 macrophages by *Foeniculum vulgare* fruit extract,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0(5), pp.505-510
- 최웅, 신동화, 장영상, 신재익(1992), 식용유지에 대한 붉나무 추출물에 항산화 효과, 한국식품과학회지 24(4), pp.320-325

- 최향숙, 이미순(1988), 연속증류추출시 추출용매가 냉이의 휘발성 향기성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대 자연과학 논문집 4(-), pp.159-170
- 최향숙, 강은진, 김건희(2005), [P1-16] SDE 및 SPME에 의한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Medicus) 정유 및 headspace 분석,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산업심포지움발표집 2005(10), pp.379-379
- 최향숙, 강은진, 김건희(2006), SDE 및 SPME에 의한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Medicus)정유 및 Headspace 성분 분석,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13(1), pp.108-114
- 최현정, 방나영, 송보완, 김남재, 류봉하(2004), 한약제형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 慶熙醫學 20(1) pp.356-367
- 韓基汶(2008), 高麗時代 開京 奉恩寺의 創建과 太祖眞殿, 한국사학보 33, pp.205-246
-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한국식품과학회(2008), 식품과학기술대사전, 광일문화사
- 한대석, 이흠숙(1993), 청목향의 Lactam 배당체, 생약학회지 24(1), pp.32-37
- 한상길(2004), 향료문화의 발달사, 신광출판사, pp13-138
- 한상길(2011), 향료기술 용어집, 순천향 대학교 출판부, pp.195-196
- 한서연, 박은진, 송영아, 강준원(2011), 테라피스트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입문, 한국아로마테라피인증학회
- 한억(1996), 전통음청류의 과학적 고찰, 仁濟食品科學FORUM論叢 -(4), pp.31-67
-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2010), 한의학대사전, 정담
- 한중수(2010), 황칠(黃漆), 동방논집 3(1), pp.1-14
- 한지희(2011), 문헌으로 본 한국 전통 의복 관리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성규, 이은, 박원형, 차윤엽(2013) , 회향(茴香) 추출물이 LPS를 처리한 Rat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23(2), pp.73-83
- 허수진, 양미옥, 조은자(2001), 미나리과 산채의 성분분석 및 육가공품에 대한 항산화 효과,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17(5), pp.456-463
- 허인희, 심성용, 김경준(2007), 창출 추출물의 BV2 cell 소염작용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2), pp.36-46
- 허준(2014), 東醫寶鑑(동의보감 국역위원회 번역), 남산당(원서출판 1613)
- 홍남두, 김신규, 최정환(1984), 모근의 지혈효과에 관한 연구, 생약학회지 15(1), p.45
- 홍선화, 김옥진(2013), 사상자 추출물의 자돈 병원성 대장균 억제 효과, 韓國家畜衛生學會誌 36(4), pp.283-289
- 홍세철, 정진부, 박재호, 이희경, 정영진, 권윤, Nellie An Garcia, 정규영, 정형진(2008), 곽향 추출물로부터 활성산소에 의한 DNA damage 억제 및 항산화 활성, 한국자원식물학회 학술심포지엄 2008(4) p88
- 홍성민, 박은석, 박민경, 한정은, 김경아(2006), 능률한영사전, 능률교육
- 홍정일, 나경수, 양한철(1994),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라디칼 소거 및 항산화 활성, 韓國食品營養學會誌 7(3), pp.169-176
- 홍혜선, 전승호, 권용수(2007), 진달래 줄기의 세포독성 성분, 생약학회지 38(3), pp.227-233
- 황금희, 윤연희, 최인선, 최옥자, 강성구, 김용두(2001), 식이내 고수(Coriandrum sativum L.)의 첨가가 당뇨성 흰쥐의 혈장과 간의 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0(4), pp.684-691

황의일, 이성계, 소승호, 구분석, 한경호, 김나미(2007), 사상자 (Torilis Fructus)의 지표성분으로 Torilin의 분리 및 함량분석법 개발, 생약학회지 38(4), pp.321-326

황치혁(2013), 熏法을 통한 SR-1이 심박변이도(HRV) 및 스트레스 이완에 미치는 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현진, 최정섭, 서보람, 민석기, 김진석(2008), 창출로부터 분리한 Furanodiene의 남조류에 대한 생육억제활성, 한국잡초학회 별책 28(2), pp.41-42

- Axel R (2005), Scents and sensibility: a molecular logic of olfactory perception (Nobel lecture), *Angew Chem Int Ed Engl*, 44(38), pp.6110 - 6127
- Baek YM(2012),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Antibiosis of Sized Fabrics with *Blethilla striata*,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 1(1), pp.23-27
- Battaglia S.(2004), *The Complete Guide to Aromatherapy, Perfect Potion*, pp.101-125
- Bowles (2003), *the Chemistry of Aromatherapeutic Oils*, Allen & Unwin pp27-39
- Carson CF, Riley TV.(1995),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major components of the essential oil of *Melaleuca alternifolia*. *J Appl Bacteriol.*78(3) pp.264-9.
- Cha BC, Lee SB, Rhim TJ(2000), Antioxidative and Antihepatic Effects of *Galla Rhois*(*Rhus javanica* Linne),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2000(1), pp.183-184
- Chung SC(1999), Chemical Components from the Stem Bark of *Rhus javanica* L,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30(3), pp.295-300
- Chun CS, Kim JH, Lim, HA, Sohn HY, Son KH, Kim YK, Kim JS, Kwon CS(2004), Antioxidative Effect of *Rhus javanica* Linne Extract Against Hydrogen Peroxide or Menadione Induced Oxidative Stress and DNA Damage in HepG<sub>2</sub> Cells,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9(2), pp.150-155
- Cho YH, Kim JH, Sim GS, Lee BC, Pyo HB(2005), Antioxidant

- Constituents from *Melothria heterophylla*; Regulat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1 Expression in Ultraviolet A-irradiated Human Dermal Fibroblasts, *Journal of the society of cosmetic scientists of korea* 31(4), pp.323-327
- da Silveira e Sá Rde C, Andrade LN, de Sousa DP.(2015), Sesquiterpenes from Essential Oils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Nat Prod Commun.* 10(10), pp.1767-1774.
- Jeon JS, Kim CY, Kim HG, Um BH(2008), Rapid Analysis and Purification of Antioxidant Flavonoids from *Jindalrae* (*Rhododendron mucronulatum*) Flowers using On-line ABTS?-HPLC and Centrifugal Partition Chromatography, *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pp.68-68
- Keverne E.B. , Brennan P.A. (1996), Olfactory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Physiology-Paris*, 90(5), pp.399 - 401
- Kim K, Lee SH, Kang KH, Kim BK(2005), Flavonol Galactosides from *Artemisia apiacea*", *Natural Product Sciences* 11(1), pp.10-12
- Kim BK(2004), Analysis of Bioactive Substances from *Artemisia apiacea* and *Paulownia tomentosa*, *The Korean Society of Pharmacognosy* 2004(2), pp.79-79
- Hwang GH, Heo YR, Lee HJ, Choi OJ, Kang SK, Kim YD(2001), Effects of *Coriandrum Sativum* L. on Lipid Metabolism in Rats with Hypertriglyceridemic Diet", *Nutritional Sciences* 4(1), pp.13-19
- Knobloch K(1989), Antibacterial and antifungal properties of essential oil components, *The Journal of Essential Oil Research*, 1(3),

pp.112-128

- Lawless J.(1995), The Illustrated Encyclopedia of Essential Oils, Element Books Ltd pp.10-25
- Lee BW, Kim DH(2003), Inhibitory Effect of *Violae herba* extract on Inflammatory Cytokine Production by IL-1 $\beta$  and TNF- $\alpha$  in cultured Human Synovial Cells,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18(3), pp.89-96
- Lee SH, Kim KS, Jang JM, Park YM, Kim YB, Kim BK(2002), Phytochemical Constituents from the Herba of *Artemisia apiacea*,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25(3), pp.285-288
- Lee SH, Kim KS, Shim SH, Park YM, Kim BK(2003), Constituents from the Non-Polar Fraction of *Artemisia apiacea*,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26(11), pp.902-905
- Lee SJ, Kim HM, Lee SH, Kim HY, Um BH, Ahn YH(2006), Apicin, A New Flavonoid from *Artemisia apiacea*,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27(8), pp.1225-1226
- Lee SH, Kim HM, Lee JM, Park JY, Lee SL(2008), Artemisterol, a New Steryl Ester from the Whole Plant of *Artemisia Apiacea*, Journal of Crop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8(-), pp.227-227
- Lim S, Shin SW(2007), Synergism in Antifungal Activity against *Candida* and *Trichophyton* Species in Combination with the Essential Oil of *Coriandrum sativum* L. and Antibiotics, Natural Product Sciences 13(1), pp.85-89
- Li M, Zhou Y, Feng G, Su SB(2009), The critical role of Toll-like receptor signaling pathways in the induction and progression of

- autoimmune diseases. *Curr Mol Med.* 9(3), pp.365–374.
- Li W1, Luxenberg E, Parrish T, Gottfried JA.(2006), Learning to smell the roses: experience-dependent neural plasticity in human piriform and orbitofrontal cortices., *Neuron*, 52(6) pp.1097–1108.
- Lorenzetti BB, Souza GE, Sarti SJ, Santos Filho D, Ferreira SH.(1991), Myrcene mimics the peripheral analgesic activity of lemongrass tea, *J Ethnopharmacol.* 1991 34(1) pp.43–8.
- Lv XN1, Liu ZJ, Zhang HJ, Tzeng CM.(2013), Aromatherapy and the central nerve system (CNS): therapeutic mechanism and its associated genes., *Curr Drug Targets*, 14(8), pp.872–879
- Mina CN, Farzaei MH, Gholamreza A(2015), Medicinal properties of *Peganum harmala* L. in traditional Iranian medicine and modern phytotherapy, *J Tradit Chin Med.* 35(1), pp.104–109
- Mir R1, Jallu S, Singh TP(2015), The shikimate pathway: Review of amino acid sequence, function and three-dimensional structures of the enzymes, *Critical reviews in microbiology.* , 2015, Vol.41(2), pp.172–189
- Morimitsu Y, Morioka Y, Kawakshi S (1992) Inhibitors of platelet aggregation generated from mixture of allium species and/or S-alk(en)yl-L-cystein sulfoxides. *J Agric Food Chem* 40 pp.368–375.
- Schacter DL, Gilbert DT, Wegner DM(2008), Worth Publisher, p151–262
- Schnaubelt K (1999), *Medical Aromatherapy: Healing with Essential Oils*, Frog Books
- Sung YY, Yoon TS, Yang WK, Kim SJ, Kim HK(2011), Inhibitory

Effects of *Elsholtzia ciliata* Extract on Fat Accumulation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54(3), pp.388-394

Takahashi M, Yamanaka A, Asanuma C, Asano H, Satou T, Koike K.(2014), Anxiolytic-like effect of inhalation of essential oil from *Lavandula officinalis*: investigation of changes in 5-HT turnover and involvement of olfactory stimulation, *Nat Prod Commun.* 9(7), pp.1023-1026

Tomić M, Popović V, Petrović S, Stepanović-Petrović R, Micov A, Pavlović-Drobac M, Couladis M.(2013), Antihyperalgesic and antiedematous activities of bisabolol-oxides-rich *matricaria* oil in a rat model of inflammation, *Phytother Res.* 28(5), pp.759-66

Woo KWan, Park JE, Choi SU, Kim KH, Lee KR(2014), Article : Phytochemical Constituents of *Bletilla striata* and Their Cytotoxic Activity, *Natural Product Sciences* 20(2), pp.91-94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국가자연사 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naris.go.kr>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국립고궁박물관:<http://www.gogung.go.kr>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문화재청: <http://www.cha.go.kr>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외규장각 의궤; <http://uigwe.museum.go.kr>  
한국전통지식포털: [www.koreantk.com](http://www.koreantk.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folkency.nfm.go.kr>  
한의학 고전 DB: <http://mediclassics.kr>

# ABSTRACT

## Literature Study on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Centered around research on utility of korean incense plant-

**Song Young Ah**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Aromatherapy that talks of 'cure method using scent', but the modern aromatherapy contributes to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many fields such as beauty, psychology, living health and etc. As toxicity of synthetic chemical and revelation of side effects increase, the consumer demand for safe material and preference of natural substances both equally increased, and obviously, goods utilizing such substances are being increasingly developed and used. The increase of interest on health care through natural products by modern consumers implies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aromatherapy using the efficacy of natural incense plant..

Generally, aromatherapy in its modern acceptance is known to be a part of Alternative Medicine that started in the western countries and then later spread to other various countries, but aromatherapy using

incense plant has been in existence throughout the globe in many forms from the start of human history,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Many of aromatherapy-related researches in Korean academia were mainly based on utilizing incense plants from the West. Partial researches on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were fragmentally done in the field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food and nutrition, cultural history, plant, agriculture and etc., but general insight on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and investigation on usefulness of incense plants used in aromatherapy were minimal.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re-explore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through conducting integrated investiga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ingredients and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which was used in different field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cept and contents of aromatherapy based on the historical records and preceding researches.

The concept of aromatherapy does not only mean 'a type of alternative medicine using scent in its cures' but has a broader meaning containing 'all methods utilizing aroma components in cure of a sickness or for convenience in life. Aromatherapy is based on the functionality contained in aroma components of incense plants. The chemical components of essential oil, the aroma component of plants, is a part of organic compounds created during the photosynthesis process, and the basic structures are composed of terpenoids and phenyl propanoids

largely based on the biosynthesis process, in here are the substructure made of various organic functional groups. (Bowles, 2003) Based on their basic structures and organic functional groups, they exert anti-bacterial effects, antioxidation effects, bisabolol effects, anticancer effects, various medical effects, physiological effects based on adjustability of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hormone system, and psychological effects that affect human emotions and memory status through olfactory stimulation. Through such various effects, aromatherapy can be applied in many different fields for carrying on a healthy human life including medical cures.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 of preceding researches regarding the scent of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raditional researches on Korean traditional scent were named in various individual concepts like aroma, scent culture, incense plant resource, and there were very few researches that wielded precisely 'aromatherapy of Korea' as its keywor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concept of 'aromatherapy' was limitedly used in 'remedy', but also because Korean 'aromatherapy' researches were usually conducted centered around foreign incense plants. There were researches on Korean traditional aroma, but they were conducted separately and individually in different fields such as oriental medicines, food and nutrition, conservation science and ancient arts. However, since individually treated scent of Korea and scent culture are based on functionality and medical actions of incense plants, it can be considered as a part of aromatherapy in general.

Third, aromatherapy of Korea was examined divided into historical divisions of pre-history,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and period of unified Shilla Dynasty, Koryo Dynasty and Joseon Dynas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arliest origin of Korean aromatherapy can be found in its birth myth, Dangun mythology. Considering the facts that incense plants of garlic and mugwort were used as medicine and Dan-soo(檀樹) being used as communication medium with gods, it can be easily analogized that the Korean people have utilized incense plants from long ago. However, it was from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when incense plants were used in earnest. Goguryeo, Baekje and Shilla all used incense burners, and traces of aroma extraction were apparent on wall paintings, artifacts, relief and etc. Especially, Goguryeo Buddhist monk Mukhoja introduced aromatherapy by teaching how to use scent. Aromatherapy in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was usually related to Buddhist rites, as it was given as individual offering but also as a national offering for safety of the country. Many of the incenses used in such rites were mainly imported from China or other foreign countries as a luxury item, and therefore it seems that such incenses were used among royal families and nobles who wielded economical and political powers. In Shilla, to stop excessive usage of expensive incenses, it limited usage of imported incenses according to bone rank system, showing how common it was using incenses. More various ways of using incenses were introduced in the period of Koryo Dyansty, it was not only used in Buddhist rites or other religious rites, but also in

national rituals, envoy and guest reception, cosmetics, and cure, and the method also became various including aroma extraction, bathing, and direct application on skin. Incenses were still luxurious items in this time, so the usage of incenses were still focused among royal families or nobles. Thanks to abundant amount of historical records from Joseon Dynasty, the historical records of Joseon Dynasty shows much more precise information on the usage of incense plants among different fields. It shows that aromatherapy was not only used in medical treatment, but also in many parts of life in general such as wedding ritual of the royal family, envoy reception, preferential goods for writers, storage of books and clothes, spice, beauty treatment, extermination of vermin and etc. Meanwhil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localization of expensive imported medicine was attempted, and by local cultivation of incense plants, which are ingredients of expensive imported incenses, and replacing with local plants were also attempted in order to supply to more people. (Gyeong-Rok Lee, 2010)

Fourth, this study classified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into two by usage, ‘medical treatment’ and ‘miscellaneous application’, and apprehended the characteristics. This is a classification based on ‘aromatherapy’ in a broad sense of the word amongst many aromatherapy concepts, ‘medical treatment aromatherapy’ was classified into inhalation, oral consumption and application on skin according to absorption of the incense components and were examined first. Inhalation method used in Korea are the following: Hun-beop(薰法), being exposed to the smoke by burning the incense; Hunse-beob(薰洗

法), being exposed or washing oneself to the steam of the medicine by boiling herbs; Hyang-dae(香袋) method, using medicines carried in Hyang-nang(香囊); Hyangchim-beob(香枕法), filling in pillow with incenses. Oral consumption method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methods: using boiled or infused herbs using pill using powder; using ointment, a type of boiled juice; using in forms of herbal tea or herbal liquor. Application on skin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methods: aromatic bath(芳香浴); direct application on skin; and scrubbing the powdered incenses on skin.

'Miscellaneous applications' are utilization of functional effects of aromatic components in incense plants, but not medical treatment. It includes Buyonghyang(芙蓉香), Chwiseonhyang(聚仙香), Maehwahyang(梅花香) and etc. which were used in memorial rites or Buddhist rites, and usages as spices and aroma adder to increase flavor and conservativeness of food, also used in prolonged preserving of books or clothes, usage as vermin exterminator, usage as air purifier or interior mood changer, usage in beauty treatment and cosmetics to increase personal beauty and fragrance in forms of skin care or aromatic accessory.

Fifth, this study examined Korean researches that investigated 69 different incense plants commonly used in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in the perspective of modern science. This study also classified the fields where these 69 incense plants were traditionally used in 5 fields of 'medical usage,' 'ritual usage,' 'food application,' 'livelihood usage,' and 'beauty and cosmetics usa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ceding researches about medical effectiveness incense plants, mentioned above, which have been used traditionally in aromatherapy. The results showed that vast amount of researches about usefulness of a few domestic incense plants were accumulated, while additional usefulness verifications were still needed for other incense plants. Considering that component extraction method for incense plants used in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is different from extraction method of Western aromatherapy, it can be suggested that extra researches on varied fields such as difference of effect and component according to the extraction method.

On the scientific basis of medical usefulness, aromatherapy can provide professional and precise basis needed in different fields of study for not only in medical treatment but also in conducting a healthy life. This study did not remain in the cultural level of using Korean traditional aroma usage merely for enjoying the scent, but went over by seeing that it applies to aromatherapy based on aroma components in incense plants, and through historical investigation on Korean traditional aromatherapy and traditional usage of domestic incense plants, it was confirmed that scientific evidences for domestic incense plants' usefulness were scarce in comparison to their actual usefulness.

This study may assist in forecast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Korean incense plants on various functional application fields, and expects that this study will be a useful source of information in developing scent content of Korea and related research material which can be grafted into 21 century beauty and health integrated industry fields.